

MAXIM

KOREA

손연재에 대한 7가지 편견

24 HOURS TO LIVE

편집부에 쌍욕 투척
토종보다 찰진 우리말

샘 해밍턴

15 MOST HORRIBLE MMA INJURIES

TIPS FOR MORE SEX

여자가 토니 스타크에 환장하는 이유
TRUE STORY: HER PORN FANTASY
MAXIM 법률상담소

ONE NIGHT STAND

WHO'S THAT GIRL?

<신사의 품격>에서 김민종을
유혹하던 강변호사를 소환했다

박아인

2013년 6월호
정가 5,900원

그룹 달샤벳 멤버에서 JTBC로 아직
최초의 아이돌 출신 기상캐스터

viki

POET BATTLE

현존하는 두 명의 음유시인
의리 김보성 선생
애니팡 하상욱 선생

LET'S SPEND SOME MONEY!

삼성의 미러리스 킬링필드
대량살상무기 NX300

쿨하게 옥수수 털어가는
스타벅스 쇠빨대

없던 여자 생기는
싱글남의 7가지 가전 제품

"NO FUEL" BMWi3
GIRL'S TALK ON 인피너티



MAXIM PARTY
ON AIR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BMW Motorrad
Korea



The Ultimate
Riding Machine

The new F 800 GT



일상은 짧게, 일탈은 길게

THE NEW BMW F 800 GT. UNSTOPPABLE TOUR.

지금 떠나십시오. 되돌아 서거나 뒤돌아 보지 마십시오.

The new BMW F 800 GT에 오르는 순간, Gran Turismo 투어링의 가슴 뛰는 여정은 이미 시작됩니다.

병렬 271cc 엔진 채움과 최대출력 90마력(66Kw)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지루한 일상을 다이내믹한 라이딩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투어링에 최적화된 서스펜션과 ABS 시스템을 기본으로 장착하여 극한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궁극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투어링 모터사이클의 모든 것 The new BMW F 800 GT. www.bmwmotorrad.co.kr

90주년 기념 이지라이드 파이낸스 할부 금융 월 114,281원

예) 36개월, 고객공자금리 4.90%, 선납 50%, 상환유예원금 30%, 통합취득세 및 기타 비용 불포함 조건

90 YEARS OF BMW MOTORRAD.



STANDARD ON
ALL MODELS.

BMW Motorrad 공식 딜러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 BMW Motorrad 공식 홈페이지 www.bmwmotorrad.co.kr

서울 한남 (02) 2279-7322 강남 (02) 3453-9990 영등포 (02) 2633-9997 분당 1577-2690 인천 (032) 261-9784 대전 (042) 672-1101 전주 (063) 245-5077 광주 (062) 527-7807 대구 (053) 954-6161 부산 (051) 757-9995 창원 (055) 244-9997

* 본 광고 이미지는 실제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양 및 제원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모델별 옵션 적용 사항은 가까운 BMW Motorrad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금융프로그램은 비영리법인인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에서 제공하며, 201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별도의 취급 수수료는 없으며, 연체 시 연체 이자율은 연 24%입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계약 경과기간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 경과 기간 6개월 이하 / 12개월 이하 / 12개월 초과 : 잔여 미상환원금의 3%/2%/1%) 고객공자금리는 대출신청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검수 COMP-2013-05-001. 과도한 빛, 교통의 시작입니다.

Contents

JUNE / 2013



98 비키

음악 프로에서 9시 뉴스로 이직한
최초의 아이돌! 요즘 가장 핫한
기상캐스터! 비키의 폭발적인
글래머러스함에 촬영장에는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Contents



114

Who's That Girl? 박아인

〈신사의 품격〉에서 김민종을 짝사랑하던 '강변북로' 강변호사. 청초한 매력의 그녀는 사실 복싱 마니아였다! 그녀의 러브 펀치에 쓰러지고 싶은 사람 손!

Circus Maximus

- 18 초대형 고무 오리가 홍콩으로 가버렸!
- 20 인간 만사 새옹지마, 이달의 가장 X된 사람
- 22 노인 학대 인식의 날 특집: 슈퍼 파워 어르신
- 24 누들러와 함께 라면으로 여심 공략
- 26 굿시니스트 교양 만화: 커피 전도사 손탁 부인
- 28 대세남 샘 해밍턴과 함께 군대 육하기 (에디터보다 한국말 욕을 잘해...)

How To

- 30 대체 어디가 상석이야? 자리 잘 권하는 법
- 32 시인 김보성이 알려주는 '시 쓰는 법'
- 34 비행기에서 잘 하는 법

Smoke&Drink

- 36 커피 배틀! 진한 놈 vs. 부드러운 놈
- 38 무연 담배 '스누스'의 한국 상륙 작전

Comment

- 40 여자들이 토니 스타크에 환장하는 이유
- 42 밴드 '부활'의 역대 명창 완벽 정리
- 44 나오지 말았어야 할 망작 영화(스포 잔뜩)

Game

- 45 〈스틸 파이터〉의 초글래머 스트라이커
- 46 내 쌤짓든 털어간 모바일 게임사 Top 5

Music

- 48 밴드계의 이단아, 솔탄 오브 더 디스크

Stuff

- 52 영원한 1인자는 없다. SONY의 마지막 제국을 무너뜨린 미러리스계의 새 지배자, 삼성 NX300
- 54 에디터의 알뜰 없는 구매 후기: 그거 왜 샀어? 일곱 구멍의 리더기, 세계 한정판 쇠 집, 로지텍 마우스
- 56 자취하는 여자 에디터가 추천하는 싱글 가전

Motor

- 61 BMW의 선제 공격: 갑자기 다가온 전기차 시대
- 62 독자의 자동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1: 현대 산타페와 미스맥심
- 68 MAXIM의 29번째 테스트 드라이브: 인피니티 FX 30d

Sex

- 71 그동안 어디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여자들의 아동 판타지 10

Style

- 76 비치웨어&선글라스로 해변 정복
- 78 누런 강냉이에서 하얀 치아로! 치약 8종 비교
- 80 룩페에서 먹어줄 룩커 스타일로 변신하기
- 82 패션 응급 처치 아이디어 상품: 유두 가리개, 엉덩이콩 쓰는 법 알려드려요!



ALBA

POSITIVE & SMART

수입원 삼성시계(주) 02)511-3182 •직영매장 세이코부티크 스타시티점 02)454-8400 / 현대아이파크 벽화점 02)2012-4144 •직영 판매점 모먼트 롯데본점 02)772-3181 / 롯데참점점 02)2143-1920 / 롯데청림리점 02) 3707-1179 / 롯데평촌점 031)8086-9232 / 롯데대전점 042)601-2109 / 롯데대구점 053)660-3122 / 롯데광복점 051)678-4039 / 롯데울산점 052)960-4533 / 롯데아울렛서울역점 02)6965-2637 / 현대인텍스점 031)822-2929 / 현대충정점 043)909-4148 / AK원주점 033)811-5525 •연세점 롯데 / 신라 / 워커힌 / 동화 / 신세계 / JDC / JTO / KTO 전문점 서울(02) 중구 이외치(771-7033) 종로 타임존(737-3827) / 노블워치(745-8799) / 정신사(741-9678) / 정우상사(2772-2688) 동대문 패션존(3398-7527) / 사도(2118-8075) 서초 시계독립(6282-2777) / 신비피(532-2121) 송파 타임존(411-0829) 강동 현대골드(484-2029) 용산 해피타임(2012-0625) 서대문 타임월드(313-4108) 은평 타임랜드(350-8471) 관악 타임(6299-7168) 구로 시계백화점(2111-1120) / 타임타임(2111-1141) 양천 티파니(2648-8333) 김서 타임피스(2668-0871) 광진 TME타임21(3424-7073) 성북 해시계(2117-1755) 노원 도라시계(971-5334) 인현(032) 남동 정타임(432-2430) 남구 타임랜드(862-5534) 부천 시계나라(329-0894) / 북목(662-2026) 경기(031) 고양 타임(24931-5555) 성남 AK프라자(781-8194) / 동성당(753-0766) / 타임24시(728-5370) / 엔타임(707-1289) / 수원 AK프라자(240-2199) / 덴어클럽(201-7100) / 지지클럽(221-4997) 안양 타임월드(383-8342) / 보석상자(441-1014) / 시계상자(441-0158) 동탄 타임플러스(371-8850) 부산(051) 중구 명성시계(253-5315) / 국제사(245-1230) / 불광(245-7965) / 타이머볼(919-4704) 부산진구 플라이(922-2068) / 프로프즈(818-6573) / 동하시(644-5551) 울산(052) 금보당(960-4848) 경남(055) 마산 신세계스위스(224-2711) 창원 롯데청원(279-3119) 진주 갤러리아(791-1177) 대구(053) 중구 주얼리아(428-2688) / 비젤(426-8707) / 동아스위스(252-8111) / 해피타임(428-3086) / 엘가(255-6940) / 젤마(428-0338) / 레츠(425-0157) / 삼성시(422-3002) 경북(054) 구미 타임프라자(455-2410) 포항 조이필(613-1170) / 주얼리(244-8172) / 타임피아(253-8855) / 스위스(246-8944) 충북(043) 청주 명광사(256-4574) / 드림플러스(235-1510) 대전(042) 보육당(253-9241) / 세이브존(257-7745) / 엔비(255-6292) / 세이브존(482-2328) 충남(041) 천안 티파니(561-9438) / 일파와오메가(564-5465) / 신세계예진(640-5081) / 루타타임(522-6505) 강원(033) 춘천 시계마을(253-7699) 광주(062) 굿타임(233-3050) / 이프유(225-0175) / 현대제일시(515-7172) / 시계경기(226-2251) / 골드북(410-0137) / 티티(222-3114) 전북(063) 새광당(289-2590) / 캠퍼(285-7596) 제주(064) 순금사(758-1717)

Contents



62

Icon

86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진~짜 사나이 김보성

Books

90 에니팡 시인 하상욱을 만났다

Maxim For Ladies

94 여성 독자를 위한 스페셜 신실 코너!
1탄: 죽은 소개팅도 살리는 남심 공략법

Sports

97 국민요정 손연재에 대한 7가지 편견
(됐고, 손연재가 나온다는 게 중요해)

반도 어벤저스

106 <아이언맨>이 안 부러운
조선팔도의 슈퍼 히어로 33인

Motor Challenge

120 MAXIM 회사차로 짐카나 대회에
참가해 개망신 당하고 온 사연

Miss Maxim

126 섹시 타투가 매력적인 3인의 예선
통과자. 이중에 풀덴스퀸도 있다!

Law&Order

133 1년 만에 재개된 MAXIM 특별기획
'법대로 해' No.5 강간이야, 아니야?
새 객원 에디터는 현직 변호사!

Ashley Tisdale

136 <무서운 영화 5>의 여주인공
애슐리 티스데일의 섹시 비키니 자태

Fight

142 경교! 노약자나 임신부는 읽지 마시오!
MMA 사상 최악의 부상 15

From Maxim India

146 인도판 MISS MAXIM 우승자가
한국에 납시었다! 인도 물 좋나 불까?

Military

152 6·25를 맞이해 되짚어 보는
역사 속 드라마틱한 전투들 Top 5

Party

162 MAXIM ON AIR PARTY!
핫한 미녀들과의 인터뷰를 위해
미녀 리포터가 출동했다!

166 대한민국 디제이 서열 1위,
셋다마우스

Unpicked

175 여차저차 해서 잡지에 못 실린 사진들



86

의리!



53



162



28

THE NEW ERA[®] FLORAL COLLECTION

2013 HOT SUMMER



NEWERA STORE

- 서울매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B1F
- 인천매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준동 926번지 SQUARE 2F
- 수원매장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번지 AK PLAZA 2F

ONLINE STORE

• WWW.NEWERACAPKOREA.COM

FLY YOUR OWN FLAG[™]



누가 가장 강한 독자인가!

EXTREME MAXIM READER CHALLENGE!

여동생 따라 간 B1A4 공연장에 가서, 등판에 타투를 새기며, 위장내시경을 받으며, 롤러코스터 위에서 영화미소를 지으며... 그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MAXIM을 읽는 열혈 독자를 찾는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MAXIM을 보는 자신의 인간승리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 최강의 독자 1인을 뽑아 MAXIM이 목, 허리, 발마사지까지 다 되는 300만 원 상당의 최고급 안마 의자를 쏘겠다. 병맛 돈을수록, 상황이 백셀수록, 여유가 넘칠수록 우승 확률이 솟구친다.

예제: 러시아 MAXIM 독자의 익스트림한 모습. 단군의 사손이 보드카 중독자들 따위에 질 수 없잖아.



우승 상품

풀장 유별! 300만 원 상당의 파나소닉 안마 의자

10위권 진입시 증정

정기구독권, MAXIM 티셔츠, MAXIM 여자 모델이 실제로 입은 코스프레 의상(보존 상태 Good~), 에디터의 손글씨 메시지가 담긴 MAXIM 잡지, MAXIM 이트림 제공 컷팅 프로필 사진 보정권, 편집장의 육두문자 섞인 논술 첨삭 지도권(초6~고3 한정)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응모 방법

MAXIM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벤트 배너를 클릭!
'최강 독자 찾기' 게시글에 댓글로 해당 사진이 있는 링크를 남긴다.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응모 기한 2013년 7월 13일까지

당첨자 발표 MAXIM 8월호



바로 응모하기

MAXIM

www.maximkorea.net

편집장 이영비
yb@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편집 1팀

| | | |
|------------|--------|----------------------|
| 에디터 김희성 | 대리/ 팀장 | alice@maximkorea.net |
| 조용재 | 주임 | wj@maximkorea.net |
| 김세형 | 인턴 | kim@maximkorea.net |
| 김소윤 | 인턴 | sy@maximkorea.net |
| 영상 에디터 김슬기 | 인턴 | sk@maximkorea.net |

편집 2팀

| | | |
|---------|----|---------------------|
| 에디터 손안나 | 주임 | anna@maximkorea.net |
| 박정욱 | 인턴 | ok@maximkorea.net |
| 이효선 | 인턴 | hyo@maximkorea.net |

편집 3팀

| | | |
|-------------|--------|---------------------|
| 디자이너 서윤정 | 주임/ 팀장 | yoon@maximkorea.net |
| 권석란 | 인턴 | ran@maximkorea.net |
| 주형성 | 인턴 | joo@maximkorea.net |
| 일러스트레이터 장재혁 | 인턴 | jang@maximkorea.net |

편집 4팀

| | | |
|------------|----|----------------------|
| 수석 에디터 유승민 | | sm@maximkorea.net |
| 에디터 김진욱 | 대리 | 14k@maximkorea.net |
| 에디터 정민지 | 주임 | min@maximkorea.net |
| 뷰티 에디터 장혜민 | | style@maximkorea.net |

| | |
|------------------|--------------------|
| 객원 에디터 이용수 | 격투 칼럼니스트 |
| 김덕중 | <엑스포츠> 기자 |
| 강산 | <엑스포츠> 기자 |
| 김대영 |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 |
| 김광희 | 리뷰 리뷰어 '누들라' |
| 박종현 | 리뷰 리뷰어 '누들라' |
| 굽시니스트 카툰 작가 | |
| 덕사마 | 게임 칼럼니스트 |
| Devil's Advocate | 변호사 |

광고-제휴 문의 partner@maximkorea.net
070-4010-9049

Finance & General Affair / 경영지원팀

| | | |
|--------|--------|------------------------|
| 최인영 | 대리/ 팀장 | Joy@maximkorea.net |
| 인사 장선영 | 주임 | sun0676@maximkorea.net |
| 유통 안재만 | 인턴 | man@maximkorea.net |
| 비서 손혜진 | 인턴 | son@maximkorea.net |

Marketing / 마케팅팀

| | | |
|-----------|-----|---------------------|
| 김진욱 | 팀장 | 14k@maximkorea.net |
| 광고마케팅 원정운 | 매니저 | jw@maximkorea.net |
| 정진선 | 매니저 | js@maximkorea.net |
| PR 염윤희 | 인턴 | yeom@maximkorea.net |
| 정재식 | 인턴 | jj@maximkorea.net |

Web & Mobile Service / 웹·모바일

토크엔 서정민 팀장 oreiss@town.com
남원규 팀장 wonkyoo.nam@town.com

Photography / 사진

| | |
|-----------|----|
| 포토그래퍼 정가수 | 실장 |
| 박 울 | 실장 |
| 이진오 | 실장 |
| 오준섭 | |

교열

신선경 kshh0111@daum.net

Circulation / 유통

승주출판유통 이응관 대표

Printing / 인쇄·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리 192-1 인쇄인 이원순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원혜진

구독 문의 Joy@maximkorea.net
02-323-1182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6-0193
2013년 6월호 통권 제38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ger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SENIOR ADVISER: David J. Fishman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 | | | | |
|-------------------------------------|--|--|-------------------------------------|--|
| ARGENTINA Germán Pittelli |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 ITALY Paolo Gelmi | RUSSIA Sasha Malenkov | THAILAND Surawong Krueafan |
| AUSTRALIA Santi Pintado | GERMANY Mike Bleibtreu | MEXICO/LATIN AMERICA André Félix Diaz Rojo | SERBIA Dragan Otašević | UKRAINE Sasha Malenkov |
| BULGARIA Hristo Zapryanov | INDIA Vivek Pareek | POLAND Krzysztof Papiński | SOUTH KOREA Young-Bee Lee | UNITED KINGDOM Alpha Media Group |
| |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 SWITZERLAND Boris Etter | UNITED STATES Dan Bova |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Y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Y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3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Swiss made
Sapphire glass
Vertical cubic dial
Super luminous hands

VERTICALE

Classico Collezione 301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로 코리아 1688-8907

- 직영점(여의도) 02)783-8910
- 롯데백화점(관악점) 02)842-7706
- 롯데백화점(중동점) 032)320-7559
- 롯데백화점(창원점) 055)279-3192
- 신세계백화점(센텀점) 051)745-2297
- AK백화점(평택점) 031)646-6139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8383
- 두산타워(동대문) 02)3398-7527
- 테크노마트(신도림) 02)2111-1120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빙끼통(부천점) 032)662-0686
- 탑타임(안산점) 031)413-7656
- 제이클럽(천안점) 041)564-5465
- 진보석(순천점) 061)725-3849
- 삼성사(대구점) 053)422-3002
- 조이퀵(포항점) 054)613-1170
- 중문면세점(재주점) 064)780-7665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64
- 롯데백화점(광주점) 062)221-1573
- 롯데백화점(서면점) 051)810-4087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AK백화점(원주점) 033)811-5535
- NC백화점(해운대) 051)709-5741
- e-watch(영동점) 02)771-7033
- 두산타워2(동대문) 02)3398-5528
- 타임타워(신도림) 02)2111-1171
- 가드파이버(송파점) 02)2157-5000
- Watch F1(인천점) 032)501-7015
- 에집시계(대전점) 042)280-9117
- 타임뱅크(광주점) 062)410-0110
- 인터폴고물(양산점) 055)911-7111
-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 타임블(부산점) 051)919-4704
- 롯데백화점(본점) 02)772-3908
-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130
- 롯데백화점(울산점) 052)256-3191
- 롯데백화점(광복점) 051)678-4191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현대백화점(부천점) 032)623-2163
- 갤러리아백화점(수원점) 031)548-8996
- 미금사(중랑점) 02)434-4880
- 헬로우APM(동대문) 02)6388-2927
- 디류브시티(구로점) 02)2211-0149
- 와와채(강남점) 02)537-8977
- 타임런(인천점) 070)7516-4545
- 타임터치(대전점) 042)482-2328
- 골드케니언(광주점) 062)714-1121
- 타임프라자(구미점) 054)455-2410
-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 블링(부산점) 051)245-7965
-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22
-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5
- 롯데백화점(청주점) 043)219-9108
- 롯데백화점(성남시점) 051)730-3198
- AK백화점(구로점) 02)839-5128
- 현대백화점(광주점) 062)510-7171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정우상사(종로점) 02)272-2688
- 멀리오레(동대문) 02)3393-1062
- W MALL(구로점) 02)2081-0921
- 티파니(안산점) 031)931-5300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메가워치(대전점) 043)857-9125
- 티파니(광주점) 062)671-7458
- 엘가(구미점) 054)451-6940
- 공주나래(대구점) 053)256-0975
- 엘가(부산점) 070)7569-5766
- 롯데백화점(영동포) 02)2164-6191
- 롯데백화점(분당점) 031)738-2140
- 롯데백화점(전주점) 063)289-3191
- 신세계백화점(인천점) 032)430-1486
- AK백화점(분당점) 031)781-8194
-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 동아백화점(대구점) 053)780-1701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 굿모닝시티(동대문) 02)2118-8075
- 테크노마트(강변점) 02)3424-0793
- 뉴코아아울렛(부천점) 032)624-8337
- 사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 보보스와치(대전점) 043)235-1510
- 골드룩(광주점) 062)410-0137
- 틱톡(군산점) 063)443-0090
- 대백프라자(대구점) 053)253-7133
- 롯데백화점(건대점) 02)2218-3191
- 롯데백화점(무평점) 032)452-2146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8082-0344
-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 NC백화점(불광점) 02)350-8478
- 대백프라자(대구점) 053)253-7133
- 해피타임(용산점) 02)2012-0625
- 타임왕실리) 02)2200-1355
- 원치룩(노원점) 070)4136-5090
- 룩룩(부천점) 032)662-2026
- 시계상자(안양점) 031)441-0158
- 룩와치(청주점) 043)223-1333
- 서울금방(광주점) 062)952-7720
- 엘가(대구점) 053)255-6940
- 타임피어(포항점) 054)253-8855

Letter From MAXIM



다음 타석이 류현진입니다

5월 18일 오전 10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에 원고창을 띄워놓고 마감 작업을 하며, 유튜브로 메이저리그 중계를 보고 있다. 류현진과 추신수가 동시 출격하는 날이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요즘처럼 행복한 때가 또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틀면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괴물 투수 류현진의 탈삼진 퍼레이드가 생중계되고, 채널을 돌리면 신시내티 레즈의 추신수 선수가 9회말 끝내기 홈런을 치고, 시즌 8, 9호 연타석 홈런을 때리며 새로운 드라마를 쓰고 있고 있다. 저녁엔 어김없이 한국 프로야구가 펼쳐진다. 아침을 야구로 시작해 퇴근할 즈음 또 야구를 볼 수 있구나 이 얼마나 망극한 일인가.

이날은 류현진의 8번째 선발 등판 경기였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투수'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투수의 공을 받아쳐서 MLB 통산 두 번째 '타점'을 올린 장면이었다. 건들건들 류현진이 타석에 들어서는 걸 보며 "갈길, 류현진 오늘 안타 하나 치는 거 아니야?" 했던 농담이 현실이 됐다. 불을 골라내고 커트할 때만 해도 "역시 선구안이 다르네" 정도였는데 류현진은 기어이 깨끗한 안타를 치고 만다. 경기 해설자가 "동산고 시절 4번타자 류현진"을 언급하며 흥분했다. 대담하고 노련한 투수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농락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선 본 적이 없던 그의 타격 장면은 솔직히 선발 등판보다 더 재미있고 기다려진다. "다음 타석이 류현진입니다" 라는 해설자의 말이 들리면 화장실에 있다가도 바로 끊고 TV 앞으로 달려갈 정도니까. 나는 야구 팬으로서 그의 활약을 보는 게 무척 즐겁고, 감사하다.

2010년 MAXIM 7월호 백커버 기억나나? 당시 한화이글스 소속의 류현진이 등장했다. 이 백커버 이미지가 인터넷에 돌면서 "MAXIM 돌았나. 류종이 표지라니"라는 분노의 댓글이 난무했다. 왠지 억울하여 '이건 백커버고, 앞은 여자다', '종이라니 그는 명치가 큰 거다'라고 일일이 해명하고 싶었다 (앞표지에 등장한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은 또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나). 어쨌거나 이후 배구, 농구, 격투기, 당구, 바둑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스타들이 MAXIM 표지에 등장하게 된 것은 당시 이슈가 되었던 류현진 선수의 표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MAXIM 편집장으로서, MAXIM 폐간 위기설까지 등장할 정도로 논란(?)이 된 2010년 7월호의 표지 모델 류현진을 보는 일이 무척 즐겁고, 감사하다.

원 그나저나 류현진 선수의 타격감이 이렇게 좋다니, 이리다 정말 올 시즌에 홈런 하나 치는 거 아닌가 싶다. 류현진이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때린다면... 만약 정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지난 인터뷰에 언급된 '섹시한 여자가 잔뜩 등장하는 멋진 화보의 주인공'으로 그를 다시 모셔야겠다.

MAXIM: 섹시한 여자가 잔뜩 등장하는 멋진 화보의 주인공이 될 생각 없나?

류현진: 구단과 의논할 문제다. 내 의지와 상관없다. 알겠나? "구단과 의논할 문제다!"

- 2010년 7월호 MAXIM, 'ICON 류현진, 괴물을 넘어서 전설로'

내 남은 혼을 쥐어짜내 구단과 의논해보겠다. 류현진 선수도 '의리'로 다시 꼭 MAXIM을 장식해주길, 독자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달라 (걱정 마라. 수컷이 MAXIM '앞' 표지를 장식하는 일은 다음 생에도, 저 멀리 평행우주 속 MAXIM 편집부에도 결코 없을테니까.)

2013년 6월 편집장

이영희



2010년 7월 류현진의 MAXIM 표지



아아, 또 말해놓고 나니
웬지 될 것 같다.

Miller
GENUINE
DRAFT

MUSIC TOUR

SEOUL

DYNAMIC DUO

SUPREME TEAM

CRYING NUT

IT'S Miller TIME.

MILLER MUSIC TOUR_SEOUL

부드러운 프리미엄 맥주 밀러가 매년 주최하는 밀러 뮤직 투어가 2013에는 뉴욕을 거쳐 서울에서 열립니다. 힙합과 락의 만남으로 펼쳐질 화려한 공연을 기대하세요.

• 지금 바로 밀러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millerkorea)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해주세요.

WHEN | 7:00 PM _ FRI, June 28th

WHERE | **PLATOON KUNSTHALLE** GANGNAM-GU, NONHYEON-DONG 97-22

LINE UP | Dynamic Duo/Supreme Team/Crying Nut

No Minors Allowed

For More Information

· www.miller.co.kr
· blog.naver.com/blogmiller
· facebook.com/millerkorea
· me2day.net/miller2day
· twitter.com/its_miller

Sponsored by

PLATOON
KUNSTHALLE

bling





Just Scan!



지구상에서 가장 섹시한 여자는? MAXIM HOT 100

MAXIM USA에서 진행한 2013 MAXIM HOT 100 투표의 결과가 공개됐다. MAXIM 독자들의 선택이니 결과의 신뢰도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전 세계에서 가장 HOT한 여성을 가린 이번 투표의 결과는 MAXI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인의 섹시 군단이 1열 종대로 줄을 맞춰 당신을 맞이할 테니, 당신은 그저 와서 즐기면 하면 된다!



This Month's Hot Click!

7위 애슐리 티스데일
아역으로 데뷔해
최근 (무서운 영화 5)
에서 섹시 호러퀸으로
변신했다.
애슐리 티스데일의
비키니 화보가 더
궁금하다면 136
페이지로 고고씽!

지구상에서 가장 섹시한 100명의 여자가 모두 내 눈앞에!

www.maximkorea.net



MAXIM ONLINE SURVEY

2013 프로야구 최강 미모 치어리더는?



1위 청순 섹시!
롯데의 박기량
(216표, 39.6%)



2위 경성대 전지현
NC 김연정
(118표, 21.7%)



3위 MISS MAXIM
LG 김지혜
(91표, 16.7%)



4위 연예인 포식!
LG 강요미
(78표, 14.3%)



5위 청순 귀요미
한화 금보아
(42표, 7.7%)

총 투표자: 545명 / 투표 기간: 2013년 4월 25일~진행 중

야구장의 꽃, 치어리더! 그중 최강을 가리는 설문 조사를 MAXIM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청순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지닌 롯데의 박기량이 4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박기량이 격렬하게 춤추는 모습을 보며, 찰랑거리는 그녀의 머리칼에 싸대기를 찰지게 맞는 상상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 이밖에도 MAXIM 홈페이지에서는 '최강 걸그룹 유닛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하는 구애 행동은?' 등 다양한 주제의 설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엔 진효성의 민주화 발언에 대한 투표를 걸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1만 850명 이상이 광클을 하고 갔다. 결과가 궁금해? 와서 투표하고 구경도 좀 하다가.

MAXIM 모바일 페이지 오픈!

MAXIM 홈페이지가 당신의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다시 탄생했다. MISS MAXIM 투표 및 진행 상황 확인, 실시간 핫이슈, 설문조사와 이벤트, 영상 화보까지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MAXIM 모바일 페이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상단의 QR 코드를 스캔해보시라!



This Month's Hot Scan

지난 호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스캔한 QR 코드는 모델 최별하와의 공구 화보 영상이다. 매끈한 미녀와 거친 공구들이 이루는 환상의 조합이런! 이번 달 QR 코드도 빠짐 없이 스캔하라. 핫한 화보 촬영 현장을 마음껏 엿볼 수 있으니까!



This Month's Hot Comment

지난 호 Book 기사엔 QR 코드를 스캔해 '내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댓글로 단 2명을 뽑아 에로틱 소설 5권을 쓰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연하 남친에게 섹시가 원지 알려주려고", "열 살 어린 여친과 30대를 불태우기 위해" 같은 부러운 댓글이 많이 달려 담당 에디터의 속을 쓰리게 했다. 이번 달에도 QR 찍고 선물 몽땅 받아가시라! Book 기사는 90페이지에.



This Month's Hot Issue

MAXIM 작업들이 회사차로 자동차 경주 대회 '짐카나 챌린지'에 갔다가 마스크를 댔다. 인터넷에서 '짐카나 챌린지'를 치면 MAXIM 차 사진이 쏟아진다. 왠지 타 매체를 능욕한 기분!.. 본 기사는 120페이지에.

Ingersoll®

SINCE 1892

FINE AUTOMATIC TIMEPIECES



Ingersoll History



1896



1910



1920



1935



1950's



1971



1989



now

established in 1892

잉거솔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 www.ingersoll.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직 영 점] 롯데백화점 분당 (031-738-2140) 롯데백화점 미아 (02-944-2130)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하이힐 (02-2136-9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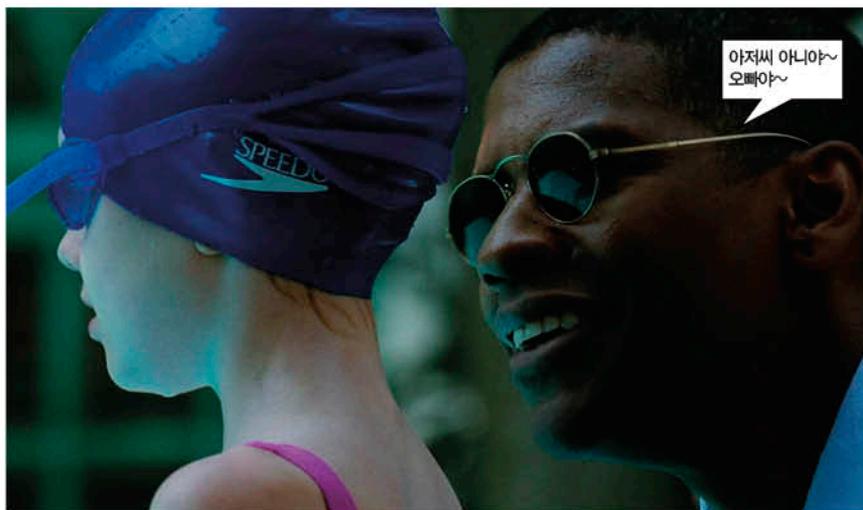
[면 세 점] 제주중문면세점 (064-780-7871)

[판 매 처] 롯데백화점 노원 (02-950-2184) / 잠실 (02-2143-1922) / 전주 (063-289-3191) / 대전 (041-601-2253) / 청주 (043-219-9108) / 신세계백화점 인천 (032-430-1486) / 광주 (062-360-1291) / 천안 (041-640-5081) / 대구백화점 (053-422-3191) / 현대백화점 중동 (032-623-2163) / AK PLAZA 수원 (031-240-2199) / 분당 (031-781-8194) / 팽택 (031-646-6139) / 구로 (02-839-5126) / 원주 (033-811-5535) / NC백화점 송파 (02-2157-5236) / 평촌 (031-380-5618) / 순천 (061-720-5124) / 일산 (031-900-5163) / 불광(02-350-8478)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 (031-548-8996) / 디큐브백화점 가재 (055-680-0193) / 신도림 (02-2211-0142) / 세이백화점 대전 (042-257-7745) / 서울(02) 현대아이파크 해피타임 (2012-0625) / 와외치 (537-8977) / 원타임 (2200-1355) / 진진상사 (764-4716) / 타임가든 (324-6272) / 타임마신 (6388-2927) / 타임사모 (6373-7743) / 타임21 (3424-7063) / 타임월드 (3132-4108) / 패션존 (3398-7527) / 프로워치 (779-6964) / 경기(031) 시계상사 (466-1014) / 사른주얼리 (463-9788) / 유빈 (658-6883) / 타임루트 (487-9057) / 티파니 (441-0158) / 타임플러스 (371-6850) / 경기(032) 대성 (325-7467) / 뽕끼름 (662-0686) / 타임런 (504-8245) / 카시오모두 (502-7138) / 광주(062) 타임앤템포 (222-3114) / 청주(043) 보보스워치 (235-1510) / 복워치 (223-1333) / 타임21 (224-8851) / 대구(053) 공주나라 (256-0975) / 골드&워치 (424-4442) / 그리니치 (255-6165) / 대백프라자 (254-3977) / 레프 (425-0157) / 스위치워치 (593-4844) / 신세계몰스텍 (566-3316) / 주얼리아 (428-2668) / 해피타임 (428-3086) / 부산(051) 명성시계-광복 (253-5315) / 명성시계-남포 (253-5334) / 명성시계-서면 (667-7356) / 명성시계-신창 (253-5354) / 덕천시계 (333-8849) / 타이머블 (919-4704) / 월드타임 (245-8359)



Letters

더운 바람에 코털이 곤적해지는 6월,
당신의 곤적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오.



얼굴이 너무 삭아보여요

저는 20대의 파릇한 청춘 신입사원입니다. 어느 날 협력사 미팅 때 친선만만한 여직원이 저를 보고 "대리님이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이 나오셨네요?"라는 드림을 날리더군요. 그 뒤로 제 별명은 '얼굴과장'이 되었습니다. 가끔 저 보고 대신 결제 싸인을 하라고 하는 과장님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 꽤 귀여웠는데 말이지...

<얼굴과장, 모바일 사연>



에디터 유승민 ● 답하기에 앞서, 난 지금 뺨이 처서 누굴 좀 까리 갈 예정이다. 매달 MAXIM의 독자 코너를 담당하는 조웅재 에디터는 '이달의 당첨 사연'을 골라 각 에디터에게 사연을 배정하는데 이번 달엔 당신의 '얼굴과장' 사연을 내게 던졌고 지난 달에는 서른 살 탈도 독자 사연을, 지지난 달엔 보청기를 추천해 달라는 사연을 보냈다. 아놔, 이 쌍노무새끼가 지금...

인기가 많으면 피곤해

결혼 2년차에 접어드는 31세 유부남이오. 하지만 과인이 너무 매력적이라 주변에 여자들이 끊이지 않소이다. 유부남인 걸 일면서 데이트를 신청하는 여자들은 제정신인지 모르겠소. 자고로 옛말에 사양도 세 번 이상이면 무례라고 했으니 이제 겸허히 그들을 접수해 나가면 되겠소? 일단 내 첫 번째 목표는 김희성 에디터이오만...!

<매력적인유부남, 모바일 사연>



에디터 김희성 ● 일단 목표 달성은 하셔야겠소? 제가 쓴 섹스 칼럼을 모조리 '접수'하신 다음, 밤마다 아내에게 폭풍시전하세요.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자기 아내한테만 잘 하는 유부남. 이것이 여자들이 생각하는 진짜 매력남입니다. 아 갑자기 질투하려고 하네.

사고쳤어요

여자친구와 5년 정도 교제와 헤어짐을 반복하며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화를 내며 "나 아이 생겼어. 어떡할 거야?"라고 말하며 헤어지자고 말하더군요. 사실 예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으니 뭐,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어쩔 거냐고 물었더니 일아서 한다면 신경쓰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카나, 모바일 사연>



에디터 조웅재 ● 이게 무슨 산삼수 버리고 구른산 바몬드 까먹는 짓입니까. '조강지처가 좋더라'는 옛말이 있듯 오래 사귀어 여자 친구일수록 더 오래 곁에 두어야 하는 법입니다. 얼마 전 이별의 아픔을 겪은 에디터 본인의 진심어린 충고이니, 새겨들으세요. 아니면 그 여친 분 성함이란 연락처 좀 보내주시던가요. 요즘 외롭네요.

이달의 스페셜 (하계 정성스런) 사연

뮤지션으로부터 온 알찬 소포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부터 T.E.N이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발매해 온 MAXIM 애독자 안진웅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기획사도 없이 '가억'이라는 밴드로 (나랏말싸미)라는 음악단체의 일원으로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고교 시절 때 우연히 길가에 버려진 MAXIM을 처음 만나 21세가 된 지금까지 많은 웃음과 지혜를 얻게 해 주신 많은 에디터분들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전곡을 제가 작사 및 작곡하고 부른 음반입니다.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디터 조웅재 ● 그렇잖아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안진웅님께 자극받아 저도 한창 때 밴드를 하던 기분을 살려 얼마 전 흥대에 나가 버스커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p.80). 제 노래를 들으며 눈과 귀에서 피를 쏟던 여고생들의 얼굴과 다 불렀으면 빨리 까지라던 기타리스트의 눈빛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려네요. 언제 저와 함께 슈퍼 파워 콜라보레이션 한 번 하시죠? 제가 특별히 시간당 5만 원에 공연 뛰어드릴게요. 애를 가능하구요, 원하시면 차비는 빠드립니다. 제발 끼워 주세요.

갤럭시S4 라이프의 동반자, S-VIEW 터치로 시작된다.



S-view

커버를 닫았을때 / 전화를
끊었을때 / 전원버튼을
눌렀을 때 주요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커버를 열 경우, 홈화면이
켜지고 닫으면 꺼집니다.



카드수납



호구인가 순정인가

요즘 갑자기 대학 새내기 때 만났던 처자가 문득 떠올랐소. 동아리 공연에서 만났는데, 그녀의 제안으로(!) 둘이 여행을 가게 되었소. 하지만 어린 마음에 MT는 꿈도 못 꾸고 짐질방에서 밤을 보내고 왔는데, 훗날 그 땅꼬맹이가 "오빠, MT 갈 땐 CD를 꼭 챙겨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라고 묻는 게 아니요? 그게 무슨 의도였을까 궁금하오. 그냥 개드립이요, 아쉬움의 섹드립이요?

<Ooops_slayers, 이메일 사연>

에디터 손안나 아... 이건 밥상 차려서 고기 반찬 떠먹여주는데 밥상을 냐다 발로 차버린 꼴이네요. 여자가 그렇게 연구리 쿡쿡 찌렀는데 왜 쓸데없는 인내심을 발휘한 거죠? 참을 때 참고 폭발할 때 짐승처럼 폭발할 줄 아는 남자가 진정한 남자죠. 그 일이 떠오른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계시일 겁니다. 앞으로 본능에 충실한 짐승님이 되시길.

금보다 귀한 여성 독자 이야기

MAXIM을 열혈 애독하는 20대 여성입니다. MAXIM에 은근 여성 독자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독자 사연 당첨 선물은 남성용 위주일까요... 선물을 받아도 어차피 못 쓰는데 말이지. 아! 그리고 MAXIM을 구독하는 여성이나 게이 독자들을 위해 섹시한 남자 사진도 올려주심이 어떨까요?

<질일쟁이, 모바일 사연>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같은 나

군대에 가서 어찌어찌하다 씬을 타게 된 여자가 있었소. 질나가나 싶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하다가 전 남친이라는 놈이 받더니 욕을 마구 날리는 게 아니요? 심지어 부모 욕까지 들었다오. 전장. 아무것도 못 하는 군대에 있는 내가 병신이지...

<양형, 이메일 사연>



편집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여성 독자를 위하여 이번 호부터 현대 여성들을 위한 선진국형 코너 'For Ladies'를 신설했습니다. 일단 남자 에디터가 들려주는 살아있는 연애 칼럼으로 가볍게 시작합니다(p.94). 독 짓는 늑은이처럼 실전 연애에 도움이 될 정수만을 고르고 골랐으니 재미있게 보시고 양껏 남자 후리고 다니세요. 참, 섹시한 남자 사진은... 혹시 보성이 오빠, 안 좋아하세요?



보성 오빠 리즈시절

에디터 조중재 여자친구 가진 남자로서 군인에게 여자친구를 뺏길 뻔 한 것만큼 비참한 흑역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양형님은 군인으로서 민간인 여친을 뺏을 뻔 한 최강 밀리터리 슈퍼 히어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아무리 토니 스타크라도 육군 현역이었다면 아우디는 개불 군토나를 몰고 있었을 거고, 슈트는 커녕 개구리복을 입고 훔발을 구르고 있었겠쎄. 비서 여친? 그런 거 없이 소녀시대 보면서 침이나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양형님이 아이언맨보다 낫네요.

독자 사연 응모

잡지에 사연이 실린 모두에게 선물!

응모 방법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방문 접수



6월 달력을 들여다보면 참 많은 기념일과 행사가 타코야끼 판 위의 반죽처럼 여기저기 박혀 있는 게 보인다. 클럽에서 이빨 좀 그만 까라는 <치아의 날>부터, 여성 사이즈 신장을 염원하는 <세계 우유의 날>, 하루 종일 그녀와 만리장성을 쌓는 <간식의 날>, 그리고 연인이 서로 정조대를 채워 열쇠를 한강에 던진다는 <Key's Day>까지(미래라 제발), 다양한 특별한 날이 가득한 6월엔 더 재미있고 특특 특는 사연들이 도착하길 기대해 본다. 날도 좋은데 직접 사연 좀 들고 와. 같이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게.

이달의 독자 선물

에브리맨젝 시크닝 그루밍 크림 티트리



이번 달 독자 사연을 보내 준 모든 독자들에게 스타일링 겸 트리트먼트용 제품 에브리맨젝 시크닝 그루밍 크림 티트리를 보내 준다! VITAL HAIR AND SCALP COMPLEX™ 기술을 사용해 두피와 모발에 동시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 제품은 구린 왁스 때문에 두피가 사막처럼 건조해진 당신에게 오아시스 같은 쾌적함을 선사할 거다.



HELL DIVER

1942 SB2C



HELLDIVER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공식 홈페이지 <http://www.helldiverwatches.com>

| | | | | |
|---------------------------|---------------------------|---------------------------|-------------------------|------------------------|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490 | 롯데센텀점(부산점) 051-730-3198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 티파니(임산점) 031-931-5300 | 타임북(부산점) 070-7530-1219 |
| 굿모닝시티2F(동대문) 02-2118-8075 | 이와치(명동점) 02-771-7033 | TIME 21(강변점) 02-3424-1210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교보문고(대구점) 053-256-1575 |
| 헬로APM6F(동대문) 02-6388-2927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 테크노마트B1(신도림) 02-2111-1120 | 타임런(부평점) 070-7516-4545 | 삼성새대구점) 053-422-3002 |
|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 행끼통(부천점) 032-662-0686 | 엘가시계(대구점) 053-255-6940 |
| 두산타워5F(동대문) 02-3398-7527 |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 샤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 복와치(청주점) 043-223-1333 | 엘가시계(구미점) 054-451-6940 |
|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 와와치(반포점) 02-537-8977 | 보석상자(안양점) 031-466-1014 | | |
| 프로워치(남대문) 02-779-6964 | TIME 21(강변점) 02-3424-7073 | 탑타임(안산점) 031-413-7656 | | |

Dear. Readers

웨더자키 비키의 상콤 발랄 고민 해결소!

소나기처럼 시원하게 퍼붓는 비키의
명쾌한 답변 콤보를 감상해 볼까?

Q. 여자친구와 200일 기념으로 강원도에 2박 3일 놀러갔다 왔소. 그런데 뜬금없이 남정네가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니겠소? 이게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란 말이오!
(권혁, 이메일 사연)

A. 아쉽지만 여행에서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 결과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여자가 계속 저을질을 하다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었나 싶네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그리고 여자분! 그렇게 살면 어차피 나중에 한 번은 꼭 똑같은 일 당하는 법이에요. 앞으로 진지하게 사람을 만나시길 바라요.

Q. 여자친구와 만난 지 600일 쯤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게 의무처럼 변해가네요.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우팍, 모바일 사연)

A. 그럴 땐 굳이 억지로 만나려 하지 말고 차라리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세요. 여자친구분도 남친 때문에 그동안 못 했던 일들을 다 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리움도 다시 생기고 하면서 다시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Q. 소개팅녀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애프터를 신청하려 해도 뭔가 반응이 시원찮아요. 여자들이 소개팅남이 마음에 안 들 때 하는 특별한 행동이나 신호가 있나요?
(K49, 이메일 사연)

A. 여자는 외롭거나 남자가 마음에 들면 말이 많아지는 법이죠. 메시지를 주고받아도 한 개 보낼 거 세 개, 네 개씩 연달아 보내요. “밥 먹었어? 난 돈까스 먹었어. 넌 뭐 먹었어?” 어찌구 저찌구. 반대로 말이 없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반지 어거스트하모니
뱅크 액세서라이즈
구두 슈즈원
의자 유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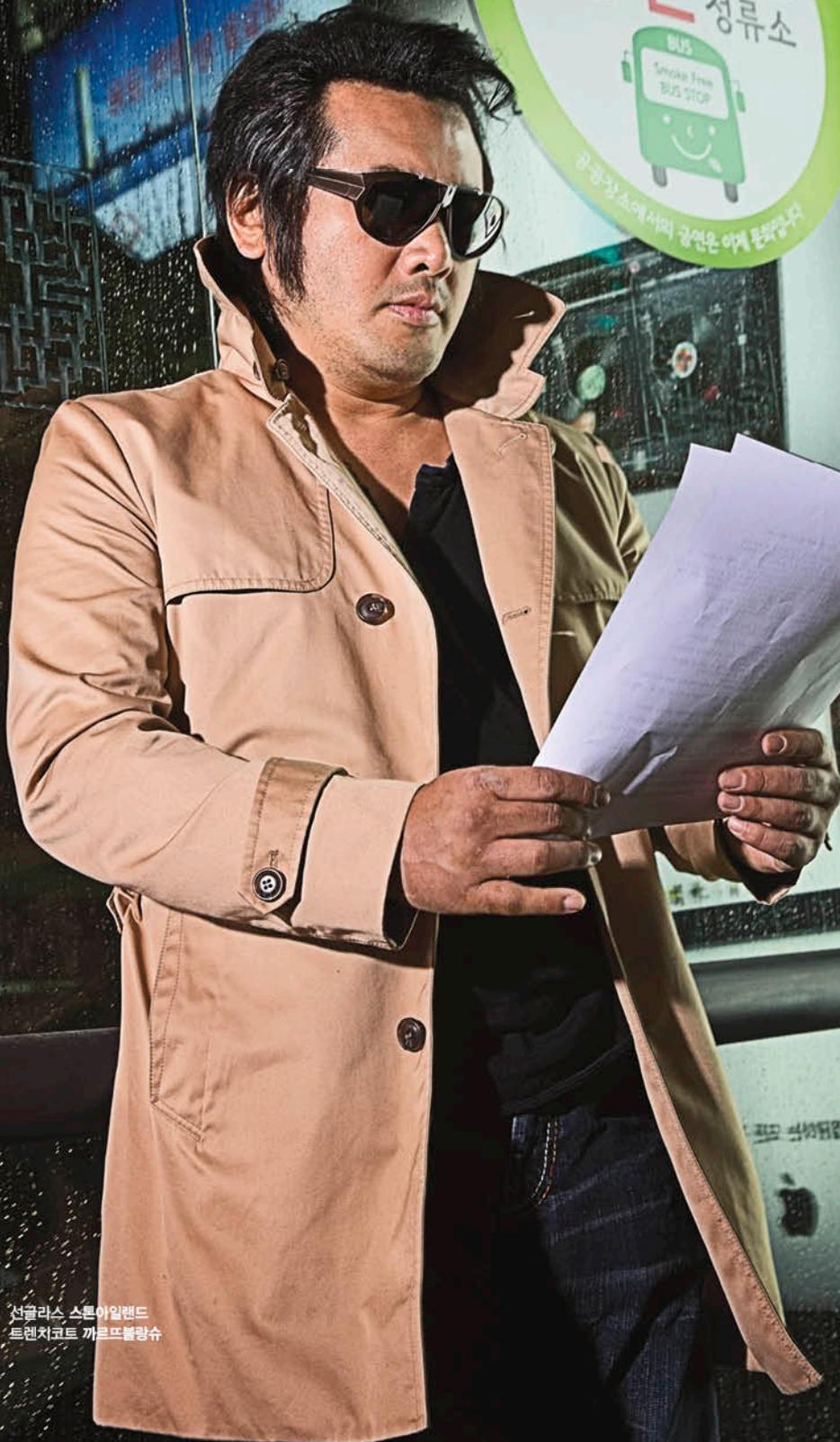
독자 사연
쏘리 가기!



Dear. Readers

김보성 형님의 으리으리한 독자 고민 상담!

그의 수많은 해결책은 오로지 하나의 단어로 귀결된다. "의리!"



Q. 친구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군요. 하루는 차도 그 친구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를 위한 제가 잘못된 건가요?

〈바람의 파이터, 이메일 사연〉

A. 때린 건 잘못했다. 폭력으로 원가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되는 거다. 하지만 그렇게 주사를 부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친구를 위한 의리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제 말로 세뇌를 시켜라. "술이 문제다, 술이 문제다"라고.

Q.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전부터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제 친구를 좋아하고 있더군요. 사랑을 쟁취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덤까지 비밀로 해야 할까요?

〈트위스터, 이메일 사연〉

A.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단호하게 친구를 선택했지. 여자를 때문에 사나이들의 의리에 금이 간다는 건 정말 슬픈 얘기다. 다른 여자를 만나라. 그렇게 억지로 쟁취한다고 해도 계속 불안함 속에서 만날 테니까 말이다.

Q. 대학 입학 후 만난 선배가 자주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본인에게 잘 하라며 자주 괴롭혀요. 마음 같아선 얼굴도 보기 싫는데, 계속 이 선배 말을 들어야 할까요?

〈쿠데타, 이메일 사연〉

A. 그 선배가 진정 정의로운 사람인가를 먼저 따져 봐라. 의리란 정의로운을 기본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나이 한두 살 많다고 으스스대고 건들거리는 건 정의가 아니다. 어리석게 당신을 괴롭히는 선배는 의리가 없는 선배다.

선글라스 스톤아일랜드
트렌치코트 까르뜨블랑슈

Subscribe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구독 중 가격 인상 없는 서비스, 푸짐한 사은품까지!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
5만 원
할인!**



MAXIM
KOREA

TV's MOST BEAUTIFUL WOMAN
Elisha Cuthbert
〈내겐 너무 아름다운 그녀〉로 나타나서 미드 〈24시〉를 거쳐 미국 수컷들이 가장 사랑하는 TV 스타의 반열에 오른 그녀 엘리샤 커티버트가 4번째 MAXIM 표지를 장식하다!

**Seoul Motor Show Special
BEST CARAWARD
BEST CHICKAWARD**
볼보의 걸정구! 메칸디V40 시승기

ICON 장우혁
이제는 전설이 된 HOT의 카리스마 장우혁이 MAXIM과 나눈 어른 남자 이야기

ULTIMATE SEX SURVEY
MAXIM의 월드 프로젝트 세계 5,000명의 여성에게 물었다
● 스리성은 언제 하용?
● 섹스 중에 트윌리한 적?
● 색사한 남자 되는 때를 관리법
● 통화 중 섹드림 하용 수위
● 25세 여성은 누적평균 몇 명과?

TIME TO WAR AGAIN!
Save Yourself
7성급 호텔보다 끝내주는 MAXIM 병커 전장이 내 재산에 끼치는 영향 진땀개 하나 진땀개를 알아야 산다!
Survival Gear 10
죽음도 피해갈 최강 서바이벌 기어 10선
Shoot Them Up!
넥슨의 대국민 사격 훈련 〈워페이스〉
Sexiest Missile
MISS MAXIM 엄상미의 미사일 특집 화보

장도연
그녀가 〈코미디 빅리그〉에서 우스꽝스런 연기를 펼칠 때에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모뎀 뺀치는 기러기처럼 볼륨 넘치는 S라인을 꿰뚫어 보고 있었잖아, 안 그래?

2013년 5월호
정가 5,900원

ISSN 2233-4270 비코드는 뒷면에

20 Happy Health Secrets



남성 피부 미백 및 보습에 효과적인
엠도씨 나이트 이펙트 화이트닝 젤
※ 한정 수량! 사은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기타 사은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 |
|------|---|
| 3개월 | 정가 17,700원 |
| 6개월 | 32,400원 (정가 35,400원) 3천 원 할인+1000씩 적립 |
| 12개월 | 63,800원 (정가 70,800원) 7천 원 할인+2000씩 적립 |
| 24개월 | 126,600원 (정가 141,600원) 1만 5천 원 할인+4000씩 적립 |
| 36개월 | 182,400원 (정가 212,400원) 3만 원 할인+6000씩 적립 |
| 48개월 | 233,200원 (정가 283,200원) 5만 원 할인+8000씩 적립 |

※ 적립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씩=1원)

정기 구독 신청 안내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 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 2 무통장 입금

(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 | |
|--------|-------------------|
| 하나은행 | 569-910012-00904 |
| KB국민은행 | 185801-01-004866 |
| 농협 | 355-0006-4797-03 |
| 신한은행 | 100-026-074070 |
| 우리은행 | 1005-701-637646 |
| 기업은행 | 208-107032-04-013 |
| SC제일은행 | 117-20-225316 |
| 우체국 | 012559-02-079161 |



MAXIM을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도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매거진 앱! 종이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 MAXIM의 아이패드 매거진에는 편리한 인터랙티브 디자인, 풀 버전 영상 화보, 종이 매거진에서는 볼 수 없는 미공개 화보와 깨알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MAXIM KOREA 또는 맥스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아이패드 매거진 : 1권 구매 시 \$2.99 / 1년 정기 구독 시 \$19.99
아이폰 매거진 : 1권 구매 시 \$0.99

SUPERSTARI[★]

슈퍼스타아이



365 on SALE

하루 하루 바뀌는
유행과 스타일에
지친 남자들 에게
언제나 파격적인 가격과
퀄리티 높은 옷을 위한 공간

www.superstari.co.kr

맥심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10% 할인혜택

49C2-A799-EFBD-A338

슈퍼스타아이 홈페이지 방문 후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전상품 이용가능합니다



Circus M

A MAXIM VIEW OF
THE WORLD

부우~오리가 왔저헬!

거대 고무 오리 홍콩 상륙작전

뭘 먹었길래...

최
강
의
만
문
적



aximus



키 16.5m, 무게 600kg의
거대한 오리가 홍콩에 떴다.

네덜란드의 설치예술가

플로렌테인 호프만이 200개 이상의
PVC 파이프로 만든 이 초대형 깜찍이는
제작자의 바람대로 '전 세계에 기쁨을
퍼뜨리기 위해' 세계 유랑 중이다.
새가 뭔가를 퍼뜨린다는 말에 살인적인
조류독감을 떠올릴 불쌍한 홍콩 사람들이
이 녀석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꼬. 게다가
먹을 수도 없으니 이거 싸구려 중국산
훈제오리보다 못하다. 그래도 귀여워!

문득 떠오른 러버 덕과 가수 사이의 평행 이른 다섯 가지 근거

1. 러버 덕도 14개국 순회공연을 마친
월드 스타 님이시다.
2. 몸이 둥그렇고, 각이 없다.
3. 러버 덕은 늘 젖어 있고, 사이는
겨드랑이에서 온천수가 터진다.
4. 러버 덕은 뒷부분에 문이 달려서 사람이
들락날락한다. 인간 사이도 몸 뒷면에 문
(구멍)이 있다. 러버 덕은 쌍방, 사이는
일방 통행이란 것만 다를 뿐.
5. 살이 올랐으나 식용이 아니다.

으야야... 도망쳐
이 새끼똥 썩네



러버 덕

나이: 만 6세
크기: 키 16.5m x 길이 20m x 너비 32m
체중: 600kg
특기: 무비자 입국

Circus Maximus

Screwed Up

MAXIM AWARD

이달의 추락자

인간만사 새옹지마.

윤창중
칼럼세상

야, 니가 만졌잖아.

병신아, 넌 내가 엉덩이랑
허리도 구분 못할 거 같나?

이달의 추락자: 윤창중

윤창중 前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업무를 수행하던 중, 21세 인턴 여직원의 엉덩이를 허락 없이 '움켜쥔(grab)' 혐의로 사이 뺨치는 월드 스타가 됐다. 그는 엉덩이 'grab' 사건이 발생한 슬슬리에 대해 "업무 처리가 마속한 인턴 직원을 심하게 집책한 데 대한 위로 성격의 자리"였으며 "허리를 한 대 특 치면서 '일'으로 질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라고 말한 게 전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신 촌데레였어?

가장 고마운 사람: 서태지



실시간 검색어에서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않던 '윤창중'이라는 이름 석 자가 서태지의 '재혼'으로 말끔히 사라졌다. 서태지에게 절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가장 무서운 사람: 박근혜 대통령



가장 후회되는 말



이달의 해커: 17세 고교생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박애쁜 동영상', '진격의 거인',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 캠페인 영상이 번갈아가며 재생됐다. 해킹범은 17세의 고등학교생으로, 호기심에 그랬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달의 교양필독서



이달의 격전지: MAXIM 홈페이지



전효성의 '민주화' 발언에 대한 설문조사를 올린 지 하루도 안 돼 1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몰려와 투표에 참여했다. 무섭게 올라가는 투표수에 놀란 MAXIM 편집부는 설문조사를 종료시켜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고, 혹시 코어콘텐츠미디어 홈페이지처럼 해킹이라도 당하진 않을까 내심 기대(?)하기도 했다.

이달의 대인배: 린



네티즌이 정리한 이달의 결론

ㅋㅋRT @1... 그러니까 라면상무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로 사건을 떠뜨린 남양유업을 문기 위해 윤창중이 몸을 날렸는데 그를 존경하던 전효성이 여론을 몰리기 위해 민주화 트집을 날렸고 시크릿을 아끼던 서태지가 결 혼설로 이걸 무마하려했던 말이군요.

KOREAN ZOMBIE



UFC 162

코리안 좀비
정찬성 출전

수퍼액션
공식블로그



HE IS BACK

7월 7일 (일) 오전 10시 30분 수퍼액션 독점 생중계

**SUPER
ACTION**

Circus Maximus

경로효친
敬老孝親

한중일 슈퍼파워 노인 열전

6월 15일 '노인 학대 인식의 날' 특집
공경 안 하면 큰일 납니다. BY 손안나

이게 얼장각도냐?

할머니의 발차기는 노련했다



🇰🇷 **턱걸이 612번 하는 할아버지** 현재 나이: 8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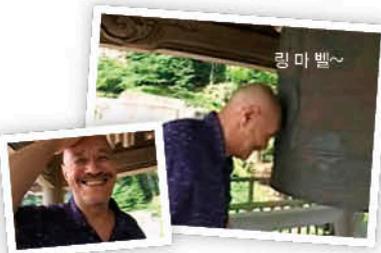
세계에서 턱걸이를 가장 잘하는 남자가 있다. 세 번이나 본인의 기록을 경신해 기네스북을 다시 쓴 '한계를 모르는 남자'. 그는 바로 수유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진영 옹이다. 1994년, 할아버지는 스트랩 없이 맨손으로 2시간 40분 동안 턱걸이를 계속했고, 612회라는 경악스러운 신기록을 세웠다. 그때 할아버지의 나이는 이미 고회를 넘긴 상태. 참고로 태릉선수촌에서 실시한 턱걸이 최고 기록은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태영이 세운 25개다. 2분 40초간 가만히 매달려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할아버지, 팔뚝에 아이언맨 슈트라도 입으셨어요?

🇨🇳 **4톤 트럭을 이로 끄는 할머니** 현재 나이: 75세



낮에는 회계사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30년째 취미로 쿡후와 차력을 연마해온 할머니가 있다. 중국 산둥 성에 사는 왕샤오베이 할머니는 '잇심'을 키우기 위해 매일 25kg의 물병을 이로 드는 훈련을 수백 번씩 반복해왔다. 지독한 수련 과정을 끝낸 그녀, 72세의 나이에 건장한 성인 남성 10명을 태운 4톤 트럭을 오로지 잇심으로 10m 이상 끌면서 '괴력의 할머니'로 불리게 됐다. 그녀는 지금도 전차를 끌겠다는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수련 중이다. 아아, 역시 대륙의 기개란...!

🇯🇵 **머리로 종 치는 할아버지** 현재 나이: 75세



일본 후쿠오카에 사는 다카하시 할아버지는 50년 전 레슬링을 연마하던 열혈 청년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역도산을 주축으로 레슬링이 대유행하던 시절, 한국계 일본인 나카무라 지로와 벌인 경기에서 박치기 공격을 당한 할아버지는 앞나가 네 개나 부러지는 큰 부상에 충격을 받고 이후 박치기 훈련을 시작했다. 너무 막대 격파를 시작으로 못 박기, 야구 배트 부러뜨리기, 얼음 깨기까지... 박치기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련을 끝낸 그는, 결국 머리로 커다란 종을 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지금도 후쿠오카의 한 사찰에 가면 할아버지가 머리로 종을 치는 광경을 구경할 수 있다.

역사 속 정력 센 노인들

죽는 날까지 화끈하게!



영계킥러 찰리 채플린

하도 10대 소녀를 밝혀서 별명도 '병아리 잡는 맴'였다. 채플린이 자기보다 열아홉 살 어린 16세의 리타 그레이와 결혼한 사건을 바탕으로 탄생한 소설이 바로 <롤리타>.

순정남 괴테

19세에 스물여섯 살 연상녀를 만나기도 한 괴테는 74세에 십다섯 살 연하인 울리케 폰 레베초에게 청혼했다. "노인네가 주책맞게 무슨 짓이나"는 주변의 만류에도 의사까지 찾아가 그 나이에 결혼해도 되는지 조심스레 물었다던데... 이 할아버지, 순정남이었어!

파워섹서 빅토르 위고

아내와의 하룻밤 관계 횡수가 10회 이상일 정도로 남다른 성욕을 자랑했다. 70세엔 젊은 여성과 과도한 섹스를 즐겨 가벼운 뇌출혈까지 일으켰다. 그는 성생활을 절제하려는 의사의 경고도 생까고 죽을 때까지 파워섹스를 즐겼다.

여름철 육수 뿜는 안경남의 고민!

콧등에 땀띠 나기 전에 안경부터 벗어야 하지 않겠어? BY 정민지

→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는 것일까? 이제 겨우 6월인데 온몸에 있는 모공마다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한 남자들. 처자들의 뽀얀 피부가 과감하게 드러나는 여름이 즐거울지 몰라도 더운 날씨에 몸에서 나오는 진한 육수(?)는 반갑지 않다. 야구장에 가서 치어리더보다 과격하게 열띤 응원을 하거나, 지동원 못지않게 2~3 시간 남성이 풀풀 풍기며 야생마처럼 뛰고 나면, 남는 건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과 온몸 가득 젖은 격한 몸부림의 흔적. 또 운동 전에 피부를 보호한답시고 얼굴부터 팔, 다리까지 덕지덕지 바른 선크림은 땀과 혼연일체 되어버리고 만다. 이게 또 밀크 티처럼 내 몸을 타고 흐른다면 그 찝찝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지. 그렇다고 유명 브랜드의 데오도란트를 아무리 온몸에 뿌려도 수컷 본연의 쾌쾌한 땀 냄새는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운동을 끝마치고 지하철이라도 타게 되면 처자들의 "지금 네 땀 냄새 때문에 내 코가 썩을 것 같으니 얼른 꺼져줄래?" 라는 표정을 마주한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을 터. 남자도 여자처럼 민소매에 핫팬츠를 당당히 입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았으면 좋으련만 아직 그 정도로 열린 시대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스스로 멋 낼 줄 아는 남자라면 긴 바지에 칼라 깃 세운 셔츠 차림은



고집해야겠지? 게다가 눈까지 나빠서 보는 사람마저 땀 나게 만드는 두꺼운 안경테까지 썼다면 진짜 보는 사람마저 송풍 막히는 코디 되시겠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몸에 거주장스럽게 걸쳐 있는 것 중 하나라도 제대로 벗어보는 건 어떨까? 이왕이면 한번 벗으면 광명찾을뻔더러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당신의 외모 자신감도 찾아주는 걸로 말이다. 자, 그럼 더 늦기 전에 콧대를 푹푹 누르고 있는 두꺼운 안경을 벗어보자. MAXIM을 사랑하는 김성일 원장이 당신의 숨어있던 이목구비를 되찾아줄 것이다!

MAXIM 애독자 닥터 김이 알려주는 눈 이야기!

외모와 능력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김성일 원장도 MAXIM 애독자라는 거~ 우리 독자들 사이에서도 잘나가는 형으로 유명한 그가 안경남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러 왔다!

나는 맥심 정기 구독자!



도움말: 서울밝은안과 김성일 대표원장

Q. MAXIM 보신 지 오래 되셨습니까? 일단 믿음 만한 분인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A. 허허, 인턴 시절부터 봤으니. 참으로 긴 시간 동안 MAXIM과 함께했습니다. 인턴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턴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 뿐이라는.. 발밑에 콘크리트 땅밖에 없던 시절부터 MAXIM은 힘든 시간을 잊게 해주는 좋은 벗이었습니다.

Q. 라식 수술이 더 좋던데, 수술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미국 MAXIMO이 좋아요? 한국 MAXIMO이 좋아요?" 와 같은 질문이네요. 특정 수술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수술은 개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수술이기 때문이죠. 원하는 수술이 있더라도 검사를 통해 수술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눈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해 수술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Q. 수술 후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 어떡하죠?

A. 라식, 라섹 수술 모두 수술 중 통증은 없습니다. 라식 수술은 수술 후 짧은 시간 내 시력 회복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라섹 수술은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 2~3일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에 따라 라섹 수술 후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수술 후 진통제를 처방하니 수술받기 전부터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Q. 수술 비용이 비싸지 않나요?

A. 서울밝은안과에서는 MAXIM 구독자를 위해 특별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수술 전 상담을 할 때 군인, 운동선수 등 특정 직업군을 밝혀서 본인의 생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수술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상담할 경우, 직업과 특이 사항을 꼭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Circus Maximus

Noodle

라면으로 여심 공략하는 법

오늘도 하마사키 리오의 H컵을 감상한 후 현자타임에 돌입한 당신을 위해, 누들러가 그녀들의 속내를 라면 유형별로 분류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제 그녀에게 라면을 권하며 집으로 데려오는 일만 남았다. NANT!(No more Aolsoral, No more Tissue!)

▶ 라면 전문 리뷰어 누들러(blog.naver.com/noodler)

서양의
라면 광고는
이정도!



1 비빔면처럼 톡 쏘는 그녀

이름: 정주혜
좋아하는 라면:
팔도 비빔면



김연발: 비빔면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정주혜: 비빔면 특유의 톡 쏘는 새콤함이 좋아요. 마치 저처럼요.

김연발: 불량식품 '짱, 서용' 같은 분이로군요.

정주혜: ?

김연발: 아닙니다. 비빔면 제가 한 번 비벼드릴까요?

정주혜: 어머, 이 남자 ♡

공략법: 자고로 톡톡 쏘는 여성일수록, 그녀의 모든 것을 품어줄 대담한 티프가이에게 끌리는 법. 마스터베이션을 통해 단련된 팔 근육으로 구령을 넣어가며 비빔면을 화려하게 비벼주자. 단, 위생장갑은 꼭 끼도록! 손톱도 좀 깎고!

2 치즈 라면처럼 부드러운 그녀

이름: 이슬기
좋아하는 라면:
오뚜기 콕콕 치즈볶이



박스프: 치즈 라면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이슬기: 부드러워서요. 여성스러운 저와 어울리죠.

박스프: 맞아요. 당신의 매력은 전라북도 임실에서 탈보 아저씨가 갓 만든 따끈한 치즈 피자 같아요.

이슬기: ?

박스프: 쪽 늘어나는 치즈처럼 우리 인연도 질기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슬기: 어머, 이 남자 ♡

공략법: 여성스러운 스타일엔 세심하고 로맨틱한 방법이 먹힌다. 브라질에서 수출 대기 중인 냉동 닭이 쌈바춤을 출 정도로 닭살 돋는 멘트를 준비하라. 예시: 당신에게 갈릭 디핑 소스만큼 깊이 빠졌어요.

3 매운 라면처럼 화끈한 그녀

이름: 권유진
좋아하는 라면:
농심 신라면



김연발: 매운 라면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권유진: 화끈해서요. 낮에는 따스롭고 인간적이지만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나란 여자와 같죠.

김연발: 그럼 저랑 '가위바위보'해서 화끈하게 아구창 때리기 하실래요?

권유진: ?

김연발: 아닙니다. 포장마차에서 불닭에 소주 한 잔?

권유진: 어머, 이 남자 ♡

공략법: 활발한 여성은 대개 맛집, 원조 맛집, 소문난 맛집 등에 열광한다. 그녀가 좋아하는 걸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같은 사람이 되어보자. 팁: 원스폰 맛집 어플 다운, 대포 렌즈 끼고 파워블로거 놀이

4 우동처럼 청초한 그녀

이름: 김설아
좋아하는 라면:
농심 생생우동



박스프: 우동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김설아: 구수한 국물이 좋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빠져드는 저와 닮았죠.

박스프: 익을수록 맛 좋은 나박김치 같은 분이시군요.

김설아: ?

박스프: 뮤지컬 티켓이 두 장 생겼는데, 같이 가시죠.

김설아: 어머, 이 남자 ♡

공략법: 차분하고 조용조용한 여성은 남자의 단호한 리드에 약하다. 강하게 리드하고, 그녀에게 거절의 기회를 주지 마라. 단, 끈기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 제 아무리 격렬한 리드라도, 한 번에 그치고 만다면 당신을 조루로 여길 것이다.

누들러가 섭외하고픈 게스트 3

그러지 말고 연락 한 번 주세요.
거나하게 대접하겠습니다.
noodler@naver.com



1. 포스코 왕상부

진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맛있다고
맥심으로 때리진 마시구요.



2. 이영애

누나, 라면 먹고 갈래요? 그러지 말고
국물만이라도 먹고 가요.



3. 윤호

형이 '찌빠구리'의 신세계를 보여줄게.
근데 혹시 수지 누나 싸인
받아줄 수 있니?

* 다소 지긋은 인터뷰에도 즐거이 응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ROADWAY'S ALL-TIME KILLER HIT

CHICAGO

THE MUSICAL



| 인순이 | 최정원 | 이하늬 | 오진영 | 성기윤 |

뮤지컬 시카고

7.6 Sat. - 8.31 Sat.

 국립극장 해오름

주최  국립극장  신sekongpuri
후원  MAKE UP FOR EVER
PROFESSIONAL - PARIS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뮤지컬 시카고

Lyrics by Fred Ebb Music by John Kander Book by Fred Ebb and Bob Fosse

麥心

러시아 백마의 한반도 도래

조선에 최초로 서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온 러시아 백마를 아십니까?

앙트와네트 손탁은 러시아 대사 베베르의 처사동으로, 대사를 따라 1885년, 조선에 입국합니다.

아오, 이런 노처녀 백조가 쓸모가 있구나?

손탁은 곧 고종 부부와 베프를 먹게 되고-

손으로 탁탁탁?

서양 외교관들을 상대하는 왕실 의전담당격으로, 한성 외교가 사교계의 왕마당이 됨.

Queen, King, Gentleman~!

카페라떼

Antoinette Sontag (1854~1925)

(사실 러시아인이 아니라 프랑스로 독일인임)

커피를 비롯한 각종 서양 문화를 왕실에 소개.

아메리카노 HDTV

동양식 된장녀에서 서양식 된장녀로 업그레이드해얏죠~



손탁 호텔도 개업. 호텔 1층의 정동클럽은 온갖 서양인들, 친러, 반일 세력의 집합소가 됨.

(이완용도 이 당시는 반일 친러파)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켜 왕비를 감살하고 친일파 내각 수립.

여우사냥 시마스!

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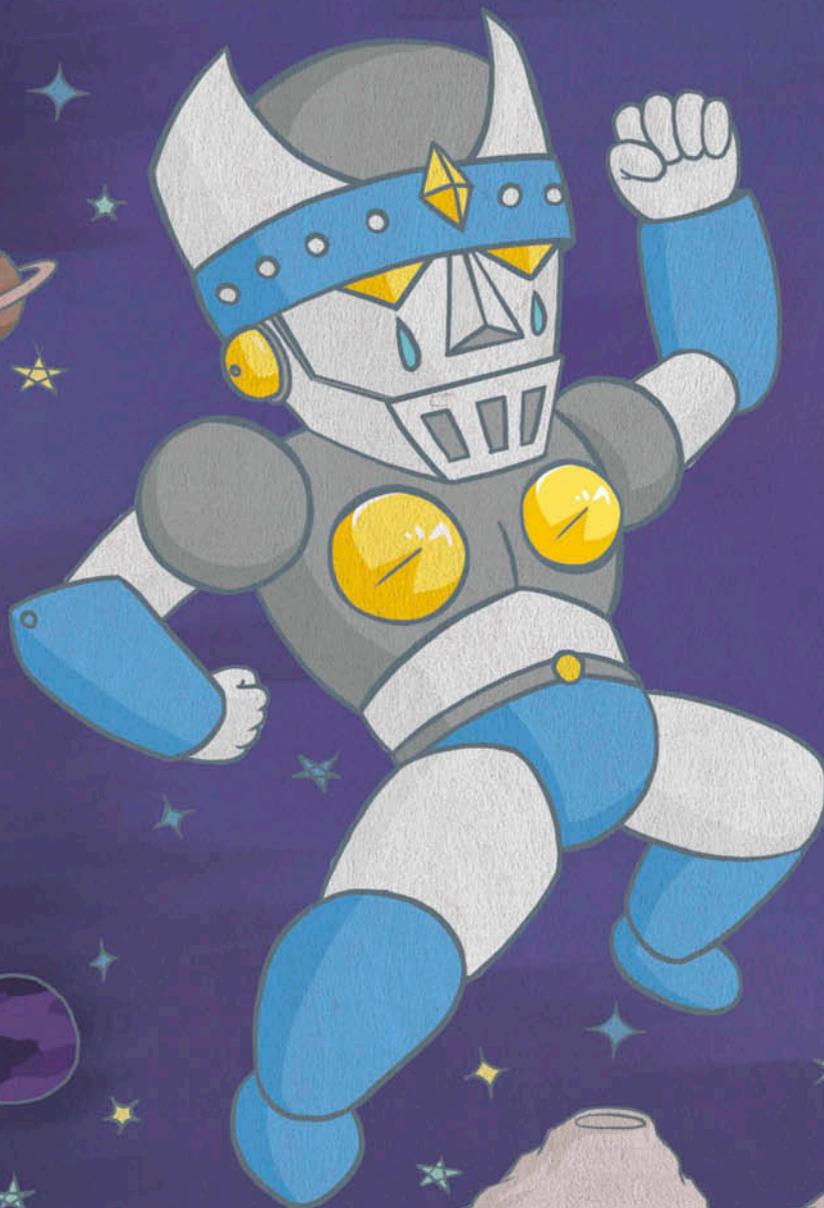
이에 러시아측이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오는 아관파천에 손탁이 정동클럽 회원들을 이끌고 큰 역할을 함.

하지만 결국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 손탁은 호텔을 팔고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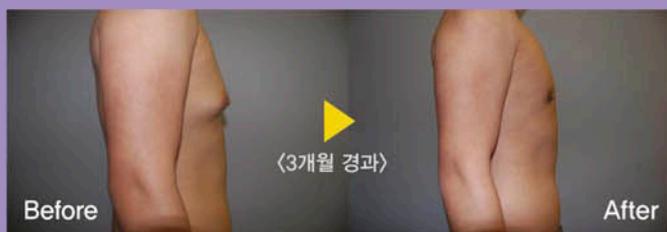
에스프레소???

손, 탁~ 털고 돌아가셔~

러시아 백마는 언젠가 돌아온다!



남자가
버려야 할
한 가지!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할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 성형외과 의원 [진료내용 : 여성형유방증] www.gyneco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92-15 실루엣 빌딩 4, 5, 6층 실루엣 성형외과 의원 [진료내용 : 여성형유방증]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Circus Maximus

24 Hours to Live

진짜 사나이 샘 해밍턴

음악과 술에 취한 호주 사나이의 '데스 파티' 플랜.

이태원 카페에서.avi



자, 24시간 후 당신은 죽는다.

그럼 친구와 가족들과 술 퍼마시면서 배꼽 빠지게 웃다가 너무 많이 웃어서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급사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은행을 서너 군데 털고, 친구들 불러서 그 동네 있는 술을 죄다 사 마실 거다.

차라리 술집을 터는 게 낫겠다!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별로 득 본 게 없다. 고혈압에 담석에... 진짜 술 먹다가 죽을지도 모르지, 나쁘지 않다.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고등학교 때 반 친구를 게이라고 엄청 놀렸는데 괴로웠는지 전학을 가버렸다. 아직도 너무 미안하다.

죽기 전에 꼭 한번 자고 싶은 여자는?

흑인 여자. 다른 인종은 엄두도 못 낼 입도적인 S라인이 있다. 굵이 달래 마이클 잭슨 광팬이었는데, 어릴 때 어머니한테 내 피부색 좀 어떻게 못 바꾸느냐며 징징대기도 했다.

푸른 눈의 금발 미녀에겐 관심 없나?

호주에 널렸다. 흑누나가 드물지..

죽을 때 무슨 음악을 듣고 있을까?

신나는 올드 스쿨 힙합을 듣고 있을 거다. '어 트라이브 콜드 퀘스트'라든가, '데 라 솔' 같은 1990년대 힙합.

장례식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까?

나도 궁금하다. 국회의원, 호주 대사, 연예인, 일반인, 외국 친구 등등... 내가 워낙 사람을 안 가려서 거기부터 부자까지 별의별 사람이 오지 않을까.

MBC <진짜 사나이>에서 어릴 적 꿈이 군인이라고 했는데,

이거 또 하라고 하면 때려 죽어도 안 한다. 더군다나 이 나이에! 해보니까 군대를 왜 스무 살에 가지 않겠더라.

부대에서 마신 바나나 라떼는 정말 죽어서도 못 잊을 맛이던가?

실제로 일주일 동안 입대해서 대본 없이 촬영한다. 다 리얼이다. 커피도 맘대로 못 마시고, 스트레스가 많이 아니다. 그릴 때 마시는 바나나 라떼는 힐링 그 자체다. 모 부대에는 '냉딸라'도 있다고 하더라. 냉딸라 라떼라고..

당신을 같은 조교에게 한 방 먹이고 싶을 텐데 참음성이 좋더라.

사실 조교 나가면 우리끼리 "저 X 새끼 어찌고저찌고..." 한다. 물론 편집당하지. 방송 보다가 멤버 중 누군가 말수가 없어졌다 싶으면 열받았거나 멘붕이 온 거다.

요비엔 뭐라고 쓰고 싶나?

'최초의 외국인 개그맨', '최초의 외국인 군인', '최초의 외국인 욕쟁이...' '최초의 외국인 연예인 사망자'는 안 되겠다. 로버트 할리나 이다도시가 먼저 갈 것 같으니까.

한국 욕은 이제 죄다 꿰고 있겠군.

그냥 뒤 병신, 씹새끼, 개새끼, 좆까 등등... 옛날엔 입에 달고 싶었지.

천국에 가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들어간신 아버지와 술편을 벌일 거다. 그리고 히틀러를 만나서 존나 패아지. 아, 천국에 없을라나? 잡스는 거기서도 여전히 알미올테니 한 대

때려줘야겠다.

가장 남자답게 살다 간 사람을 꼽자면?

프랭크 시나트라만큼 남자를 대표하는 '아이콘'은 없다. 자스틴 비버 같은 애기 스타일 아이들은 영 아니다 술 마시고 싸우고 여자도 후라이던, 자기 일엔 최선을 다하는 남자야말로 본받을 만하지

어떤 차림으로 관에 들어가고 싶은가?

선글라스와 모자, 티셔츠에 반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180기까리 아이팟에 음악 팍 채워서 귀에 물려주면 천국 갈 때 심심하진 않겠네.

장례식은 분위기는 어떻게?

유명 가수 초대 공연도 하고 술 파티도 벌일 거다.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뭘 슬퍼하나? 지인들이 "샘이 그뻐 그랬지" 하면서 킁킁거리다 갔으면 좋겠다.

장례 파티? 뭐라고 부르는 게 나을까?

'죽음 파티?' 아니면 '죽이는 파티?'

부활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

좀 쉬고 싶다. 한 5년 정도만 천국에서 쉬다가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긴다면?

"Man the fuck up!(남자답게!!)"

Man the fuck up!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뮤지컬

광화문 연가곡2

2013.5.21 ~ 7.7 속명아트센터  씨어터S

뮤지컬이 보고싶다면
찍어!



HOW TO



내 일으로 전부 집합

Office Life Tip

#6. 자리 권하는 법

손님에게 자리를 권할 때는 상석으로 안내하라고 배웠는데 도대체 어디가 상석인지 고민될 때가 많다. 알고 보면 별 것도 아닌데 모르면 대략 난감한 자리 권하는 법.

BY 김희성

MODEL 2012 MISS MAXIM 준우승자 엄상미(좌), 우승자 단영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종이

단영(오른쪽)이 상석을 가리키고 있다. 거, 거기 앉으라고

너무
섹시한
여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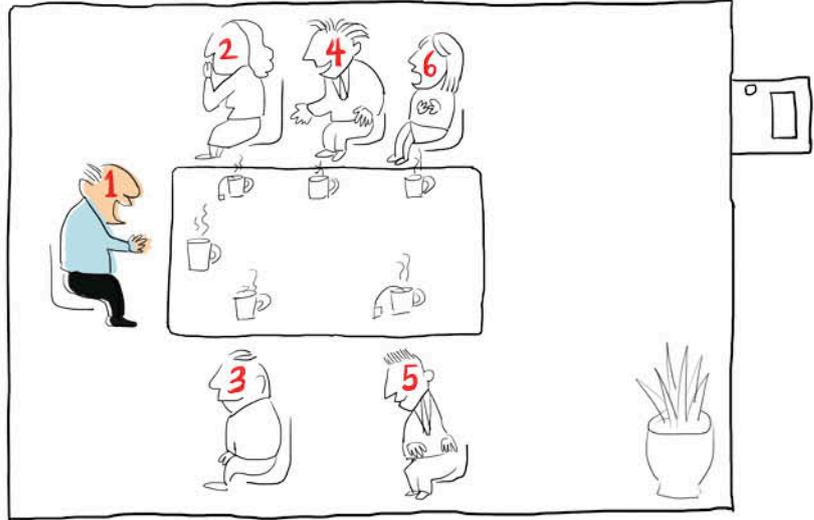


*1번이 상석. 숫자가 낮을 수록 좋은 자리다.

회사 응접실 상석

상석은 편하고 묵신해 보이는 자리가 아니다. 상석은 출입문에서 가장 먼 곳을 말한다. 하지만 상석에도 예외가 있다. 출입문에서 제일 먼 곳이라도 햇빛이 강하게 들어와 눈이 부시는 자리라면 햇빛이 덜 들어오는 자리가 상석이고,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는 출입문과 먼 곳 중 스크린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가 상석이다.

출입문에서 먼 곳을 상석으로 치는 것은 중세 시대에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피하려던 데에서 유래했다. 입구와 가까울수록 칼 맞아 죽을 확률이 높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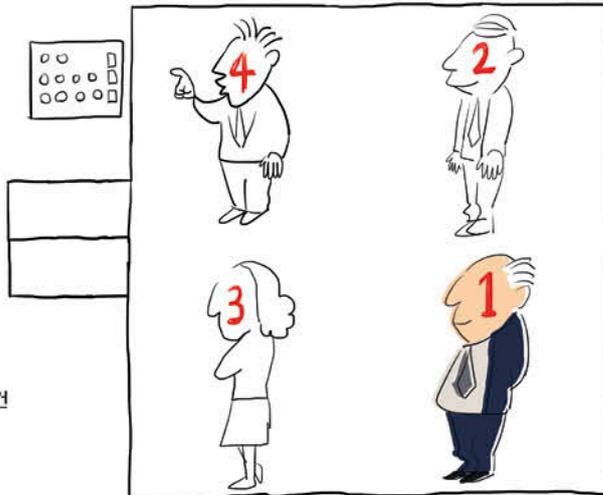
자동차 상석

기본적으로 자동차 상석은 운전자의 대각선 뒷자리다. 타고 내리기 쉽고,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택시를 타는 등 직업 운전기사가 운전할 때는 상사가 대각선 뒷좌석에 탈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하면 된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은 편하게 앉아 가시라며 상사에게 택시 앞자리를 권하는 실수를 많이 하지. 이때도 가는 도중 내리는 사람이 있을 경우엔 순서를 바꿔 타고, 차마 입은 여자가 있을 경우엔 마지막으로 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라. 차 주인인 상급자가 직접 운전할 경우에는 다른 상급자가 조수석에 앉아 나란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자신과 성별이 다른 운전자와 단 둘이 동승할 땐 조수석에 탈 것. 오해를 살까봐 뒷자리에 타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운전자에게 가장 큰 실례다.

엘리베이터 상석

엘리베이터에도 상석이 있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입구와 버튼에서 먼 곳이 상석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 상사나 회사를 찾아온 손님이 탄다면 상석에 위치할 수 있게 자리를 내주면 된다. 서열이 낮을수록 입구와 가까운 쪽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도중 문이 닫히지 않게 버튼을 누른다든지 다른 사람의 충수를 늘려준다. 당신이 신입이라면 무조건 버튼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지.



레스토랑 상석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상석은 존재한다. 먼저, 직원이 가장 먼저 의자를 빼주는 곳이 상석이다. 의자를 빼주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면 경치가 잘 보이거나 벽에 걸린 그림이 잘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권하면 된다. 우유 라이크 썸뽕 투 드링크? ☹

상사나 손님을 반드시 상석에 앉힐 필요는 없다. 아무리 상석이라도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자리가 상석이므로 어떤 자리가 상석인지 알고 있다가 먼저 자리를 권하는 정도만 하면 된다.

시 잘 쓰는 법

이미 수십 편이 넘는 시를 쓴 '시인' 김보성이
MAXIM 독자들을 위해 자신만의 시 쓰는 방법을 공개한다. BY 김보성



시나이의 길

1. 시가야 이 시가야... 2. 시가야 이 시가야... 3. 시가야 이 시가야... 4. 백두산 기슭에... 5. 시가야 이 시가야... 6. 시가야 이 시가야... 7. 시가야 이 시가야... 8. 시가야 이 시가야... 9. 시가야 이 시가야... 10. 시가야 이 시가야...

- 1 시각적 상상: 해가 지는 무렵을 시각적으로 표현, 치분한 분위기를 암시.
- 2 화자가 현실을 관조하는 계기가 되는 제3의 공간.
- 3 세속에서 살아가는 동료 혹은 이웃의 삶.
- 4 직유법: 외로운 남자의 모습을 호랑이에 비유, 화자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적 인간상.
- 5 화자가 이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수단이자 궁극적인 목적, 시의 주제어.
- 6 '의리'의 근원, 주제 의식을 낳는 인간의 평화로운 본성.
- 7 현실이 아닌 허상 속 화자의 모습.
- 8 허상 속의 자신을 성찰하는 현실 속 화자의 냉철한 모습.
- 9 이상향으로의 길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
- 10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한 화자의 의지.
- 11 진정한 '의리'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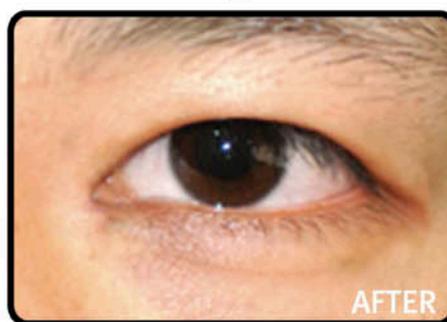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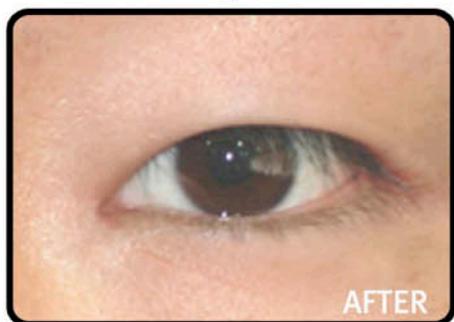
선글라스와 셔츠 스펀아일랜드 코트 까르뜨블랑슈 넥타이 미켈란젤로

PHOTOGRAPH YUD

시나이의 시 쓰는 법!

1. 시상이 떠오르는 순수한 정신을 가져라
"시를 쓰는 데 정도(正道)는 없다. 가슴에 느낌이 올 때 펜을 들어라. 명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감이 중요한 법. 세속에 찌들어 있을 때보다는 한가로움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시상이 더 잘 떠오른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2. 다른 사람의 시를 많이 읽어라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 다른 사람의 시를 많이 읽다 보면 다양한 시적 표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참피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시는 자유로운 문학이다. 소송당할 일은 없으니 자유롭게 모방하고 가꾸어 내 것으로 만들어라."

3. 그림 그리듯 영상을 떠올려라
"효율적인 비유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릿속으로 영상을 떠올리는 것이다. 호랑이를 좋아하는 나는 '시나이의 길'에서 '백두산 기슭의 흰 눈 속을 외로이 거니는 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자신이 상상하는 이미지를 떠올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로 묘사할 수 있게 된다."
4. 간절함 마음으로 마무리를 지으며 여운을 남긴다
"시를 마무리할 때는 걸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영화에도 클라이맥스라는 것이 있다. 마지막에 자신의 간절함을 폭발시켜라! 최후의 감정을 극대화함으로써 극적인 절정에 이르러야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다."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doctor.co.kr

비행기에서 섹스하는 법

스릴에 목말라 있는 그녀에게 3만5,000피트 상공에서 에로틱한 난기류를 선사하라.



1 선수 입장
여친에게 먼저 화장실에 가 있으라고 말한다. 5분 후, 화장실 앞에 줄 선 사람이 있나 눈알을 굴리다가 슬쩍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다. 곧 사람들이 노크를 해대기 시작할 테니 쯤쨌게 휘둘러칠 준비를 해야 한다. 팟팟팟 팟팟팟!



2 경기 시작
변기 위에 앉는다. 뚜껑은 좀 단재관한 배변 본능 자극하지 말고, 당신 위에 그녀가 앉는 체위로 합체한다. 그래야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렸을 때 당신이 나동그라지거나 엉덩이로 세면대 물을 뜨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3 마무리
함께 화장실 문밖으로 나온다. 이때 중요한 건 표정 관리. 여친에게 아픈 척하라고 일러둔다. 그래도 김새를 눈치챈 다른 승객들이 못마땅한 눈초리로 허를 꼴꼴 차거나, 승무원들이 당신과 여친을 추궁한다면? 무조건 모든 의혹을 부정하라. "여친이 너무 힘들어해서 도움을 준 것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자. 사실이잖아?

비행기에서 좋은 좌석 득템하는 법



1. 승무원과 마주 보고 싶다면?
비상구 바로 앞좌석은 공간도 넓고 승무원 간 좌석이 맞으면 벽에 붙어 있어 이착륙 내내 승무원과 마주할 수 있다.

2. 최악의 자리를 피하라
화장실 근처는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려 어수선하고, 날개 옆 좌석은 진동이 심해 멀미를 느낄 수 있다. 3열 가운데 좌석은 앞열에 덩치가 없더라도 하면 멀랑이다.

3. 햇빛이 어디로 드는지 예측하라
예를 들어 아침에 유럽에 가는 비행기를 탄다면, 왼쪽에 태양이 뜨므로 오른쪽 창가 자리에 앉는 게 좋다.

4. 발편을 서두르라
좋은 좌석은 발편 시에도 얻을 수 있다. 체크인 시간은 출발 3시간 전부터다. 발편 직원에게 음료수라도 건네며 핑크 링크를 날려보라. 물론 결과는 당신의 몫.

5. 웹에서 좌석 정보를 확인하라.
시트구루(seatguru.com) 같은 항공기 좌석 전문 사이트에서 항공기 번호를 입력하면 좌석 등급, 화장실과 비상구의 위치, 전체 비행기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 독재자들과 친구 먹는 법

여행 중 그 나라 독재자와 친구가 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초특급 VVVIP. 공개 처형장 맨 앞자리 커풀석에 함께 앉게 될지도...!

가무를 동원하라

아버지가 물려준 자리를 13년째 꿰차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안티 USA를 외치는 그의 아이튠스 플레이리스트에는 서플댄스를 세계에 유행시킨 미국 듀오 LMFAO의 히트곡 'Sexy and I Know It'이 담겨 있다. 내전 때문에 바벨테데 서플은 좀 뽀나봐?



→ 분위기가 혐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백스텝을 밟으며 쯤쨌게 후퇴할 것.



감성을 자극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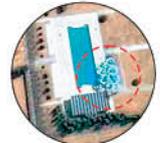
양키를 극도로 혐오한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은 놀랍게도 휘트니 휴스턴의 광팬이었다고 한다. 수단에 집을 사서 그녀에게 선물하고 청혼할 계획까지 세웠다는 얘기도 있다.



→ 신비로운 아시아에서 온 낯선 당신이 그가 평생 감춰온 비밀스런 취향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순간 흐르는 BGM!!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네게 줄게~이예이예~♪" (비누는 죽지 마! 위험해!)

동심을 자극하라

구글 어스가 북한 김일성의 저택에 발견한 놀라운 것! 대량 살상 무기? 남북된 인질들? 노노! 광활한 풀장과 거기 딸린 거대한 스케일의 워터슬라이드였다.



정은이도 이거면 깜빡 죽겠네.



OD Musical Company and CJ E&M present

브로드웨이를 뒤집어 놓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뮤지컬!



뮤지컬 스팸어랏

Book and Lyrics by Eric Idle Music by John Du Prez & Eric Idle



2013년 5월 21일~9월 1일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프로듀서 신춘수 연출 데이비드 스완 출연 서영주 정준하 이영미 신의정 정상훈 조형균 윤영석 고은성 이훈진 김 호 정철호 공민섭 박경동 윤민우 정성진

제작 OD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협찬 SPAM LOUN.G 후원 K160 기술보증기금 예매처 인터파크 오픈리뷰 옥션 예스24 두산아트센터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A new musical lovingly ripped off from the motion picture "Monty Python and the Holy Grail" from the original screenplay by Graham Chapman, John Cleese, Terry Gilliam, Eric Idle, Terry Jones, Michael Palin

Smoke & Drink



CUTE BEAN SEXY BEAN

어떤 커피 마실래?



손안나

“ 평소 커피를 많이 마시진 않지만, 씹씹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아까 점심에 먹은 떡볶이 입가심에 좋은데? 근데 커피를 먹어서 그런가? ”

손이 달달 떨어진다...

에스프레소에 물만 넣으면 완성. 에스프레소는 3,400원인데 아메리카노는 3,900원이라니(스타벅스 tall size 기준), 물 한 컵 값이 500원인 셈. 비싼 물 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소개팅 메뉴로 안전빵 초이스.

아메리카노



김희성

“ 부드럽고 크리미한 우유 거품을 타고 마감 스트레스가 녹는 것 같아. 기분이 나른해지면서 긴장도 풀리거든. 이제 휴식 시간을 위한 커피는 너로 정한다! ”

부드럽고 크리미한 우유 거품을 타고 마감 스트레스가 녹는 것 같아. 기분이 나른해지면서 긴장도 풀리거든. 이제 휴식 시간을 위한 커피는 너로 정한다!

우유 거품에 시나몬 가루를 탈탈탈 뿌려 커피 향에 은은한 시나몬 향을 더했다. 커피 향에 어우러진 은은한 시나몬 향의 따뜻한 우유 거품이 입 속에서 살살 녹으면, 한 겨울 전기장판이 주는 아늑함이 떠오른다.

커피치노



유승민

“ 이 맛이 바로 다방 커피의 진정한 재현 아니겠나! 담배가 땀기는 커피 맛이랄까? ”

그 어떤 비싼 고급 원두 커피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중독성을 지닌 녀석이다.

커피와 설탕, 그리고 크리머의 완벽한 조화로 1989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인기를 자랑한다. 1초당 366개의 개별 믹스 스틱이 팔리고, 하루 평균 매출량은 3,166만 개, 연간 74억 개가 판매되는(2011년 기준) 자타공인 국민커피.

맥심 모카 골드



김희성

“ 야근할 때 즐겨마시는 커피다. 편의점 커피라고 무시할 게 아니더라고. ”

깊은 커피 향과 우유의 부드러움이 조화롭고, 너무 달지 않아서 질리지 않는다.

수마트라의 고급 원두로 만든 진한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듬뿍 들어있어 단맛이 달하고 부드럽다. 이름처럼 진짜 바리스타가 만들어 주는 맛이다. 근데 기사에 수마트라라고 써야하는데, 왜 자꾸 손가락이 지맴대로 '카마수트라'라고 오타를 치는 거야?

바리스타 에스프레소 라떼



조용재

“ 커피는 땀기는 데 업무는 밀려있고... 이럴 땐 진짜 딱이지. 특유의 헤이즐넛 향을 맡고 있으면 정말 부드러운 커피를 마시고 ”

있다는 느낌이야.

연한 갈색의 케이스에 진한 커피향이 특징이다. 레종 카페의 라뉴얼 버전으로 전봉은 그래도 계속하면서 담배 케이스는 더 카페 느낌이 나도록 만들었다. 타르 1.0mg, 니코틴 0.10mg가 함유되어 있다. 가격은 2,500원

레종 프레스소 1mg





BY 장민지 MODEL 2010 MISS MAXIM 우승자 최혜민 PHOTOGRAPHY Zho HARRMAKEUP 정혜민 ASSISTANT 정혜민 LAYOUT 서용정 COOPERATION 칼라진, 미싱드로시(02-547-5707)



조웅재

“ **상남자라면 역시 진한 에스프레소다. 예쁜 중업원이 있는 매장에서 꼭 주문한다. 작은 에스프레소 잔을 출작거리면 실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보이지 않을까 해서.** ”

커피의 가장 원초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에스프레소는 원두의 원산지별로, 그리고 콩을 볶는 정도(로스팅)에 따라 향과 맛이 천차만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에스프레소 콘파나, 에스프레소 마키아또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에스프레소



서용정

“ **스트레스 해소에는 단맛이 최고다. 그래서 마감 중엔 책상에 늘 초콜릿 과자를 쌓아둔다 (편집장님이 몰래 드시는 것 같다). 모카치노는 달콤함에 부드러움까지 더해져서 딱 내 입맛이다.** ”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을 넣고 초코 시럽을 추가해 달고 부드럽다. 카무치노 우유 거품 위에 시나몬 대신 초코 시럽을 올렸다고 생각하면 된다. 부드러운 우유 거품이 달콤한 초코 시럽과 어우러져 여성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모카치노



조웅재

“ **인스턴트 커피라 마시기도 간편하고, 레알 원두를 써서 그런지 향도 풍부하고 맛도 깔끔하다. 나같은 커피 중독자는 두 시간에 한 잔씩은 꼭 마시게 된다.** ”

아메리카노와 유사한 깔끔한 맛과 원두 향으로 급부상 중인 프리미엄 인스턴트 커피. 다 마시고 나면 바닥에 남아있는 원두가루가 레알 원두 커피였음을 증명한다. 최근 미니 사이즈도 출시되어 취향에 맞는 용량과 맛을 선택할 수 있다.

맥심 카누



유승민

“ **이제 T.O.P는 집어치우고 별다방 더블샷 에스프레소 크림으로 빼꾸기를 날려보자. 여자들이 좋아하는 별다방표 커피인데다, 달고 진한 커피 맛도 끝내준다.** ”

에스프레소에 크림이 첨가되어 무척 달다. 별다방 매장 커피보다 저렴하지만 맛은 비슷하다. 이름처럼 에스프레소를 더블로 넣었기 때문에 한 모금만 마셔도 진한 풍미가 혀를 감싼다. 에스프레소를 두 샷이나 넣은 것에 비하면 합리적인 가격.

스타벅스 더블샷 에스프레소 크림



유승민

“ **레중 프레소는 뽀뽀하게 빨리는 느낌이 마치 진한 에스프레소의 목 넘김과도 같지. 달달한 끝 맛의 매력이 있어.** ”

진한 갈색의 케이스에 강한 헤이즐넛 향이 난다. 달달한 믹스 커피보다 강렬한 에스프레소 계열의 커피를 선호하는 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 타르 6.0mg, 니코틴 0.60mg가 함유되어 있어 강한 담배를 좋아한다면 레중 프레소. 가격 2,500원

레중 프레소



무연 담배 상륙작전

흡연자 다구리 정책을 피하기 위한 탈출구, 무연 담배 '스누스'가 국내에 첫 상륙했다. 무턱대고 사용하기가 무서운 독자들을 위해 실험실 기니피그가 된 에디터가 직접 시연해 보았다! *BY 조용재*

이건 어떻게 피우?



스누스 사용법: 스누스 피우치 한 개를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넣고 30분~1시간 정도 들고 있다가 빨아내면 끝! 씹거나 삼키지 말고!



입문형 1단계

Offroad Red White

무연 담배가 낯설고 두려운 애연가들을 위해 달달하고 청량한 음료 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입문용 제품. 입에 넣고 가만히 있노라니 시원한 향이 입안을 감돌며 햄버거 생각이 간절해진다. 무턱대고 시도해 보기가 조심스러웠던 에디터의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준 제품이다.



하수형 2단계

Offroad Green Mini

정신을 맑게 해 주는 은은하고 청량한 향이 입안을 감돈다. 한참 동안 입 안에 넣고 있으니 호주 동물원에서 유칼립투스 잎을 뜯어먹고 있는 코알라가 된 느낌이다. 분명 담배임에도 몸에 좋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 자일리를 씹듯 질경질경 씹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중수형 3단계

Offroad Ice Mini

알싸하게 쿨한 향이 입안을 자극해 마치 잇몸만 알래스카에 두고 온 듯 시원한 느낌이 일품이다. 아마 얼마 전 에디터가 감기에 걸린 이유가 이 제품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다. 기존 흡연자 중 타르 함유량이 적은 순한 멘톨 제품군을 애용하던 사람들에게 적합한 제품. 여름에 사용하면 더 좋겠지?



고수형 4단계

Megapole White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담배잎의 향취를 풍기는 제품으로, 스트레이트한 일반 담배를 선호하는 애연가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입에 넣는 순간 푸른 발 위에서 거칠게 젖소를 때는 오하이오의 근육질 농부가 눈앞에 아른거린다. 피우는 담배와는 달리 담배잎 자체의 톡톡 쏘는 향취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중독형 5단계

Offroad Beige White

한국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라크리츠 향이 진하게 풍기는 제품. 우리말로 하면 '감초' 정도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하사탕 맛을 선호하듯 유럽인들이 즐기는 맛으로, 향이 꽤 독해 처음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저화질 국산 셀카물처럼 이상한 중독성이 있어 에디터가 시연해 보여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이다.



이달의 신상 담배

매너님이 되는 길, 더원 에티팩 출시

MAXIM과의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을 마친 THE ONE 시리즈의 새 제품 '에티팩(Etipac)'이 출시됐다. 두 겹의 종이로 연기를 이중 차단하는 '더블랩' 기술을 적용해 흡연 시 발생하는 연기를 줄여 몸에 배는 냄새를 최소화했다. 이제 향수나 몰티슈 따위를 귀찮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premium tobacco OFFROAD SNUS

무·연·담·배
“여기로부터 해방”



Offroad Red White / 니코틴4.40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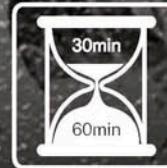


Offroad Green Mini / 니코틴2.40mg



Offroad Ice Mini / 니코틴2.40mg

- ① 파우치 1개를 집어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 ② 30분에서 1시간 동안 씹거나 삼킬 필요없이 물고 있으면 됩니다.
- ③ 다 쓰신 파우치는 케이스의 보조뚜껑에 버리시면 됩니다.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Comment

HERO OF THE MONTH

꽃중년 히어로의 순정 토니 스타크



아... 사귀고 싶다..

BY 손안나



"지금부터 당신은 평범한 시민이 아니다. 슈퍼 히어로 중 한 명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신은 어떤 히어로가 되고 싶나? 스파이더맨? 슈퍼맨? 울버린? 돈이 썩어나게 많은 배트맨/브루스 웨인은 어떨까? 천애고아에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부모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에 평생 괴로워하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 계속 고민하는 인생이라... 아무리 <다크나이트>를 수십 번 돌려 본 마니아라 할지라도 이렇게 음울한 배트맨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은 같은 부자라도 아이언맨을 선택할 거다. 세계 최강의 무기업체를 이끄는 CEO, MIT를 17세에 졸업한 천재 과학자, 게다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페라리나 파텍 필립도 아니고 아이언맨 슈트...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남자의 로망을 120%

실현하는 인물임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여자들에게 '어떤 히어로와 사귀고 싶냐'고 묻는대도 대답은 같을 거다. 전통적으로 슈퍼 히어로물은 남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지난 5월에 개봉한 <아이언맨3>만큼은 여성 관객이 더 많았다. 페퍼 포츠(기네스 펠트로)에 꽃힌 꽃중년 토니 스타크의 순정이 여심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바람둥이라는 이미지에 가려져서 그렇지, 사실 시리즈 중간에 새로운 여자로 갈아타지 않고 내내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히어로는 아이언맨뿐이다. 1년 치 MAXIM 커버 모델 13명(일란성 쌍둥이 포함)을 불러 질펀한 파티를 열던 이 카사노바는, 3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영혼이 있는 여자" 페퍼 포츠를 사랑하게 됐다. 이를 본 여성 관객들은 페퍼 포츠에게 감정이입하며, 마치 자기 일처럼 두근두근 설렌다. 바람둥이 망나니가 '나'에게 정착해

새 인생을 살게 된다니... 진부한 아침드라마 같다고? 이건 과거에도, 지금도, 백 년이 지나도 여자들에게 먹히는 러브스토리의 고전이다. 게다가 토니 스타크는 사랑 앞에 솔직하고 적극적인 남자다. 다른 히어로처럼 우울하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도, 영웅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슈트 개발에 더욱더 몰두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분투한다. 어른 아이인줄로만 알았는데 이 남자, 사랑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씩씩한 어른 남자였다! 고담시는 구했지만 사랑하는 레이첼은 속수무책으로 잃은 배트맨보다, 사랑하는 메리 제인이 위험에 빠질까봐 그녀를 떠나보낸 스파이더맨보다, 사랑하는 페퍼를 지키기 위해 수십 개의 슈트를 만든 아이언맨이 여자를 눈에 더 사랑스러운 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다. ☺

흑인이 되고
삼았던 토니
스타크



오셨습니까 행님!

히어로가 여자에게 차이는 이유 벗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배트맨

애가 너무 음침해서 같이 다니다간 우울증 걸린다.



캡틴 아메리카

“오빠가 네 나이 때는 말이지...”라며 폭풍 잔소리&곤대질을 시전한다.



슈퍼맨

빨간 팬티를 밖으로 꺼내 입는 남자랑 부끄러워서 어디 데이트나 제대로 하겠나?



스파이더맨

경험 부족, 스킬 부족... 어린 애 붙잡고 언제 이걸 다 일일이 가르쳐? 게다가 끈적여...



엑스맨

돌연변이도 유전되는 거 아냐? 2세 생각도 해야지.



연대기로 본 부활의 명 보컬리스트

 사법고시 패스보다 어렵다던 부활 '보컬 LIST'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역대 부활의 명창들이 여기 있다. 슈스케 X가. BY 조용재



바람과 함께 사라진 전설, 김재기

보컬을 잃고 방황하던 김태원은 얼마 후 어느 목사님의 은혜로(?) 명보컬 김재기를 소개받는다. 이승철과는 달리 잔잔하고 깊은 목소리로 심금을 울려 밴드 최고의 발라드 '사랑할수록'을 남긴 그는 부활 팬들에게 신화 같은 존재다. 잔잔한 저음부에서 클라이막스로 넘어가는 부분, '난 아픈이히 ~란거일~'을 들으면, 마치 심해를 조용히 거니던 노래가 '나 왔잖아! 뿌우!' 하며 수면으로 솟아오르는 장면이 연상된다. 안타깝게도 김재기는 데모 녹음만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한다. 그의 유작이 되어버린 3집 <기억상실>을 들으면 실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를 알 수 있다. 말 그대로 녹음실에서 그가 '딱 한 번 불러 본' 노래가 두 곡이 실려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다. 그 곡이 바로 '사랑할수록'과 '소나기'다.



1986



배가 불렀던 하이틴 스타, 이승철

불후의 명곡 '희야'로 이름을 날리던 밴드 최고의 전성기. <슈스케>에서 히드라 침 뱉듯 따끔한 독설을 날리던 카리스마 보컬 이승철이 이홍기처럼 출색하게 어깨춤을 추던 시절이다(아, 그도 술은 안 마셨다). 필살기인 미성으로 높은 음역대를 자랑하는 '희야'나 '인형의 부활' 등을 말끔하게 소화해 찬사를 받았으나, 그 높은 인기 덕에 김태원과 마찰이 생겨서 밴드를 탈퇴, 솔로로 전향해 큰 성공을 거둔다.

1993

1994



형만 한 아우, 김재희

부활의 차기 보컬로 발탁된 김재희의 동생 김재희는 '형만 한 아우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형의 목소리를 잘 카피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보컬 역량이 부족했고, 당시 정신이 혼미했던 김태원의 노래들 역시 나름 실력파였던 김재희의 보컬을 커버하기엔 부족했다. 타이틀곡 '기억이 부르는 날에'조차도 주목을 끌지 못하고 상업적으로 크게 실패한다. 마치 여포에게 뿔장치를 쥐어주고 촉나라를 치라 하는 꼴이었으니...

1997



불꽃 보이스의 발견, 박완규

4집의 대실패로 김재희가 탈퇴하고, 김태원은 지인의 동생인 박완규를 보컬로 영입한다. 숭탄 미군 부대에서 디제잉과 노래를 하던 그는 4옥타브가 넘나드는 고음역을 자랑했는데, 김태원은 본격 성대 파괴송 'Lonely Night'이 담긴 5집 앨범 <불의 발견>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밤이 외롭다며 들뢰레 같은 절규를 반복하는 이 노래 덕에 부활은 재기에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완규는 솔로로 전향한다. 어...?

1999



하이피치 보컬의 정석, 김기연

또 다시 보컬을 잃은 부활은 오래 전부터 언더그라운드 밴드 활동을 하던 김기연을 보컬로 영입한다. 얼굴은 비록 프로그래머 김대기를 닮았어도 목소리 하나만큼은 김종서 급의 포스를 자랑했다. 그는 시종일관 고음(소음)을 질러대던 당시 미국 헤비메탈 보컬 같은 시원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전작에서의 상대브레이킹을 향한 의지를 버리지 못한 김태원이 마침 잘 됐다 싶었는지 '너에게로'를 만들어 부르게 하고, 그는 상대 결절 때문에 밴드를 탈퇴하게 된다. 아아 나쁜 사람!

2000



문허버린 실력파, 이성욱

태원할매가 예능에 모습을 자주 비추면서 다시 주목 받은 실력파 보컬리스트다. 최근 모습을 보면 예전에 비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특히, Y2K의 고재근에서 하카처럼 변한 외모가 안타깝다. 하지만 현역 때부터 노래 실력은 워낙 출중했던지라 'K2' 김성민처럼 힘있는 고음처리와 거친 듯 청량한 목소리가 중독성있다. 목 관리를 어찌나 잘했는지 요즘도 축제 영상 등에서 부활의 명곡 중 하나인 '리플리히'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건재함을 과시한다.

2003



1,000 대 1 오디션의 레전드, 정단

끝판왕 이승철과 재회하여 '네버 엔딩 스토리'로 대성공을 거둔 김태원은 대대적인 오디션을 통해 새 보컬 정단을 영입한다. 무려 1,000 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그의 필살기는 시원시원한 콧소리, 비성이었다. 땀 뚫린 콧구멍 사이로 오가는 시원한 멜로디를 듣고 있노라면, 이 사람은 왠지 밥도 코로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노래하는 '맛'이 있는 보컬리스트 정단에 맞춰 김태원은 9집 <Over the Rainbow>에 신나고 헤비한 록 넘버를 많이 수록해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였다.

2005



끝나지 않는 계약 연장의 꿈, 정동하

하지만 소속사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단이 반 강제 탈퇴를 당하고, 평균 연령 40대에 이르는 올드 멤버들 사이에 스물여덟 젊은 피 정동하를 수혈한다(젠장, 질생겼다). 미소년 같은 얼굴과 굵직하고 정돈된 목소리는 베테랑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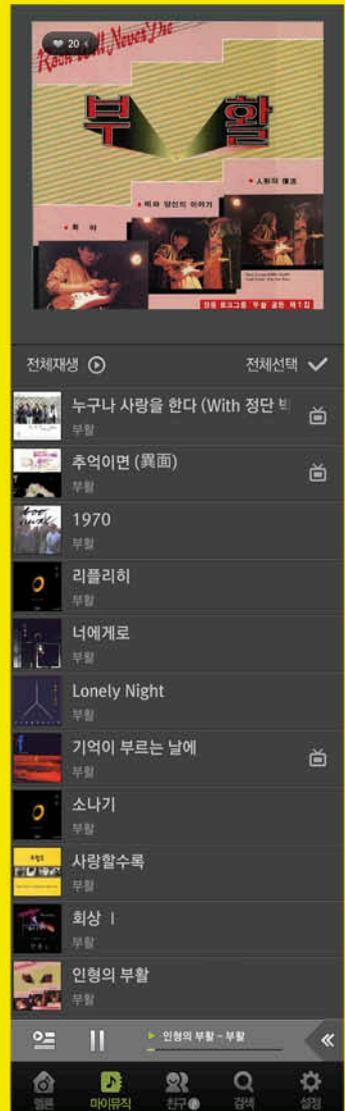
부활을 단숨에 '훈남 밴드(+할매1)'로 탈바꿈시켰고, 10집 <서정>이 인기몰이를 하자 신남 김태원은 정동하와의 계약을 연장한다. 까칠한 김할매가 손을 놓아주지 않는 데다 정동하 본인도 "30~40주년까지 함께 하고 싶다"는 훈훈한 발언을 하고 있으니, 이미 서로 몹시 아쉬운 사이가 되었나보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 8년 차란다. 전성기와 안정기를 누리는 그가 부활의 '조감지저' 역할을 톡톡히 할 때니까 말이다. 🍷



Editor's Playlist

에디터가 기사를 쓰며 들은 노래들

멜론(www.melon.co.kr)에 접속한 뒤 공개앨범 메뉴에서 프로듀서 '웅지느님' (누님 아니야)을 검색하면 역대 <부활> 보컬리스트의 실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에디터의 공개앨범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감동을 함께 공유해 보자구나!



희대의 망작 영화 5



정말 훌륭한 영화들입니다. 당신도 꼭 보시길!
(혼자 죽을 순 없지...) BY 손안나

아빠,
일어나...!



1 드래곤볼 에블루션

만화 <드래곤볼>을 원작으로 만들어졌지만, 영화를 본 원작자 토리야마 아키라는 "원작과는 다른 이야기로 생각해 달라"라고 말하며 영화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다. 평소 리메이크 작품에 별로 타치를 하지 않는 그도 이 영화만큼은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수준인지라 나름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를 제작진 측에서 무심하게 씹어버렸다. 원작 팬이라면 뒷목 잡을 만한 내용이 다수 나온다. 피콜로는 에네르기파 한 대 맛고 분해되질 않나, 무천도사 주윤발은 에네르기파를 써서 죽기 직전의 손오공을 되살리지를 않나... 아주 개판이다. 더 말해 무엇하리. 애초에 푸른 눈의 백인이 손오공 캐릭터를 맡은 것부터가 애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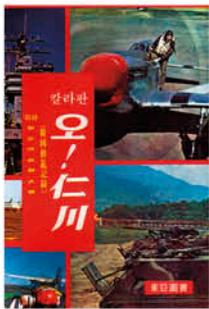
2 주글래 살래

단언하건대 이 영화는 대본이 없다. 분명 같은 시간대인데 등장 인물의 옷이 바뀌었다가 원래대로 돌아온다. 왜 나오는지 모를 저질 개그가 중간중간 특특 튀어나오는데, 그게 <행오버> 같은 골 때리게 웃긴 화장실 유머도 아니고 보다 보면 기분만 더러워진다. 영화 속에서 박남현은 여자들을 벌거벗기고 가슴을 '똥어빵'으로 누르고, 그 위에서 밀가루를 반죽해 먹는 변태짓을 일삼는다. 감독은 이런 쓸데없는 장면에 정력을 쏟아붓고 힘이 빠져버린 건지, 결말 부분은 자막으로 때웠다. 감독님, 중간에 여자가 소변보는 장면은 도대체 왜 들어간 거죠?



3 스트리트 파이터: 춘리의 전설

아무리 춘리가 주인공인 영화라지만, 류와 켄이 안 나오는 스트리트 파이터가 말이 되나? 디테일은 더 엉망이다. 아역은 동양 여자한테 어른이 되니까 서역녀로 변해있다. 가장 아쉬운 건 춘리의 허벅지. 춘리 하면 '원조 꿀벅지'인데, 크리스틴 크룩의 부러질 것 같은 새 다리가 싱크로율을 마이너스대로 떨어뜨린다. 그녀가 어설픈 Y자 스펀 버드릭을 시전하는 장면은 어쩐지 너무 민망스러워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아아, 이 영화의 감독에게 분노의 아도~겐을 날리고 싶다. | \ - 손! | \ - 손!



4 오 인천

맥아더 장군이 신의 계시를 받아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이 영화는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 4,410만 달러를 들여 할리우드에서 제작했다. 현장 조감독이 배를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멍청한 실수를 해서 인천상륙장면을 처음부터 다시 찍느라 300만 달러가 들었고, 서울 시내 군중편은 엑스트라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세 번을 다시 찍느라 200만 달러가 더 들었다. <007 살인번호>를 만든 테렌스 영이 연출하고 비비안 리가 사랑한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주연을 맡았는데, 감독의 연출은 무성의하고 배우의 연기에는 영혼이 없다. 둘 다 찌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찍었다는 소문이 사실일까? 이 영화의 엄청난 실패 후, 미국 흥행 영화 제작사 MGM은 1989년 1차 부도를 내고 2010년 파산했다.



5 클레멘타인

아까 그 <주글래 살래>의 감독이 또(!) 연출했다. 52억 원을 과감히 이 영화에 투자했던 배우 이동준은 흥행 참패 후 밤무대에서 동고소를 해야 했다는 소문이 있다. 스티븐 시걸도 몇 초 등장하는데, 여기에 제작비의 1/3을 썼다. 시걸이 출연료로 100억을 볼렸는데 '같은 무도인 아니냐. 무도계의 발전을 위한 일이니 도와달라'라는 말에 10분의 1로 깎았했다. 시걸 형님도 역시 '으리!!'

세계 속의 클레멘타인 <청춘남미>의 저자는 멕시코 여행 중 고속버스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됐다. 같이 영화를 보던 외국인들이 "스티븐 시걸이 몇 초 나오는 이 괴상한 동양 영화"가 x나 구리다며 욕을 하는 바람에, 그녀는 차마 그것이 한국 영화임을 밝힐 수 없었다고..

Game

스틸 파이터: 스트라이커



이런 타이즈 입고 저랑 로데오
걸을 여자 어디 없나요? BY 조웅재

CHARACTER OF
THE MONTH

흥분한
그녀가
된다.avi



스틸 파이터

〈스틸 파이터〉는 우리가 즐겨 하는 기존 AOS 게임들과 달리 차별점을 가진 복합 장르 성향의 게임이다. 우르르 나타나는 적들을 보면서 〈디아블로〉처럼 중독성 있는 액션을 즐기는 한편, 일정 레벨을 달성하면 자신이 소유한 캐릭터로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전략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스틸 파이터〉는 열심히 굴러 먹어 근육질이 된 다마고치로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는 게임이라고 보면 된다. 제작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적 보스가 사용하는 기술을 훔쳐 플레이어의 것으로 만드는 '오리진 스틸'이라는 참신한 요소를 기미했다. 강적의 능력을 흡수한다는 재미는 유저들의 수집욕을 자극해 애꿎은 보스들이 다시 한 번 줄 초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디아블로〉를 하며 '진정한 최종보스는 플레이어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모 만렙 유저의 명언이 새삼 떠오른다.



스트라이커 →

게임 속 여성 무슬거는 백이면 백 '복수' 아니면 '계승'에 얽힌 사연을 갖고 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려고, 홀로 수련해 맨손으로 공도 때려잡는 힘을 갖게 되었다든지, 기문의 전통 무술을 이어받으려 님자가 없어서 손녀 혹은 딸내미가 계승을 했다든지 하는 사립장은 여기 말이다. 〈스틸 파이터〉의 스트라이커 역시 뻔하다보면 '고유 무술의 계승자' 유형이다. 아마 이 캐릭터는 마법 쓰는 꼬마를 기우자나

시시하고, 암살자 누나를 선택하기엔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만든 스탠다드형 캐릭터가 아닐까 싶다. 어찌 됐든 삼촌 유저들의 엄청난 미소를 자아내는 '육탄적인' 몸매 덕에 인기 등이 좀 할 듯. 묵직한 건틀릿을 착용하고 적을 피떡으로 만드는 그녀는 격투가 클래스 밑에 호쾌한 손맛을 자랑하는 캐릭터다. 레벨이 오르면 더욱 강력한 힘으로 적을 조저버리는 '블래스터'나 불과 얼음의 힘을 사용하는 '엘리멘탈 피스트' 중 하나로 진화한다.

Another choice

하플링

메이지 →
몸집만 한 망치를
달고 다니는 하체
비만 초딩남



어쌔신

부담스러우려만치
핑크스런 색기를
뽐는 여류 암살자



| | |
|-----|---------|
| 플랫폼 | PC |
| 등급 | 12세 이용가 |
| 개발사 | 엘타임게임즈 |
| 유통사 | 그라비티 |

모바일 게임 업체 5파전!



스마트폰 게임 열풍으로 남녀노소 안 가리고 모바일 겜덕이 되어간다. 이 흐름을 타서 모바일 겜덕 주머니에 빨대를 꽂는 데 성공한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있다. 요즘 잘나가는 모바일 게임 업체 다섯 곳의 성적표를 공개하마.

BY 게임 전문 칼럼니스트 덕사마

→ 춘추전국시대라고 들어봤나? “중국 대륙에서 우리가 제일 짱짱맨!”이라고 외치던 5개의 나라 (패자)가 치고 박고 싸우던 시절이다. 작금의 모바일 게임 업계도 비슷한 모양새다. 진나라 같은 1인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통의 강호(게임빌, 컴투스)와 옆 동네 강자(CJ E&M 넷마블, 위메이드, NHN 한게임)들이 뒤엉켜 한바탕 접전을 벌인다. 모바일 게임 시장의 ‘ver 1.01 춘추전국시대’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과연 신인류, 모바일 겜덕의 마음을 사로잡아 ‘ver 1.02 진나라 시대’ 업데이트에 성공할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적어도 여기 언급된 업체 중 하나임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We are the’ 알 수 있다.

츄름 츄름~여기 먹음직한 게 잔뜩 있네!

모바일 게임 업계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지난 4월 최고 매출을 기록한 업체의 면면을 살펴 볼 것. 놀랍게도 모바일 업계의 쌍두마차 컴투스, 게임빌을 누르고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은근슬쩍 갈아탄 업체들이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그게 뭐 어쨌다고?’라고 생각한 높은 X값과 반성하라. 이제 더 이상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컴투스, 게임빌의 텃밭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무시하지 못할 먹음직한 시장으로 성숙했다는 얘기가. O.K?



현질 유도 중심, 넷마블의 필살 브랜드 <마구마구>

넷마블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바일 겜덕은 씹지돈을 잘 내어놓는다’는 점에 주목해 카드 뽑기로 현질을 유도하던 <마구마구>를 모바일에 맞게 재구성한 <마구마구 2013>를 내놓았다. <다함께 차차차> 시리즈로 이미 ‘현질=쾌적함’이라는 공식을 맞본 모바일 겜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카드를 위해 가까이 조공을 바친다. 그럴수록 CJ E&M 넷마블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 찬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호구 왔는가!’라며 비웃고 있겠지만...

1 CJ E&M 넷마블 평점: A

대표작: 다함께 시리즈, 마구마구 2013

주목할 점: 진정 새로운(모방이 아닌) 게임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눈 한 번 짙은 감으면 세상 사는 건 참 쉽다는 것을 증명하다

지난 4월, 당당히 모바일 업계 매출 1위를 찍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CJ E&M 과 CJ 인터넷(넷마블)이 하나로 몸을 섞은 회사다. <다함께 차차차>를 비롯한 ‘다함께 (역시 떡이든 게임이든 함께 해야 재미난 법)’ 시리즈로 이런저런 표절 논란을 낳았지만, 진흙탕이 됐건 안 됐건 이 게임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모바일 게임판에서 굴러먹을 두둑한 밑천을 챙겼다.



한다면 하는 위메이드의 아심작 <윈드러너>

절치부심하던 위메이드는 결국 아심작 <윈드러너>를 선보였고, 이 게임은 단 12일 만에 1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는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로 벌어들인 수익만으로도 위메이드는 지난 4월 매출 순위 1, 2위를 다룰 만큼 목돈을 챙겼다. 무엇보다 모바일 게임에 주력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추진력을 더해줄 게임이 등장한다면야 금상첨화라 하겠지만,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된 <라인>에 출시한 <윈드러너>가 일 매출 10억 원 정도를 찍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니 급할 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비데 위에 앉아 똥 누는 것만큼이나 지금 위메이드의 마음은 편안함, 그 자체일 거다.

2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평점: A+

대표작: 윈드러너, 에브리타운

주목할 점: 모바일 게임 시장이 흥할 것을 알아본 대장의 혜안

한마디로: 그저 무식한 장비인 줄 알았더니, 문무를 겸비한 팔방미인 관우였구나

위메이드의 바뀐 수장이 “모바일 게임을 차세대 동력으로 삼겠노라”고 얘기하며 2012년 <지스타>의 메인 스폰서를 맡을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서 너희가 먹고 살 수 있겠어?”라는 의구심을 가진 이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이다. <애니팡>과 <드래곤 플라이트>가 카카오톡을 통해 대박을 치자, “카톡에 지분까지 투자한 위메이드는 뭐하고 있나?” 라고 묻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3 NHN 한게임 평점: B

대표작: 피쉬아일랜드, 우파루마운틴
주목할 점: 게이머의 강태공화, 이는 곧 게이머의 호갱화
한마디로: 모바일 '기'에서 NHN 한게임 '웅' 낫다

그동안 '망(亡)' 게임의 대명사라는 서러움을 딛고 살아야 했던 NHN 한게임의 홍보 담당자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거다. 이제 여러 기자들에게 "이제는 나를 잘나가는 모바일 게임업체라고 불러 달라"고 주문해도 괜찮겠지. 그만큼 NHN 한게임이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 잘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수많은 강태공들을 스마트폰 앞으로 불러들인 <피쉬 아일랜드>에 힘입은 바가 크다.

호갱 유저를 사로잡은 '강태공' 게임 <피쉬 아일랜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는 강태공을 진정한 호갱 게이머로 만드는 게임. 사람들이 환장하는 가차 (뽑기), 강화 시스템 등 적절한 돈질 요소를 지독하게 잘 버무려

놓았다(잡은 물고기를 채울 수족관도 사야 한다. 회 떠먹지도 못하는데...), 효자 게임 고스톱과 포커에서 '유저 간 아이템 거래=돈'이란 것을 학습한 회사답게 게임 내 재화를 유저끼리 현금 거래하게 유도하는 요소 역시 잘 안배했다. 사실 NHN 한게임은 <피쉬 아일랜드>만 건사해도 한동안 모바일 게임에서는 숨들릴 여유가 있다. 그러다 운 좋게 중박 정도 터질 게임 하나만 건진다면 온라인 업계에서 받은 수모를 뒤로 하고, 목을 기린마냥 뺨뺨하게 쳐들고 다니기 충분하다. 적어도 모바일 업계에서는 말이다.



4 컴투스 평점: C+

대표작: 히어로즈워, 타이니팜
주목할 점: 컴투스를 구할 구원투수 자리는 어느 게임이 차지할 것인가?
한마디로: 절대평가는 나쁘지 않지만 상대평가는?



모바일 게임 업체 중 가장 속이 타는 건 컴투스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는 건 잘 예측했고, <타이니팜>이라는 대박 게임도 적절히 등장해 모바일 업계의 황금기를 누릴 대비는 잘 해둔 셈이다. 여기에 자사만의 모바일 소셜 플랫폼 '컴투스 허브'도 글로벌하게 잘 꾸려 놓았으나, 뜬금없이 등장한 카카오톡 게임에 빅엿을 먹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발빠르게 카톡용 게임을 내놓긴 했지만 <타이니팜>만큼의 성공을 거둔 게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매출 역시 예년보다 늘었지만 다른 업체들이 너무 잘나가는 통에 오히려 기대 이하라는 평을 받았다.

후속작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원투수 먹히라

<타이니팜>에 이어 그나마 <히어로즈워>가 선전하고 있지만, 타사 주요작에 비하면 힘이 달린다. 게다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폭풍 성장을 기대하며 야심차게 공채까지 진행한 상황이라 더욱 조바심이 나는 상황. 하반기 매출을 크게 끌어올릴 대박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 내에 한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부지는 망해도 삼 년은 가는 법. 그동안 모바일 업계에서 진땀이 굵은 컴투스가 이대로 호락호락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는 드물 거다. 아, 물론 그렇다고 지금 컴투스가 풍족이 타지 않을 거란 얘긴 아니다. 오해하지 말기.



5 게임빌 평점: B+

대표작: 이사만루, 킹덤로얄
주목할 점: 지칠 줄 모르는 다양한 신작 게임의 출시
한마디로: 백세계 굴린 만큼, 백센(좋은) 결과가 나왔다.



게임빌은 자사 게임도 게임이지만, 타사의 게임을 활발하게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선두 업체로도 유명하다. 유저들이 게임빌의 자체 제작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 중 상당수가 타사 게임을 퍼블리싱한 것이라 얘기다(그만큼 게임 고르는 선구안이 좋고, 자사 게임의 비중이 높은 컴투스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회사의 규모는 컴투스보다 훨씬 작지만 그에 상응하는, 또는 뛰어넘는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효율은 더 높다는 평이다(물론 그만큼 직원들을 X나게 굴러먹는단 얘기도 들린다).

<마구마구>와 달리 돌직구로 승부하는 <이사만루>

최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은 야구 게임 <이사만루>다. 모바일 야구 게임이라는 이유로 단순함만을 추구한 다른 게임 업체와 달리 <이사만루>는 하일성의 드림처럼 "역으로 간다!"를 몸소 실천했다. 실제 야구와 최대한 흡사한 그래픽, 게임성을 품은 야구 게임을 지향했고, 이는 야구 마니아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역시 게임을 고르는 선구안만큼은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 밖에도 중국 시장을 겨냥한 RPG 게임 역시 좋은 평을 얻고 있어, 온라인 게임에서 넘어온 덩치 큰 기업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모바일 게임을 선도하는 업체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만큼 X나 힘들겠지?



춤추는 인디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

‘Sultan Of the Disco’의 악자가
SOD인 건 순전히 우연일까? BY 손연나

→ 확실히 취향을 타는 밴드다. 이들은 터번과 선글라스로 무장하고 무대에 올라 펑키 디스코를 연주하며 아스트랄한 댄스를 선보인다. 이들이 지향한다는 ‘아라비아 펑키 솔’은... 어떤 음악인지 감도 오지 않는다(과연 본인들은 일까 의심스럽다). * “지독한 쾌락으로 문드러진 디스코 디스코 나왔나잇(...)/ 색시섹시 애로비안 디스코 파티” 이처럼 기막힌 가사를 쓰고, 세련된 디스코를 가래떡처럼 짙게 신나게 뽑아내는 술탄 오브 더 디스코. MAXIM이 이들의 난리 블루스 합주 현장을 급습하고 왔으니, 얼마나 신이 나는지는 당신의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라!

*술탄의 1집 수록곡 ‘오리엔탈 디스코 특급’

밴드명이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니... 원래 디스코 음악을 하던 사람들도 아니잖나.

압둘라 나잠: (음악 장르보다) 밴드 이름부터 먼저 지었다.

J.J. 핫산: 이름 때문에 디스코를 하는 거다. ‘술탄 오브 더 록’ 했으면 록을 하고, ‘술탄 오브 더 일렉트로닉’이었으면 일렉트로닉을 했겠지.

압둘라 나잠: 이름에서 이미 장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장르에 충실한 것이 마땅한 도리다. 한국에서 이 정도로 충실하게 디스코를 하는 밴드는 또 없을걸?

음악을 놀이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압둘라 나잠: 그건 아니다. 음악을 놀이처럼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기는 하지만 음악을 쉽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다. 다들 진지하다.

카림 사르르: 응? 나는 아닌데?

압둘라 나잠: 응? 너는 안 진지해? 다들 진지하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모두: (...)

압둘라 나잠: ...열심히는 하고 있다.

데뷔하고 6년 만에 정규 앨범이 나왔다.

압둘라 나잠: 앨범을 녹음하는 데만 햇수로 4년이



걸렸다. 계획대로라면 2011년 초에 정규 음반이 나왔어야 하는데, 우리 모두 다른 일도 하고 다른 밴드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쓰다 보니 이렇게 됐다. 자본이 없으니 시간을 투자하는 수밖에.

앨범을 내기 위해 투잡을 뛰었다는 건가?

압둘라 나잠: 낮에는 음악 강사, 밤에는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먹고살아야 하니깐. 잠깐, 우리 그런 이미지 없지? 부자고 그런 거.

J.J. 핫산: 없어 그런 거. 이 옷도 의류 수거함에서 주워 온 거다.

간지하드: 거지다. 개거지. 인디 뮤지션에게 온정을...



압둘라 나잠(보컬, 댄스)

- 불나방스타쓰세지클럽(이하 불쏘쿨) 전 프로듀서
- 장기하와 얼굴들 앨범 〈싸구려 커피〉 공동 프로듀서
- 현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리더

“인디 밴드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



카림 사르르(베이스)

- 술탄의 얼굴

“멤버들을 봐라. 리더가 엄용수(압둘라 나잠), 기타가 김홍국(오마르 흥), 일진 따까리(J.J. 핫산)까지. 그나마 내가 제일 멀쩡해서 얼굴을 맡는 거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간지하드(드럼)

- 불쏘쿨 전 멤버

“처음 회사에 왔을 땐 나까지 고졸이 2명뿐이었다. ‘서울대 카르텔’이 너무 심했다. 서울대 졸업했으면 삼성 같은 데 들어가서 삼성폰, 삼복 같은 걸 만들어야지 왜 인디 밴드를 하고 있나. 어쨌든 고졸 독자 여러분, 열심히 하면 나처럼 서울대생이랑 같이 놀 수 있다. 파이팅!”



오마르 흥(기타)

- 술탄의 헤어스타일
- 머리에 지랄해놓은 멤버가 있으면 어쩐지 인디스러운 것 같아서 영입된 멤버. 하지만 지금은 ‘스포츠퍼머’.
- 1950년생인 스티비 원더와 무척 닮았지만, 1987년생이다. “괜찮아. 나 언젠가 화춘하겠지.”



J.J. 핫산 (입식 및 좌식 댄스, 코러스)

- 술탄의 헛바닥
- 공연 중간에 각종 추임새와 이빨 털기로 압둘라 나잠이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제공한다.
- J.J.가 ‘저질’ 혹은 ‘정신 장애’의 약자일 거라는 의견이 팽배하나, 본인은 ‘점장’의 약자라고 주장.



고(故) 무스타파 더거 (‘브로콜리너마저’의 덕원과 동일 인물)

-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며칠 전에도 홍대에서 목격됐다.
- 술탄 멤버들은 더거가 개과천생해 열심히 한다면 다시 받아주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 탄생에 대한 두 가지 가설

1. 아이돌 그룹 연습생이던 '나잠 수'는 우연히 중동의 디스코 제왕 무하마드 B. 마니를 만나 이리비아 음악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 '압둘라 나잠'으로 이름까지 개명한다. 그후 뉴욕 할렘에서 실용음악과 드럼 레슨으로 이름을 날리던 '간지하드'와 씨스타19를 사랑하는 어린 천재 베이스 주자 '카림 시르르', 중동의 석유 재벌로 알려진 'J.J. 핫산', 그리고 은퇴 후 자메이카 해변에 칩거 중이던 노장 기타리스트 '오마르 홍'을 차례로 영입해 지금의 '술탄 오브 더 디스코'를 탄생시켰다.

2. 그냥 지인들끼리 술 마시다가 결성했다. 디어 스트레이츠의 명곡 '술탄 오브 스윙(Sultan of Swing)'을 듣다가 "인디 음악계에도 립싱크 댄스 그룹이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 만든 것이 바로 '술탄 오브 더 디스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건만, 하다 보니 어쩔지 본격적인 음악이 나와버렸다.



소속 회사인 봉가봉가 레코드의 모토도 '지속 가능한 띠따라 짤'이다.

J.J. 핫산: 그건 모르겠고, 오늘도 퇴근하고 왔다. 어제 회사 연봉 협상을 했는데, 내년엔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

압둘라 나잠: 내년엔 좀 더 잘 챙겨주세요, 온정으로...

간지하드: 이왕 온정을 베풀 거면 돈으로 인디 밴드의 멸종을 막자. 인디 밴드는 두루미 같은 거다. 언제 멸종될지 모른다.

최근 받아본 금전적 온정이 있나?

J.J. 핫산: 금전적 온정은 아니고, 배우 류승룡 씨가 술탄 음반을 '남자라면 꼭 들어봐야 할 앨범'으로 꼽았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승룡 형님 기획사라 친분이 있다. 승룡 형님이 우리 공연하는 걸 보시고 "저거 미친놈이네"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온정을 베푸신 거다.

공연장에 남성 팬이 굉장히 많더라. 남성 5인조 밴드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

간지하드: 안 좋다.

J.J. 핫산: 온정을 베푸는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

남성 팬은 간혹 한 번씩 “형 사랑해요!!!”라고 소리 지른다. 특히 간지하드가 어린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다. 중딩들이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카톡으로 친구 하자고 한다.

간지하드: “내 번호 어떻게 알아느냐.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답장하니 더는 연락 안 하더라.

쌓인 게 많아 보인다.

간지하드: CD를 사고, 우리 음악을 들어주는 남성 팬은 정말 고맙다.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형 좋아해요.” 이러면 진짜로 기분 더럽다.

J.J. 핫산: 간지한테 “형, 저한테 욕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다.

간지하드: 내가 김구라도 아니고 그게 뭐냐. 적극적인 남성 팬 말고 적극적인 여성 팬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여자들이 내 연락처 알아내서 “오빠 너무

좋아요” 하면 나도 “나...나도 좋아...” 할 수 있잖아.

공연장 물이 별로란 뜻인가?

압둘라 나잠: 어쨌든 우리 공연장에 오면 여성 팬이 더 많다. 남성 팬들이, 우리 공연장에 오면 여성 팬들을 구경할 수 있다. 심지어 물도 좋다.

간지하드: 지난번 공연에서는 관객끼리 부비부비하고 가슴도 까고 난리도 아니었다. 복도에서 막 소리 나고, 천장도 흔들렸다고 노래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기자리지면서 지들끼리 잘 본다.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

J.J. 핫산: 화장실엔 왜 그렇게들 쌍쌍이 가느냐고! 🍑

* 이들의 공연은 6월 9일 남이섬에서 열리는 ‘레인보우 페스티벌’에서 볼 수 있다.



데뷔 6년 만에 발매한 그들의 정규 1집 : The Golden Age

밴드계의 ‘소방차’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황금시대를 재현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골든 에이지’로 지었다. 비주얼은 1980년대 B급 영화를, 사운드는 1960, 70년대 디스코를 표방했는데 밴드 음악으로 재현한 코리안 그루브가 절로 격한 어깨춤을 유발한다.



SAMSUNG Smart Camera NX300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전설의 짱이 났었다. No.2
한테 털린 것도 아니다. 상대는 평소에 전혀 신경쓰지 않았던
범생이. 그 범생이한테 전교생이 다 보는 앞에서 피떡이 되도록
맞고 기절한 거다. 이제 학교 어떻게 다니지?

MODEL 김희성 PHOTOGRAPH YuD

스타일

GEAR OF
THE MONTH



삼성 에디터
착취 영상:
모델 하라
글 쓰라



이걸 삼성이
만들었다고?

NX300

미러리스의 절대 강자 Sony NEX가 다른 브랜드도 아니고 만년 하위 그룹의 삼성에게 딱심신을 당하고 왕좌를 내준 게 딱 그 모양새다. 삼성의 핵폭탄 NX300은 출시 직후인 지난 한 달 동안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뿐 아니라 DSLR과의 판매량 통합차트에서도 1위에 등극했다. 분명 이제까지 삼성은 카메라판의 조연이었다. 삼성 카메라는 '뭘 질 모르거나, 전자제품은 삼성, 엘지만 있는 줄 아는 어르신들이나 쓰는 이미지였으니까. 초기 NX는 이름부터 소니 NEX의 아류작 정도로 치부되었지만 공룡 삼성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별 수 없나보다. 마치 아이폰의 아류작으로 치부되던 삼성 갤럭시가 결국엔 애플을 역전한 것처럼 말이다.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디자인은 만점짜리다. 핀지를 거는 리뷰에서도 디자인만큼은 인정하고 넘어간다. 사진 속의 브라운 색상은 물량이 달려서 꽤나 기다려야만 받을 수 있을 정도다. 디자인이 좋으면 여자의 지갑이 열린다. 지난 번 카메라 리뷰 특집에서도 언급했듯 여자라는 동물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보다 그 카메라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NX300을 본 여성들 모두 "어머, 이걸 사야해"를 외쳐댔다. 이 복고스런 외형 안에는 온갖 스마트한 기술이 팍팍 들어차있다. 에디터에게 불가항력의 뽀뿌가 왔다. 곧 지르고 리뷰 들어갈테니 기다려.

30mm F2.0 팬케이크 렌즈

NX의 존재 이유, 광학의 선물, 삼성의 축복, 여친 렌즈, 세계 단 하나의 렌즈를 택하려면 망설임 없이 이 렌즈를 택하겠습니다.

'NX 30mm'를 검색하면 이런 격한 반응을 보게 된다. 모두 삼성 렌즈 라인업 중 딱 하나의 제품에 쏟아진 찬사다. 이 렌즈를 써보려고 NX를 샀다는 이도 많다. 비주류 브랜드의 평범한 단렌즈 하나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 NX 30mm f2.0에 대한 리뷰는 수많은 블로그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널려 있으니 생략하겠다. 어차피 렌즈라는 물건을 활자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미러리스 카메라 전쟁에서 삼성 같은 번두리 브랜드가 판세를 뒤집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똑딱이나 하이엔드 카메라야 제품 자체만 우수하면 장생이다. 하지만 렌즈를 같이 끼우는 미러리스 카메라는 보디의 성능이 아무리 우수해도, 주류 브랜드의 렌즈를 이미 보유한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 DSLR 시장에서 누구도 Canon의 아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며, 후발 주자인 Sony 카메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Carl Zeiss라는 명품 렌즈를 인수하여 Sony 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NX300의 쿠데타가 가능했던 건 삼성이 오래 전부터 렌즈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해왔기 때문이다. 아직 보급율이 낮긴 하지만 삼성은 이미 어디 내놔도 풀리지 않을 렌즈 라인업을 구축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불안함 없이 NX300을 지를 수 있는 거다.

NX300의 성공은 삼성 렌즈의 보급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거다. 렌즈 보급율 상승은 NX300 이후 후속작의 연타석 홈런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삼성은 Canon의 DSLR 전하마저 무너뜨릴 고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거다. 🍀

NX 300 보다

66 만 원

인터넷 최저가 기준

SPEC CHECK

디스플레이: 84mm AMOLED(해상도 800×480화소)
마운트: 삼성 NX 마운트
초점: 위상차 AF, 콘트라스트 AF
카메라 센서: 23.5×15.7mm 2030만 화소 CMOS(유효화소 기준)
사진 해상도: 최고 5472×3648화소
셔터 속도: 1/6000초 ~ 30초
무게: 284g (배터리, 메모리 카드 제외)

30mm F2.0 팬케이크 렌즈

30 만 원

인터넷 최저가 기준

그거 왜 샀어? #8

관심도 없는 신제품 홍보자로 बे끼기 리뷰, 우린 그런 거 안 해. 제일 정확한 건 자기 돈 내고 산 사람의 품평이지. 사람은 돈을 내면 뼈뺏해지거든. BY 유승민 PHOTOGRAPH YuD MODEL 김희성

Inote F5-152BT
다나와 최저가: 16,130 원



NEXT-8600 CR Reader
가격: 8,000 원

Logitech M525 Wireless 2.4GHz Mouse
인내심 없이 회사원 사무용품점에서 샀더니
에디터가 산 가격: 38,000원 / 다나와 최저가: 31,000 원

Logitech M525 무선 2.4GHz 마우스

선배는 마우스 또 샀어요?

또라니, 나도 저 INOTE인지 뭔지 마우스인줄 알고 샀는데, 애네가 마우스 모양의 쓰레기를 팔았더라고. PC 한 번 포맷할 때마다 블루투스를 못 잡아갔고 매번 연결시키느라 하루를 꼬박 날렸어. 다나와에서 16,300원짜리 찾아서 즉시할인 170원 받고, 좋다고 16,130원에 샀는데, 마우스에 인내심 단련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줄은 솔직히 몰랐지. 제조사에서 시키는 대로 뭐 드라이버 깔고 설정 바꾸고 깃다 쳐고 난리를 쳐도 안 돼. 나 그때 스트레스 후유증으로 지금도 톱 쌀 때 사리 나오잖아.

그래도 16,000원이면 싸게 사서 잘 쓰셨죠 뭐.

똥질래? 싸긴... 배터리 조르는 또 어떻게 AAA 2발 넣고 쓰면 K-1 소총 탄피

튀어나가듯 해. 경영지원팀 선영씨한테 내려가서 마우스 배터리 나갔다 소리를 거의 2주에 한 번 꼴로 하니까, 나중엔 내가 배터리 뺏창치는 줄 알고 선영씨가 좀 쌀쌀하게 대답하더라고. 아 신발 진짜, 선영씨 완전 예쁜데... 나 그런 새끼 아니라고 말할 뻔 했다. 그 길로 요 알 팔파문구 가서 바로 이거 사왔잖아. 로지텍역~

그건 배터리 얼마나 오래가요?

한 번 넣으면 3년 근데 이거 진짜까? 3년이면 니가 시집갈 때 이 로지텍 마우스를 혼수로 해 가면 애 셋을 까지르고 닳째를 잉태한 동안에도 마우스가 꺼지지 않고 살아있단 얘가지.

그게 뭐예요... 누가 혼수로 마우스를 해 가요?

참, 그러고 보니 이거 사고 배터리 받으러 경영지원팀에 내려간 적이 없네. 나의 선영씨가 웬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며 요즘은 내가 왜 안 나타나는지, 여자가 생긴 건지, 엄청 궁금할지도 모르겠다. 본의 아니게 밀당이 돼버렸네. 최하하!

NEXT-8600CR 내장형 카드리더기

편집장님은 이거 왜 사셨어요?

난 사진도 잘 찍고 포토샵도 잘 하니카 데이터를 옮길 일이 많지. 내가 또 포토그래퍼의 자식이잖나. 그런데 외장 하드든, 리더기든 PC 본체 앞면 USB에 꽂으면 인식도 잘 안 되고 되게 불안정해. 그래서 매번 책상 밑에 먼지구멍이로 기어 들어가서 PC 뒤편에 꽂을라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USB 리더기는 너무 자주 고장나. 그러다 메모리 카드까지 손상되면 촬영 데이터 날려먹는 거지. 그런데 이걸 달면 데이터 케이블이랑 전원 케이블을 메인보드에 직접 연결하는 거니까 PC 뒤편 USB처럼 안정적이지야.

아하, PC 앞면에 뚫려있는 2.5인치 베이그 이리라고 있는 거군요! 전 이게 왜 인나 했어요. 그럼 요즘 나오는 노트북처럼 SD카드를 데스크톱에도 직접 꽂을 수 있겠네요?

SD카드뿐이나, 여기 자세히 봐봐. 없는 구멍이 없지? 외장 하드도 내장처럼 쓸 수 있는 eSATA 구멍, CF카드 넣는 구멍, 존슨이 작은 Micro SD 넣는 구멍, 개나 소나 다 넣는 홍익인간 USB 2.0 구멍까지... 구멍이 무려 일곱 개. 이 중에 내가 쓰는 구멍은 4개인데, 안 쓰는 구멍은 웬지 쓸쓸해 보여서 웬지 저 구멍의 주인을 찾아주고 싶단니까. MMC? XD? T-Flash? MS? 어떤 녀석들일까, 구멍에 이름만 써놓고 떠난 놈들.

USB가 2.0인 건 좀 아쉽네요. 요새 3.0 쓰다보니까 2.0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던데...

마, 너 8천 원짜리에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그리고 그거 얼마나 차이난다고, 좀 기다리면 되지. 구멍에 들어가서 빨리 쓰고 나오는데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야 이 녀석아. 넌 니 남자친구가 6.0Gb/s면 좋겠냐? 사랑하겠어?

자꾸 구멍이라고 하시니까 이상해요. 이런 건 보통 슬롯(Slot)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국문과 나온 년이 슬롯은... 잘못 부르면 Slot이 되잖아. 구멍이 일곱 개인 Slot이 어딴 세상에. 세븐홀이여 뭐여, '구멍'이란 우리말을 두고 말야. 너 그래 갖고 세종대왕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냐? "MAXIM 에디터는 국어를 사랑한다."

3번 복창 실시.



STARBUCKS Stainless Cold Cup

이건 스테인리스라서 플라스틱 콜드 컵에 비해 보냉을 잘해요. 포인트인 스테인리스 빨대는 일반 빨대보다 전도율이 좋아 찬 걸 마시기도 전에 입부터 시원해져요. 신기하죠? 몸체가 2중으로 돼 있어서 찬 음료를 넣어도 표면에 이슬이 안 맺히죠.

난 멀리서 보고 무슨 든기인 줄 알고 무서웠어.

스밍의 간지라고 해주죠. 이젠 별다방 로고가 컬러가 아닌 음각으로 박혀있어 간지의 화룡점정을 찍거든요. 일반 스타벅스 콜드컵에 비해 가격은 두 배지만, 커피 살 때 일회용 컵 대신 쓸 수 있어 할인도 되고, 떨어뜨려도 깨질 일이 없어서 아주 오래 쓸 수 있어요.

정말? 한 번 떨어뜨려 봐도 돼?

... 어디 한번 그렇게 해 보시죠.

농담이야. 나 TV에서 **비슷한 거 본 적 있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야?**

저... 저기요;;



KOSS KSC-75 클립형 이어폰

웅재씨, 이거 좀 저렴해 보이던데 혹시 사은품으로 주는 백폰 아냐?

다시 아헤갤(이어폰/헤드폰 갤러리)에서 이 제품을 추천하길래 사봤죠. 저도 외모만 보고는 정말 이거 맞나 했음. 귀에 제대로 낀 것 같지도 않은 착용감에 육두문자를 시부리며 리시버를 낚는 순간... 눈앞에 우드스탁에서 이빨로 기타를 연주하는 지미 헨드릭스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웬만한 10만 원대 헤드폰 다 처바를 수준이죠. 비닐이 아닌 티타늄 진동판을 사용했거든요. 오픈형 헤드폰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방감과 웅장함이 귀를 때리죠. 그렇다고 고음이 죽는 것도 아니에요. 청량하고 맑은 스네어와 하이햇 소리를 들으면 감탄이 절로 나옵!

정말 좋은가 보네? 알만데?

23,000원 싸죠? 돈 없는데 10만 원대 하이엔드 이어폰은 대체 어떤 소리를 낼까 궁금한 사람에게 딱이죠. 이거 쓰다가 업그레이드한답시고 5~6만 원대의 어설른 헤드폰을 사보면 아놈의 대단함을 느낄 거예요.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주로 집 안에서 들으며, 디자인 따위 중요치 않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STARBUCKS Stainless Cold Cup

스타벅스에서 전세계에 한정판으로 출시한 슈퍼 레어 아이템 국내 구매에 실패하여 일본 한정판 출시때 해외 공수

3,600 ¥ + 1,100 ¥
(배송비)

Koss KSC75 이어폰
다나와 최저가: 15,560 원
에디터 조용재 판매가: 23,000원
15,560원짜리 쓰다가 선배한테 중고를 23,000원에 팔려고 함.
날감도같은 새끼



황진이 아님

나한테 그거 팔려는 잡상인 같아. 난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데...

안 사도 되니까 한 번 들어보고 가요. 왜 이 녀석을 '저음괴물'이라고 하는지!

♪♪♪.....오오오~

혼자남을 위한 7가지 가전제품

 에디터도 혼자 살아봐서 잘 안다. 혼자 사는 남자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안 그래도 홀몸이라 서러운 당신의 자취 생활을 업그레이드 해줄 싱글 가전 7개를 고심해서 골라봤다. BY 김희성



모뉴엘 클링클링 MR6500

혼자 사는데 머리카락은 어찌나 많이 떨어지는데 바닥 먼지는 또 왜 이리 자주 쌓이는데 로봇청소기는 독신남에게 정말 필요한 가전제품이다. 하지만 어쩐지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될 것 같지 않은 노파심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보다는 로망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모뉴엘의 '클링클링'은 이런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킨 로봇청소기다. 자동 청소, 집중 청소, 구석 청소, 예약 청소 모드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중 '새도우 모드'는 그야말로 혁명이다! 제품 상단에 장착된 밝기 감지 센서가 어두운 바닥 공간을 탐지해 침대 밑이나 소파 아래 같이 청소할 엄두가 안 나는 공간을 집중적으로 청소해 주거든. 탈부착이 가능한 초극세사 걸레도 옵션으로 구매하면 물걸레질까지도 가능하다. 디자인도 훌륭하다. 슬림하고 세련된 색감의 로봇청소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잘 나가는 독신 남성이 되는 것 같은 기분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질 거다. 아예, 이 정도면 웬만한 우렁 각시보다 낫지 않나?

가격 298,000원/ 문의 모뉴엘(1588-8426)

싱글가전
시선 영상





Editor's Tip

다림질 잡하는 팁

"셔츠는 완전히 마르기 직전, 살짝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리면 주름이 잘 펴져요. 그리고 다림질을 하기 전 향수를 살짝 탄 물을 분무기로 뿌려주면 하루종일 은은한 향이 날거예요. 여자들은 그런 부분에 반한답니다."



필립스 스팀 앤 고 GC310

아침마다 옷장에서 구겨진 옷을 꺼낼 때마다 다리미의 필요성을 느꼈을 거다. 하지만 다림질은 왠지 번거롭고 귀찮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다리미의 구입을 다음 기회로 미뤄둔 혼자남들이 많을 거다.

필립스 전자의 '스팀 앤 고'는 국내에서 가장 작은 스팀다리미다. 양중맞은 사이즈의 물통에 물을 채우고 플러그만 꽂으면 45초 만에 스팀이 분사되는 초소형이다. 핸디형으로 되어 있어 옷걸이에 옷을 걸어놓은 채로 속속 문지르기만 해도 주름이 짝 펴지고, 무게가 가벼워서 여행이나 출장갈 때 가져가기에도 딱이다. 다리미판 따윈 애초에 살 필요가 없는 거다. 혼자 사는 남자라는 티가 가장 많이 날 때는 구겨진 옷을 입고 다닐 때다.

가격 90,000원/ 문의 필립스(02-709-1200)



어음~ 조웃..타!

카이젤 블랙엔화이트 가습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구멍이 칼칼하거나 피부가 사막 같다면 가습기부터 하나 질러라. 방 안의 건조한 공기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얼마 못 가 감기에 걸릴 테니까.

카이젤의 블랙엔화이트 가습기는 생수병에 꽂고 USB를 연결하면 어디서든 가습이 되는 초간편한 아이디어 가습기다. 비싼 돈 들여 무겁고 큰 가습기를 사봤자 좁은 원룸에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이사갈 때 짐만 된다. 블랙엔화이트는 한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양중맞은 사이즈라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는 어디든 쉽게 옮길 수 있다. 에디터가 이 가습기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찬 수증기를 내뿜는 초음파 가습방식을 채택해 '미스트'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울 때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으면 시원하니 냉장고 속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기분일 거다. 진짜 편리한 건, 생수병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물탱크를 살균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역시 워니 워니 해도 혼자남에겐 편하고 거추장스럽지 않은 가전제품이 최고대!

가격 34,800원

문의 카이젤(www.kaisershop.co.kr)



쿠진아트 핫 에어 팝콘 메이커 CPM-100WKR

혼자 살다보면 귀차니즘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귀신같이 어질러놓은 방에서 먹고 자고를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마구 허세를 부리고 싶어질 때도 있다. 집에서 영화를 볼 때가 특히 그렇다. 영화 감상을 위해 자리와 조명을 최적화 시켜놨는데 이런, 팝콘이 없다야!!! 그러면 불현듯 서러워지는 거다. 미국 프리미엄 주방가전 쿠진아트에서 출시한 핫 에어 팝콘메이커는 기계 입구에 옥수수콩을 넣고 ON 버튼만 누르면 금세 팝콘을 만들어 준다. 신기하게도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팝콘을 만들기 때문에 기름이나 버터를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전혀 없다. 살짝 걱정도 당연히 없으니 폭풍 흡입도 만사 OK다. '가난한 자취생에게 팝콘 기계가 웬 사치품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살다보면 가끔 간지를 부리고 싶게 마련이다. 당신의 집을 방문한 그녀에게 "이 팝콘으로 말할 것 같으면..."하고 빼꾸기 날리기에다 안성맞춤일 테니 이거 한 번 질러봐?
가격 85,000원/ 문의 (주)엠벨(02-2631-9390)



모뉴엘 마이 플라워

취미가 있는 남자는 매력적으로 보인다. 혼자 있을 때 TV나 컴퓨터로 시간을 보내는 남자의 집보다는 귀여운 애완동물이 있거나 신기한 오락거리가 있는 남자의 집이 더 가보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이다. 식물을 키우는 남자의 집도 마찬가지. 집에 식물이 있다면, 식물에게 물 줄 때를 알려주는 식물관리기 '마이 플라워'를 화분에 꽂아보라. 토양의 수분량을 수시로 체크해 물이 필요한 타이밍에 LED 램프의 불을 깜빡거리주거든. 바빠서 물주는 걸 잊기 쉬운 싱글남들의 화분 관리를 도와주는 비서 같은 거지. 깜빡이는 LED가 마치 식물이 "물 주세요"라고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져 식물을 더 애지중지하게 될 거다. 마이 플라워의 외관은 꼭 식물처럼 생겨서 인테리어용으로 좋다. 당신 집에 놀러온 그녀는 식물관리기를 보며 당신을 꽤 다정하고 센스있는 남자라고 생각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 "오빠, 저도 물 먹고 싶어요!"

가격 미정/ 문의 모뉴엘(www.moneual.co.kr)

오빠, 난 달달한 바닐라라떼를!



치보 카피시모 듀오

당신에게 싱글 라이프에 대한 로망이 있듯 우리에게도 혼자 사는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다. 그 수많은 로망 중에서도 여자들을 가장 설레게 하는 건 역시 '커피 내려주는 남자'다. 반갑게도 혼자 사용하기에는 덩치도 크고 가격도 비쌌던 캡슐커피머신이 더 작아지고 저렴해졌다. 그 중 독일 명품 캡슐커피 '치보 카피시모 듀오'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캡슐머신인데 버튼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 각각 에스프레소와 카페 크레마가 추출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취향에 따라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총 다섯 가지 색깔이 있는데 디자인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빠져 부엌에 놓으면 제법 있어 보일 거다. "자기가,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 잔 하고 갈래?"

가격 159,000원
문의 치보 카피시모(1577-7026)



ASSISTANT 김세형
COOPERATION 모뉴엘(1598-8426), 베이크리에이티브(031-844-5978), 엠벨(02-2631-8390) 카이젤(www.kaisershop.co.kr), 치보 카피시모(1577-7026), 필립스(02-709-1200)

꼬꼬계란찜기

살면서 간단해 보이는 데 의외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있다. 라면 물 맞추기, 샤워 물 온도 맞추기, 계란 삶기가 그런 것들이다. 계란을 삶을 때 반숙과 완숙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잘 안 돼 속상했다면 꼬꼬계란찜기를 한 번 써봐라. 왼쪽 표시선까지 물을 붓고 계란을 받침대 위에 올린 후 뚜껑을 닫고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된다. 계란 2개를 넣었을 경우 약 9~10분, 4개일 경우 약 12~13분이면 완숙이 되는데 반숙을 원한다면 1~2분 정도 시간을 단축시키기만 하면 된다. 계란만 삶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옥수수, 만두, 담삼 등 찜 수 있는 건 다 여기서 넣고 조리하면 된다. 이걸 정말 혁명이다!

가격 16,500원
문의 베이크리에이티브(031-844-5978)



MAXIM 뽐뿌질

아이언맨 슈트는 어디서 파나요?!

필립스 센스타치3D 아이언맨 면도기 한정판 출시

필립스 전자에서 센스타치3D 아이언맨 면도기가 출시됐다. 아이언맨 면도기는 필립스전자의 최고급 라인인 센스타치(SensoTouch)3D의 하이엔드 모델인 RQ1280과 RQ1260으로 각각 10대씩 총 20대만 제작됐다. 놀라운 점은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만 한정 출시되었다는 사실! 이번 모델은 아이언맨의 디자인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특히 면도기 본체에 보석을 박아서 아이언맨의 눈과 아크 원자로를 표현하고 아이언맨의 형태를 음각과 양각으로 표현해 입체감을 더했다. 아이언맨 슈트 대신 이 녀석으로 대리만족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주)필립스전자(www.philips.co.kr)



로지텍 키보드로 아이패드 미니를 편리하게!

로지텍에서 아이패드 미니에 최적화된 키보드인 울트라 썬 키보드 미니 제품을 출시했다. 울트라 썬 키보드 미니는 자주 사용하는 복사하기, 붙여 넣기 기능의 단축키가 달려있어 편리함을 더했다. 또 키보드 커버를 열면 아이패드 미니가 자동으로 작동되고, 닫으면 대기 모드로 전환되는 똑똑한 기능을 갖췄다. 게다가 가볍지만 강력한 성능의 자석을 부착해 아이패드 미니가 쉽게 빠지지 않아 안전하다. 키보드를 쓰지 않을 때는 접어서 핸드 프리 스탠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로지텍코리아(www.logitech.co.kr)

삼성전자, 세계 최초 에볼루션 키트 본격 출시

TV 뒤에 꽂기만 하면 2012년형 스마트 TV를 최신형 성능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제품이 출시되었다. 삼성전자에서 최초로 출시한 에볼루션 키트가 바로 그것. TV의 핵심 기능을 최신 성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에볼루션 키트(모델명 SEK-1000) 하나면 충분하다. 에볼루션 기능을 지원하는 삼성 스마트TV 뒷면에 키트를 꽂으면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등 하드웨어 성능과 소프트웨어 성능까지 최신 스마트 TV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 자신의 스마트 TV를 더욱 똑똑하게 진화시키고 싶다면 에볼루션 키트를 주목해보자.

삼성전자(www.samsung.com)



캐논, 파워샷 N 스페셜 패키지 판매 개시

네모 모양 카메라로 이미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캐논 파워샷 N이 스페셜 패키지를 판매한다. 파워샷 N은 기존 콤팩트 카메라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콘셉트의 콤팩트 카메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패키지는 파워샷 N, 파워샷 N 전용 자켓, 스트랩, 8G 메모리 카드, LCD 보호필름 등으로 뽐뽐하게 구성되어 있다. 제품과 액세서리는 파워샷 N만을 위해 제작된 스페셜 패키지 박스에 담아 판매되어 선물하기도 좋다. 캐논 파워샷 N 스페셜 패키지는 가까운 직영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www.canon-ci.co.kr)



터치 기능을 추가한 와콤 액정 태블릿 Cintiq 22HD

세계적인 태블릿 전문 기업 와콤에서 터치 기능을 포함한 신테크(Cintiq) 22HD 터치 액정 태블릿을 출시한다. 이 제품은 기존의 펜 기술에 멀티 터치 기능을 결합해 더욱 자연스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 멀티 터치 기능은 캔버스 회전, 이미지 줌, 작업을 이동을 위한 제스처를 지원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21.5인치 풀 HD디스플레이와 회전 가능한 스탠드로 작업을 편안하게 하도록 제작되었다. 전문가 수준의 태블릿 기능으로 완성도 높은 창작물을 생산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와콤(www.wacom.com)

동급최강 성능의 4세대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마하2 AIR

아이나비에서 4세대 내비게이션을 마하2 AIR 모델을 출시했다. 아이나비 마하2 AIR는 전 모델보다 2배 더 빨라져 더욱 빠르고 정확한 위치 전달이 가능하다. 또 후방 카메라와 블랙박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편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다. 아이나비 마하2 AIR의 가장 독특한 점은 실제 하늘에서 촬영한 위성지도도를 구현하여 마치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운전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는 것. 마하2 AIR 모델을 장착하면 내비게이션 보는 재미로 키크거리면서 운전하겠는 걸?

아이나비(www.inavi.com)



Motor

CAR OF THE MONTH



i3 Concept Coupe

先放必勝 BMW i3 Coming Soon

 f(x)의 설리가 말했지. "일~렉트릭 쇼크"
By 유승민

자음신
강림 영상



전기차의 역습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여러 해 전 잠깐 전기차 불이 인 적이 있다. 생소한 이름의 중소 브랜드 전기차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실제로 대리점도 열고 전기차를 전시해놓고 팔기도 했다. 지인 중에도 전기차 구매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가 몇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도로교통법이 탄지를 걸면서 전기차 붐 1라운드는 무기력하게 꺼져버리고 말았다. 서울 시내에서 한강 다리도 못 건너게 해놨으니 누가 사겠냐 말이다. 아직 기름차의 사업 비중이 절대적인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신생 전기차 업체를 고사시킨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었다.

하지만 난생처음 듣는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샀다가 회사가 없어져서 AS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더 컸기 때문에 주변인 중에도 실제로 전기차를 지른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 후로 몇 년이 흐르는 동안 글로벌 자동차 기업 모두 내부적으로는 새 시대의 판도를 가를 전기차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차의 시대적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던 지난 5월 14일, BMW코리아는 환경부와 함께한 컨퍼런스에서 전기차 i3 출시의 1년 카운트다운을 선언했다. 혹시 아직도 전기차 하면 RC카처럼 만만해 보이냐?

발로 차면 옆으로 넘어지고, 손으로 붙들고 있으면 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치어도 못 죽일 것처럼 보이냐? 웬지 당신의 조루 갠노트처럼 반나절이면 박대리가 조기퇴근할 것 같지? 이미 공개된 BMW i3 콘셉트카는 만땅 충전으로 상당한 장거리를 뒀 수 있을 뿐 아니라 170마력의 힘을 발휘한다 (신형 소나타가 170마력이다). 게다가 놀라지 마라. 제로백이 8초도 안 걸린다. 같은 BMW 라인업의 1시리즈(제로백 7.8초)가 이 전기차랑 드래그레이스를 붙으면 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어이 나라님들, 이래도 전기차를 한강 다리 못 건너게 할 셈이야? 

Motor

This is My Car

MAXIM의 오너드라이버 독자와 MISS MAXIM이 함께하는 초특급 마이카 회보 촬영 프로젝트! 수많은 독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애마를 공개하며 응모 열전을 벌였다.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서경지역 싼타페 동호회인 SANTA FE DM LOVE 소속 독자들이다.
BY 유승민 MODEL 2012 MISS MAXIM TOP4 최현아 김수아 PHOTOGRAPH YuD



TUNNING TIP

레드햇츠 보호필름

“보호의 목적보단 멋으로 많이들 해. 필름에 칼라를 입힐 수 있거든. 차도 선글라스를 쓰니 긴지가 나지? 그레이나 브라운을 추천해. 빨노파? 니가 그 색깔 선글라스를 끼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 가격 3만 원대



TUNNING TIP

현대모비스 신타페 전용 사이드스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장착했다 SUV는 발판을 달면 한걸 오르내리기가 편하다. 그리고 여기처럼 비포장길에선 아래가 긁히기 쉬운데 사이드스텝이 방패막이 기능도 한다. 신타페에 장착할 수 있는 사이드스텝 중에 싸게도 있지만 현대 모비스에서 나온 디자인이 제일 예쁘다. 순정 튜닝! 비용 20만 원대

TUNNING TIP

현대모비스 신타페 전용 19인치 스포터 휠

튜닝의 기본이자, 비용 대비 효과가 제일 큰 게 바로 휠타이어 튜닝이지. 튜닝 초보라면 휠타이어 부터 시작해. 차는 바퀴가 달라졌을 때 가장 티가 많이 나거든. 차를 차에 달려 나오는 18인치 휠은 튜닝샵에서 매입해주니까 비용 부담도 별로 없어. 4개 가격 130만 원대

샌들 슈즈월드

Motor / This is My Car

Hyundai 2013 SantaFe

TUNNING TIP

캘리퍼 도색

캘리퍼는 휠 안쪽에 보이는 CD 모양의 디스크를 집어주는 제동장치야. 차속에 보여도 캘리퍼를 도색하는 거만으로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지. 난 노란색으로 했는데 너를 랜덤치? 보통은 빨간색으로 많이들 하는데 너무 흔해서 싫심해. 그냥 립카 뿌리면 돼. 그리고 캘리퍼 도색제도 따로 있어. 따구려는 벗겨치거든. 4개 가격 130만 원대

이더웨이 르레
부츠 슈즈할

TUNNING TIP

LED 데이라이트

“말 그대로 낮에도 켜져있는 라이트야. 앞을 비추는 용도가 아니라 장식이지. 대낮에도 배가 반짝 효과가 끝나주니까 때문에 요즘은 정말 많이 하는 튜닝이야. 현대에서 수출용에는 아예 기본으로 데이라이트를 탑재한다니까? 이것들 수출용, 내수용 차별하는 거 생각하니까 나 또 백칠라고 하네.” 비용 20만 원대

MAXIM Reader's Car 화보 촬영 프로젝트 No.1

MISSION
COMPLETE!

| | |
|------------|--------------|
| 차 주인 | ID 승주 아빠 |
| 나에게 차란? | 장난감 1호 |
| 내 차 애칭 | 백호 |
| 튜닝 계획 | 흡기 및 배기 튜닝 |
| 추천 드라이브 코스 | 여기 오는 길 좋던데? |

| | |
|------------|----------|
| 차 주인 | ID 물작대기 |
| 나에게 차란? | 분신 |
| 내 차 애칭 | 감식이 |
| 튜닝 계획 | 트윈 머플러 |
| 추천 드라이브 코스 | 대부도 방조제길 |



산타페 오너 MAXIM 독자들이여,
'산타페 DM LOVE' 네이버
카페에 가면 지면에서 미처 공개하지 못한
MISS MAXIM과의 훈훈한 촬영 현장
스케치 미공개 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
(<http://cafe.naver.com/ppyy1>)

현장 영상 화보
답답엔 자네도
여기 올 수
있어



Motor

This is My Car



TUNNING TIP

HID 램프

"순정 램프엔 전구는 불빛이 어둡잖아? 그걸 HID 전구로 교체하면 훨씬 밝아지면서 푸르딩딩한 흰색 빛으로 변하지. 하지만 빛의 조사각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전구만 교체했다간 불법 튜닝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가끔 보면 헤드라이트가 너무 눈부셔서 운전해 방해할 주는 차들 있지? 그런 녀석들이 불법 HID 튜닝을 한 거야." 비용 18~25만 원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This is My Car!**

오너드라이버 독자를 위한 MAXIM Motor의 메가톤급 이벤트!
당신의 자동차를 사진으로 찍어 MAXIM 편집부로 보내라.
한 명(또는 한 팀)의 독자를 선정하여 당신의 자동차를
주인공으로 한 MAXIM 화보를 촬영하겠다!
당신의 애마에게 자상 최고의 호감을 시켜줘라!

“타 본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는 뭐였나요?”

지난 5년간 수십 종의 신차를 시승해 온
MAXIM의 자동차 전문 에디터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바로 '내 차'입니다.

배기량, 최고속도, 마력 등... 수많은 기준을 놓고
서로 최고의 차라며 떠들어대지만 '내 차'라는
특별한 존재 앞에선 모두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다.
나의 활개 들고 웃고, 수많은 추억을 담고 달리는
'내 차'. 심지어 나를 먹여살리는 것도 '내 차'
뿐이니까. 이 화보의 주인공은 여느 자동차
잡지처럼, 자동차 회사의 신차 홍보를 위해 제공된
'남의 차'가 아니다. 바가 와도 눈아 와도 싫 새
없이 달려준 바로 '당신의 차'다.

MISS MAXIM을 만나!

잡지뿐만 만났던 미스맥시를 양팔에
끼고 잊을 수 없는 기념 촬영을! 간직해
뒀다가 아들에게 보여줘라. "아버지 이런
사람이었다."

당신의 차를 MAXIM 화보에 영원히 남기다!

레이싱걸을 거느린 모터쇼 슈퍼카처럼!
당신 자동차 인생의 한 페이지를
MAXIM에 영원히 남겨주자.

당신의 자동차를 전국에 뽐내라!

열심히 튜닝하고 꾸민 당신의 자동차를
SNS 외엔 마땅히 자랑할 데가 없었나?
MAXIM이 대신 전국에 자랑해주겠다!

이게 정말 내 차 맞아?!

최고 수준의 MAXIM 포토그래퍼, 조명팀,
에디터가 당신의 자동차를 멋진 화보로
남기기 위해 총 출동한다.

덤으로 1년 정기 구독까지!

당신의 차가 당신에게 공짜 구독 혜택도
안겨줄 거다. 당신의 애마가 실린 MAXIM
다음호가 정기 구독 첫 호!



응모 요령

- 당신의 자동차를 직접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차종
(모델명)/ 구입연도도 적어라.
- 매일 보낼 곳:
event@maximkorea.net

당첨 확률을 높이는 Tip

- 당신의 차에 얽힌 재미진 사연을 적으면 더
유리하다.
- 안전한 차보다는 당신만의 개성으로 튜닝한
차가 더 유리하다. 갓 뽑은 새 차라면 튜닝
안 해도 된다.
- 같은 차를 모는 동호회 친구가 있다면 함께
신청해도 좋다. 자동차 2대라면 미스맥시도
2명 데리고 나갈테니!

미스맥시와
만나려고 남의 차를
찍어서 보내면 큰
확률 입을 것야!



MAXIM
시승기
#28

INFINITY FX30d

이 얼굴을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고래! 메기! 강호동! 흑돼지! 니모를 찾아세!
BY 유승민, 김희성, 손안나

7,900만원



캐: 이번 달 시승기 인피니티예요?
태: 워주세요!
지: 도 달래요! 선배는 많이 타 봤잖아요!
비: 겨요!
아: 아, 너네들 아이들 그룹 인피니티 어찌구
지찌구 할 거면 내려, 이것들아.
어: 휴, 사람을 멀리 보고, 낯산의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요.
그: 그리고 아이들 그룹은 인피니티가 아니고
인피니트입니다 아저씨.
음... 그래? 나도 다 알아 인피니트, 엄청
유명하잖아.
지: 인피니티 별로 예쁘다 생각 안하는데 FX는
좋아해요. 이거 하난 정말 예술이에요.
맞아요. FX는 정말 인피니티의 역작인 듯.
수: 수입 SUV중에 딱 보고 "우와" 한 건 이거랑
BMW X6 뿐이에요.
아: 항, 안나씨는 SUV인데도 각진 거 말고 지붕
라인이 스포츠 쿠페처럼 빠진 거 좋아하는
구나? FX도 동그란 머리통이 예술이지. 보닛 양쪽에

불뚝 나온 근육이랑 눈썹은 또 어땀고
선: 배는 이 차 처음 타보는 거예요? 그럼
안나가 20배는 더 잘 알겠네. 개 차가 이거라
그러지 않았어? 인피니티 FX?
워: 야, 새로운 남친이나? 그럼 시승기 안나가
좀 써줘. 잘 됐네.
아: 야구 남친은 무슨, 그냥 아는 오빠입니다.
그: 그리고 이젠 엔진 소리가 디젤인 것 같은데
신형 아니예요? 제가 탄 건 11년식 휘발유 모델이라
뭇 써요. 휘발유 타시면 무조건 써 드릴텐데 아쉽네요.
제: 람 아시죠?
이: 여~ 디젤 엔진 소리 치곤 조용하고
부드러워서 쉽게 구분하기 힘든 것 같은데
제발이네?
아:는 오빠 차를 너무 많이 타고 다녀서 귀가
먼저 알아채나보지 뭐. 그 동안 일본차 중에
하이브리드는 국내에 많이 들어왔어도 디젤이 들어온
건 이게 처음이야.
인: 피니티에는 하이브리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디젤이 들어왔나보다. 요즘은 수입차도 연비

엄청 따지니까요. 그런데 연비가 30% 개선된 게 겨우
9.5km/L이예요?
인: 피니티 FX가 그 정도면 연비 괜찮은거죠.
이거 차 무거운 2톤짜리 괴물이에요. 힘도
엄청 좋지 않아요? 디젤이니까 토크가 장난 아니겠네.
그: 령긴 한데 밟았을 때 딱딱 튀어나가는
느낌은 없어. 가속 페달을 밟으면 좀 좀
들이다가 우우우웅 하고 확 힘이 붙는 느낌이야.
뭐: 그런 타입도 나쁘지 않죠, 쿡쿡
그: 게 토크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좋은
연비를 유지하기 위해 락 같은게 걸려있는
거야. 제한 최고속도에 락 걸려있는 것처럼 말야.
디젤의 메리트는 뭘니뭘니해도 연비니까, 사람도
그렇잖아, 어떻게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가슴도 크고 그러겠어? 그 중에 두 가지만 갖춰도
상품이지.

그런가? 난 공부도 잘했는데?
 그러니까 아는 오빠가 그렇게 많지. 남으면 공유 좀 해. 우리 동갑이잖아. 나 요새 조금 외로울라 그래.
 남긴 뭘 남아요, 그래 봤자 다 합쳐도 희성 선배의 반도 안 되거든요?
 인피니티는 일단 말야. FX타는 남자는 어떤 타입이지? 썬 좀 풀어봐.
 FX처럼 뭔가 짐승같은 매력이 있죠. 그런데 제가 타 본 FX에 비해 이거 어딘지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왜지?
 좋은 눈썹이야. 흑시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바뀌어서 그런거 아냐? 난 그게 제일 아쉽거든. 신형 나오기 전에는 그릴이 이렇게 물결쳤는데



이게 진짜 내가 본 양산차 그릴 중 최강이었거든. 그게 작년부터는 이렇게 맛있게 바뀌었어.
 맞아요! 이거 좋았는데 왜 뺐지? 일본차를 보면 좋았던 디자인이 신형 나오면서 퇴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이리다가 혼다 어코드 풀 나지. 만들기가 비쌌나? 딱 봐도 비싸보이네.
 에이, 그래도 FX가 SUV 디자인 중엔 거의 갑인데 어코드라니 너무 심했다. 하지만 작년에 이거 출시되고 반응이 그저 그런가봐. 정말 그럴 때문인가? 올 초에 8,100만원이 넘었는데 가격이 내려. 잘됐네. 200만원으로 그럴 걸면 되겠다.
 안될 것 같은데요. 패턴만 다르면 구해서 끼울텐데 형태 자체가 달라요. 봐요, 신형은 세로 축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밀고 들어오는 형태잖아요.
 그렇네. 아쉽다. 안나는 남자 자랑 끝난 거야?
 아! 그리고 저 뺨을 때 섯곡 센스가 좋았어요. 오디오 튜닝했나? 사운드 죽이던데.
 이거 BOSE 오디오가 기본 장착이야. 음악 좀 틀어봐봐.
 지금 BOSE 오디오를 '보세'라고 읽으신 거예요? 푸하하하
 ...웃기라고 그런거야. 웃기라고, 사운드 진짜 좋네. 그리고 또? 잘 생겼나?
 얼굴이 막 잘 생긴 건 아닌데, 약간 악당스럽게 남자다운? 그래 같은 득직한 타입이에요. 배는 좀 있는데 어깨랑 등판이 넓어서 안으면 내가 속 들어갈 것 같고.
 뭐야. 그냥 아는 오빠라더니 안기면 속 들어간다고? 했네 했어.

'아는' 오빠가 아니라 '안은' 오빠란 뜻이었구나?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
 아뇨, 그냥 덩치가 그 정도라고요. 제가 안겼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그래, 그래도 안나씨가 이미 등빨 스캔했고 안기는 시를 다 들렸으니 머지않아 현실이 되겠네.
 우와, 누군지 몰라도 부럽다. 안나는 남자 만나면 보통 며칠만에 안나?
 재미없어요. 이거 잡지에 나가면 볼텐데, 자기 애긴지 딱 알겠다. 큰일났네.
 자기 애긴 줄 아는 그 남자보단, 봤는데 자기 얘기가 아닌 남자들이 더 큰일일 걸, 내 경험상? 전부 다 인피니티 타고다니진 않을 거 아냐.
 헐, 그렇네. 선배님,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싫어 내 맘이야. 무릎에도 안나? 부끄러진 안나?
 빨리 웃어드려. 호호호 선배 너무 재밌으세요. 개그에도 라임을 넣다니 천재 같아요.
 됐어, 기사 분량 다 나왔다. 둘 다 내려.
 여기서 내리라고요?
 또 뉘였어. 진짜 너무해.
 빨랑 내려. 현기증 난단 말이야. ㅎ

탱크 정원 50리승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연비 9.5km/L (4등급)
 엔진: 경유
 배기량 2,993cc
 최대 토크 56.1kg·m
 길이 4.865m
 200마력 출력
 알뜰한 기름
 작은 섯곡트
 심양, 하양, 특 HID 좌우 램프 "올라 발아"
 엔진 6기통 터번
 최고 속도 212km/h
 최고 출력 238마력
 100km/h
 전진 백 8.3초... 경주금지!!!
 1번속기 자동 7단
 상시 4륜구동
 한강다리 밑에서 FX 구석구석 탐구

ASSISTANT 박정욱 COOPERATION 한국수산업



Motor news

폭스바겐 코리아 CC 2.0 TDI 블루모션 R-Line 출시

프리미엄 4도어 쿠페 CC 2.0 TDI 블루모션 모델에 모터 스포츠 감성이 담긴 R-Line의 외관 디자인 패키지로 역동적인 매력을 더한 CC 2.0 TDI 블루모션 R-Line을 출시했다. R-Line은 폭스바겐의 고성능 버전으로 BMW의 M시리즈가 경쟁 차종이다. 최고출력 177마력, 제로백 8.4초, 최고속도는 220km/h다. 6단 DSG 변속기를 탑재하여 공인연비 15.6km/L의 경제성을 자랑한다. 현재 폭스바겐은 R-Line을 구축하면서 고성능 버전을 향상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얼굴과 높은 파워에 연비까지 받쳐주니 동급 최고라 말해도 손색이 없다. 5,060만 원, 폭스바겐 코리아(www.volkswagen.co.kr)



랜드로버 65주년 기념 디펜더 LXV 스페셜 에디션 최초 공개

랜드로버는 론칭 65주년을 기념해 디펜더 LXV 스페셜 에디션을 공개했다. 2.2 디젤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디펜더를 베이스로 새롭게 개발했다. 톱니 모양의 16인치 스포츠 일로이 휠, 블랙과 화이트 색상의 바디와 대조되는 고유의 코리스 회색 루프를 가미했다. 또 오직 스페셜 에디션을 위해 최고급 가죽시트를 장착했다. 시트의 머리 받침에는 LXV 로고를 새겼으며 옐로우 색상 스티치로 마감했다. 겉으로 볼 때는 구식의 자동차로 보이지만 LXV 스페셜 에디션이 혹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범람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아닐까? 감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 시켜주는 흔치 않은 최고의 슈퍼카는 아닐까?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02-2071-7000)



람보르기니 서울, 람블 50주년 기념 모델 사전 예약 실시

궁극의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는 람블 50주년을 기념해 특별 모델을 한국 공식 판매처인 람보르기니 서울에서 사전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그 주인공은 아벤타도르 애니버서리오와 가야드로 애니버서리오 2종이다. 전 세계 100대 한정 생산, 판매되는 아벤타도르 애니버서리오는 전면 및 후면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이며 외관 컬러와 실내 트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최고출력 720마력, ISR 트랜스미션과 결합되어 최고속도 350km/h, 제로백 2.9초의 힘과 스피드를 자랑한다. 보기만 해도 배부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애니버서리오, 그런데 네가 다닐만한 활주로가 한국에 있을까?!

람보르기니 서울(02-3438-6400)



닛산, 우사인 볼트에게 볼트 골드 GT-R 전달

닛산은 슈퍼카 GT-R의 홍보대사로 닛산의 브랜드 인지도를 증진시켜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우사인 볼트에게 맞춤 제작한 볼트 골드 GT-R을 전달했다. 볼트 골드 GT-R은 2013년 모델을 기반으로 우사인 볼트의 주행 스타일에 맞춰 닛산 엔지니어들이 특별 제작했다. 이색적인 느낌의 화이트 인테리어와 하이퍼 티타늄 색상이 코팅된 특별 맞춤 제작 휠, 볼트 엠블럼으로 강조된 과감한 외부 디자인이 세련됨을 한층 더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라 불리는 볼트, GT-R 정도는 타워야 이롭잖아 하지 않겠어?

한국 닛산(02-2085-8954)



현대차 뉴 투싼x 공개

새롭게 선보인 뉴 투싼x는 더욱 세련된 내외관 디자인과 동급 최고의 상품 경쟁력을 확보했다. 뉴 투싼x는 윈 타입의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과 HID 헤드램프, LED 포지셔닝 램프를 새롭게 채택했다. 또 새롭게 디자인된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일로이 휠을 장착해 역동성을 한층 강화했다. 뉴 투싼x는 166마력 2.0GDi 엔진을 탑재한 연비 10.3km/L의 가솔린 모델과 13.8km/L의 연비를 자랑하는 디젤 모델을 함께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게다가 디젤 차량의 최대 취약점인 가속시 투과음을 잡는 시스템을 개발해 정숙성 또한 확보했다. Sexy utility vehicle로 관심을 끌었던 투싼이 녀석, 한층 더 색시해졌구나!

현대자동차(080-600-6000)

여자들의 야동 판타지

우리도 때론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BY 김희성 ILLUSTRATION 장재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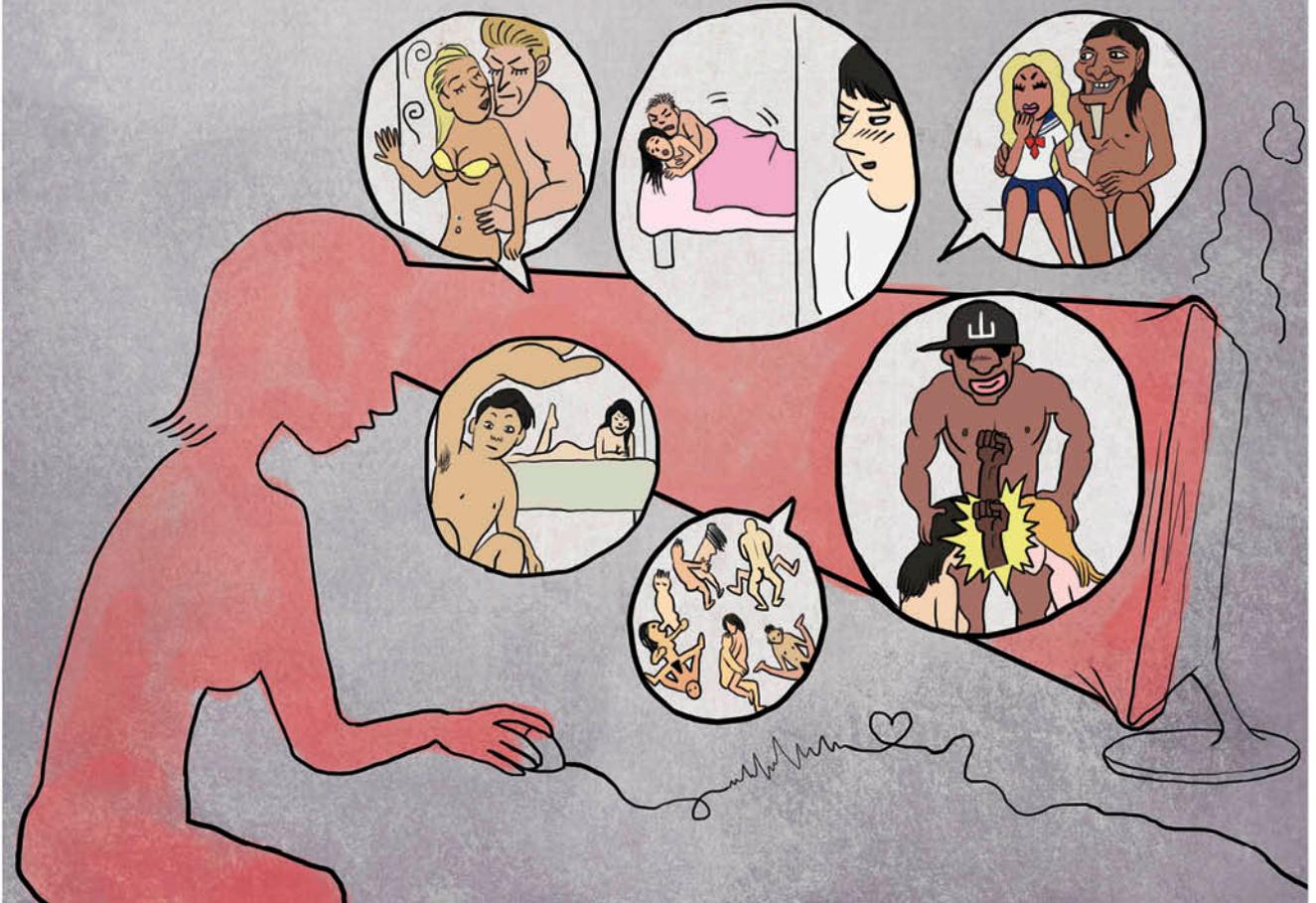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잡지 <코스모폴리탄>에서 10년 넘게 연애, 섹스 칼럼을 써오고 있는 광정은 에디터가 나오는 걸 봤다. XTM <남자의 기술>이란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여자들이 원하는 스킨십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남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야동 데이터를 지우세요"라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자신도 가끔 야동을 보긴 하지만, 여자들은 그 영상에 도저히 이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걸 왜 보냐"며 싫어하는 것이라 했다.

정말? 남성지 에디터와 여성지 에디터의 관점 차이인건지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여자도 야동을 보고, 야동을 보면서 달아오르기도 하고, 때론 야동 속 장면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상도 하는데, 왜 그녀는 여자들이 야동을 싫어한다고 하는가.

여자들은 야동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남친이 야동 보는 걸 싫어할 뿐이고, 야동에 이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과는 이입하는 포인트가 다른 것 뿐인데, 그녀가 야동 데이터를 지우란 말에 남자

방청객들이 술렁이는 걸 보고 언젠가 한 번은 하려고 했지만 관찰을까 싶어 망설이고 있었던 야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들이 그동안 정말 궁금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던 여자와 야동에 관한 진실, 때때로 포르노그래피의 여주인공을 꿈꾸지만 그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었던 여자들의 진짜 속마음을 지금부터 꽤 자세하게 알려주겠다.



Sex / Final Fantasy

1. 쓰리섬

여자들은 쓰리섬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에게도 쓰리섬에 대한 판타지가 분명 존재한다. 당신이 이제까지 만났던 여자들이 '쓰리섬'이라는 단어를 듣고 정색하며 당신을 변태로 몰아갔던 이유는 괜히 얘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서다. 어느 정도 섹스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면 섹스 취향이나 판타지도 공유하지만 쓰리섬 같은 경우는 얘기해도 실현하기가 좀 뻘새 보이니까 점수 깎아먹을 말은 아예 안하는 거다. 그래서 쓰리섬물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지. 여자들이 흥분하는 쓰리섬물의 구성은 당연히 남자 2: 여자 1(이하 2:1)이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걸 남자들이 남자 1: 여자 2

(이하 1:2)의 쓰리섬 조합을 선호하는 이유와 같으니까. 굳이 경쟁자가 한 명 더 있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는가. 게다가 여자가 두 명이면 한쌍의 남녀가 합일의 경지에 이를 동안 나머지 한 명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남자의 몸을 애무 하는데 이걸 섹스가 아니라 '서비스'의 느낌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전혀 흥분되지 않는다. 하지만 2:1 아동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 번갈아가며 여자의 온몸을 애무한다. 두 명씩이나 그것도 동시에! 여자는 아동을 볼 때, 삽입 장면보다 삽입까지의 '과정'에 더 몰입하며 보는데, 2:1 쓰리섬물은 두 명의 남자가 경쟁하듯 여자의 몸을 혀와 손으로 충분히 달궂준다는 점에서 여자들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마는 것이다.



2. 섹스 아바타물

마친가지로 2:1 상황의 아동 하나 더. 남친과 MT에 갔는데 갑자기 올 사람 한 명 더(!) 있다고 한다. (여자들은 이 부분에서 벌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으쓱한 미소를 짓고 있다) 드디어 선수입장. 남친은 객실에 나타난 남자를 자신의 대학교 후배라고 소개한다. "처음 뵙겠습니다" 남친은 "네가 하는 걸 보고 싶어"라고 말한다. 남자는 후배와 여친에게 명령하기 시작한다. "XX야, 너 내 여친 서츠 단추 좀 풀어줘. 여친이 더워하잖아", "입술끼리 맞대라", "허도 널어줘", "내 여친이 달아올랐는지 니가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 등등...

현실 속 섹스는 남친과 하는 섹스. 남친이 아닌 남자와 하는 섹스로 나눌 수 있지만(응?) 아동에선 다른 남자와 하는 섹스를 남친이 지켜보고 있다는 게 흥분의 포인트. 남친은 섹스를 지켜보면서 이것저것을 요구하는데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지시하면서도 "야, 너 이 생귀 하한다고 하나", "넌 또 왜 만진다고 가만히 있냐"며 혼자 화를 내고 열받아 한다.

3. 납치, 강간물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여자를 어디론가 납치해 감금시킨다. (페이드 아웃) (다시 페이드 인) 정신을 차려 보니 전혀 어딘지 알 수 없는 낯선 장소에 감금돼 있다. 양 손은 묶인 채로.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된 여자의 앞에 남자가 나타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에게 "무서워 하지 말라"며 꽤 자상한 말을 건넨다. 그리고 그녀의 몸을 차례로 더듬고 애무하기 시작한다. "아메메"를 외치며 애원하는 여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심지어 찢고) 강제 키스에 삽입까지 한다. 여자의 비명 따위는 강그리 무시한 채로... 여자들도 은근 강간, 납치물을 즐겨 본다. 우리나라 여성단체에서 최악의 영화로 선정하긴 했지만 역시적으로 영화 <완전한 사육> 시리즈가 여자들 사이에서도 꽤 히트를 친 건 많은 여자들에게 '강간 판타지'가 내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한다. 게다가 <완전한 사육>에는 납치물 아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능욕과 학대 장면을 넘어서서 남녀간의 사랑과 미묘한



감정선마저 담겨 있어 우리는 그 시리즈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실 섹스에서 진짜로 여자를 두려움에 떨게 하면 안된다. 여자들이 원하는 건 강간이 아니라 강간 설정이니까. 참고로 여자들은 아동을 볼 때 시각적인 요소보다는 아동에 펼쳐진 '상황'에 흥분한다. 당신이 아동에서 '텍스트'에만 집중한다면 여자들은 아동에서 '컨텍스트'를 읽는다는 거다. 여자들이 아동을 볼 때 '스토리'를 본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다. 납치물에서도 마찬가지로. 겁에 질린 채 섹스를 하는 그 상황이 바로 납치물에서 여자가 흥분하는 포인트다. 그러니 그녀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켜 주려면 진짜로 납치해 소금 창고에 가둬놓고 섹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녀와 '합'의 하에 강간 콘셉트를 연출하면 되는 거다. 이런 할 꺼내기가 좀 민망한 사이라면 그녀가 두려움에 떨 수 있도록 약간의 강압적인 분위기만 조성해주면 된다는 거다. 그리고 평소보다 거친 당신의 손길, 그 정도면 충분하다.



4. 마사지를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자. 마사지 베드에 누워있다. 아욱고 남자 마사지사가가 들어오고 아무런 말도 없이 마사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 마사지사가가 나오는 거 보다 남자 마사지사한테 마사지를 받는 설정이 감정 이입하기가 더 쉽다. 전신 마사지, 다리 마사지, 가슴 마사지 등 여러 종류의 마사지 중에서는 단연 가슴 마사지가 갑이다.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강약을 조절해 가며 가슴을 주물러 주는 저 남자 마사지사

손을 보며 여자들은 마치 자신의 가슴이라도 주물러지는 양 달아오르게 된다. 그리고 중간쯤부터 마사지사가가 오일을 가슴에 발라주는데 그 때 화면에 잡히는 탱글탱글한 가슴의 움직임이 아주 극적이다. 사실 여자들은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해 훑는 샷에서 그다지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아동을 만드는 사람이다 남자밖에 없는 모양인지 철저히 남성의 시선으로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남자의 신체가 더해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여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남자의 '손', 여자의 골반에 키스를 하는

남자의 '입', 여자의 그곳에 파묻은 남자의 '얼굴' 등 여자의 몸에 남자의 신체 부위가 함께 잡히는 앵글은 여자에게 엄청난 흥분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가슴을 주무르는 마사지사사의 손이 마치 자신의 가슴이라도 직접 주물러 주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다.
자, 장르를 조금만 더 세분화 해보자. ONLY 가슴 마사지 vs. 가슴 마사지 후 마사지사와의 섹스 중에선 여자들이 어떤 걸 더 선호할까? 정답은 ONLY 가슴 마사지다. "그래도 섹스 장면이 있는 게 더 아하지 않냐"고 반문하겠지만 여자는 아동이 끝난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상상하는 종족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잔뜩 흥분을 한 여자에게 섹스를 하려는 시도조차 안하고 마사지를 냉정하게 끝내 버리는 남자 마사지사사를 보면서 "왜! 왜! 왜 안하는 거냐!"며 무척이나 아쉬워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더 달아오르는 게 또 여자라는 종족이지. 당신에게 꼭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은 여자가 있나? 그러면 위와 같은 방법을 한 번 써먹어 보라. 효과는 장담한다. 물론 숨을 참는 것만큼이나 어렵겠지만!

여자들이 뽑은 최악의 아동씬은?

우리를 성녀로 만드는 장면들



애널 섹스 장면

금기를 깨려는 욕망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여자들에게도 한번쯤 쓰러짐이나 갱생을 해보고 싶은 판타지가 있다. 하지만 그런 판타지가 있음에도 항문애널 엑스칼리버를 꽂아 넣는 장면은 전혀 흥분되지도 않고 오히려 인상이 찌푸려 진다. 애널섹스가 궁금한 적은 있어도 애널섹스에 대한 판타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동에서 그 장면을 봐도 별 감흥이 없는 거다. 너무 하드코어한 건 현실이 아닌 아동에서조차도 무섭게 느껴진다.

남자의 성기가 크게 클로즈업 되는 장면

아동을 보다보면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해 살살이 훑어주는 씬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 중 남자의 성기가 화면에 크게 잡히면 한창 달아오르고 있다가도 식어버린다. 남자들은 여자의 그곳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에서 강한 자극을 느낀다고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의 성기 자체의 비주얼에서 그 어떤 성욕도 느낄 수 없다. 이걸 옷을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도끼자국'에 끌림을 느끼는 남자들도 있다지만 여자들은 바지 아래로 블록 튀어나온 남자의 아랫도리에 오히려 비호감을 느낀다.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 연예인의 그것이야 위로 특 튀어나온 캡처를 보고도 "아, 애랑 한 번 자고 싶다" 라고 하는 대신 "우리 oo도 남자였네", "우리 oo 다 컸네"라며 웃고 넘어 가는 게 끝이다.

맥락 없는 섹스

남자와 여자가 어떤 사이인지도 모르겠는데 따지고

합체부터 해버리는 아동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싶다. 남자들은 철저히 시각적 동물이니만큼 엄청난 예쁜 여자가 나온다면 섹스씬 그 자체에서도 흥분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자들은 아무런 감흥도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자는 아동의 상황 설정에서 흥분을 느낀다. 영상 속 남녀가 어떤 관계인지, 섹스를 하기 직전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걸 모르고 본다면 아무리 야한 섹스신도 성녀 모드로 감상할 수밖에 없다.

고난이도의 체위

도대체 저런 건 어떻게 하나 싶은 정도로 묘기에 가까운 체위를 보여주는 것도 별로다. 여자는 아동을 볼 때 동영상 속 여자에게 자기 자신을 대입한다. 그런데 처음 보는 기이한 체위의 등장은 아직 해본 적이 없고 그 느낌이 어떨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다. 현실 섹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체위로 마친가치. 해본 적 없는 체위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가능할 법 해야 한다. 역시 여자들이 아동에서 가장 흥분하는 체위는 정상위나 후배위 같이 범국민적이고 보편타당한 자세다. 그게 제일 그럴싸하거든. (당신도 이상형의 여자와 눈이 맞아 짜릿한 허뿔뿔을 보내는 꿈같은 상황에서 뜬금없이 풍자 돌리기를 시전하지는 않을 거 아냐)

쓸데없이 말이 많은 것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 없는 게 제일 좋다. 아동 속 남녀의 관계가 제목에 명시되어 있어서 굳이 대화가

안 나와도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지. 어설픈게 말이 많은 건 산통을 다 깬다. 그냥 잠자코 섹스에 집중하는 영상이 우리의 상상력에 도움이 더 된다.

BGM이 깔려 있는 것

왜 쓸데없이 아동에 브금을 깔아놓는게! 아무리 우리의 섹스 판타지를 잘 담고 있어도 브금이 있으면 도무지 몰입이 되지 않는다. 현실에선 섹스를 한다고 갑자기 BGM이 깔리지 않잖아? 모니터 안 세계도 리얼리티가 살아있어야 영상 속 여주인공한테 감정을 이입할 것이 아닌가. 이걸 남자들도 동의하지 않나?

제목이 구린 영상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 '패밀리가 썼다', '속삭이는 화장실의 요정'같이 초딩이 짓다만 것 같은 유치한 제목은 클릭질도 하기 싫다. 그리고 여자의 그곳을 조개에 비유한 1차원적인 제목은 너무 저속해서 싫다 (ex. 성난 조개 따먹기). 어설픈 비유법도 별로다(ex. 금메달 속궁합). 섹스가 연상되는 단어를 지나치게 집어넣은 것도 싫다(ex. 구강 속 정액투하, 가정교사는 노팬티, F급 폭유녀 따먹기) 다 싫다고 하면 도대체 여자들은 어떤 제목을 좋아하냐고? 직유법, 은유법 다 필요 없고 제목에서 '상황'을 알 수 있는 제목이다. '집에 놀러온 동생 친구', '언니 몰래 형부와', '직장 상사의 오피스텔 방문', '월세 밀린 여대생, 주인 아저씨에게 혼나다기'. 제목만 봐도 아동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딱 감이 오잖아?

SEX Q&A

그동안 당신이 진짜 궁금했던 것들 - 여자의 야동 편

MAXIM 남자 직원들에게 이번 달 SEX 칼럼 주제를 이야기 하자 그동안 궁금한 게 무척이나 많았던지 질문이 쏟아졌다. 그동안 서로에게 참으로 궁금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 다음은 남자 직원들의 질문에 대한 에디터의 일문일답.



여자들은 진짜로 야동을 보나?

본다. 주위에 야동을 안 본 친구들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안 본다고 하나?

조건 반사 같은 거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머리 굴릴 새도 없이 "그런 걸 뭣하러"란 답변이 튀어나오는 거지. 여자들은 야동, 자위, 섹스 같은 질문을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소극적으로 답하게 된다. 성에 대해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학습된 것 같다. 그리고 본다고 말하면 밝히는 여자도 생각할 것 같아서다. 굳이 이미지 깎아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여자들은 야동을 왜 보나?

남자가치고 싶어질 때 야동을 보듯 여자는 하고 싶어질 때 야동을 본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야동을 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 다른 여자는 섹스할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신음 소리는 어떻게 내는지, 표정은 어떻게 짓는지, 사위를 하고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옷을 어떻게 벗는지, 여성 상 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등 다른 여자들은 도대체 섹스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정말 궁금하다. 별게 다 궁금하니까? 여자들은 늘 섹스에 대해 궁금한 게 참 많다.

▶ 예습을 하기 위해서

여성 상 위나 오렐 등 여자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체위를 공부(?)하기 위해 야동을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거의 해본 적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사귀는 남친이 오렐을 좋아한다고 했다면 야동을 보면서 테크닉을 미리 익히는 거다. 모든 여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남친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야동을 보며 공부하는 여자들도 많다는 걸 이 기회를 빌려 꼭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주변에 준비가 항상 철저하고 수업시간엔 반드시 예습을 해오는 모범생 반장 스타일이지? 그런 애들이 섹스도 철저히 예습한다니까. 안 그러게 생겨가지고.

▶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직 섹스 경험이 없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남자의 중요부위가 커지고 여자의 몸에 그 큰 것이 들어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 줄곧 궁금해 한다. 경험이 없는 여자일수록 야동을 더 많이 보는 건 이 신기한 원리를 어떻게든 이해해보고 싶어서다.

▶ 남친은 어떤 야동을 보는지 궁금해서

당신이 야동 이야기를 할 때 여친의 반응을 떠올려 보라. 적극적으로 섹스립을 치며 받아치는 여친도 있었을 거고 그런 걸 왜보냐며 무심하게 반응했던 여친도 있었을 거다. 하지만 그거 아니? 겉으로는 무심한 척 듣고 있어도 집에 가서 다 찾아본다는 사실을. '도대체 내 남친은 어떤 야동을 보는지'가 궁금해서 당신이 봤다는 야동을 찾아본다. 야동을 보면 남친의 취향을 알 수 있으니까. 아, 우리 오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혹시 남친이 야동을 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나?

기분이 나쁘다. 남친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몸을 보면서도 그것이 곧추선다고 생각하니 일단 화부터 난다. 내가 아닌 다른 여체를 통해서도 성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들이 심각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과의 섹스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남친이 야동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들이 야동을 보는 건 여자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이유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이해시키려면 거의 불가능하다. 남녀의 뇌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설사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해도 결국 가슴으로 이해하지는 못할 거다. 그냥 듣지 않는 게 상책이다.

야동이 잔뜩 저장된 폴더를 들켰을 경우엔 뭐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을까?

"사실 예전에는 봤었는데 널 만나고 난 이후에는 야동을 봐도 도무지 재미가 없다."

혹시 여자들은 야동을 어디다 저장해 놓나? 여자들은 야동을 다 본다면 어떻게 야동 폴더를 안 들릴 수가 있나?

여자들은 야동을 절대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는다. 보고 바로 지운다.

주로 어떤 경로로 다운 받아 보는데?

P2P 사이트에서 결제한 포인트로 다운받아보기 보다는 로그인만 하면 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로 감상한다. 이 경우에도 검색 기록 삭제, 임시 인터넷 파일 및 쿠키 삭제는 반드시 한다. 그리고 친구들이 가끔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한다. 연예인 섹스 동영상 같은 거. 연예인 섹스 동영상 공유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빠를 걸?

여자들끼리 야동 이야기도 하나?

당연히 한다. 여자들은 평소에 야한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지만 한 번 시작되면 붓을 터진다. 하지만 남자들의 야동 이야기와 다른 건 '야, 너네 이런 거 봤어?'류의 대화가 아니라 섹스에 대한 폭풍 수다 도중 "어떤 야동에서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더라"는 식으로 야동 속 섹스신을 인용구처럼 활용한다.

그리고 이걸 진짜 궁금했던 건데 야동에 나오는 남자들을 보면 물건 크기가 큰 사람도 많잖아. 그걸 보다가 현실 남자들의 물건을 보면 너무 작게 느껴지진 않나?

여자들이 물건 사이즈가 큰 남자를 보고 흥분하거나 '저런 남자와 하면 좋겠지?'라는 상상을 하는 일은 절대 없다. 오히려 '저런 남자랑 하면 진짜 아프겠다'는 생각에 인상부터 찌푸려진다. 남자의 그것이 여자의 몸에 들어오기 전까진 그냥 몽둥이 같이 생긴 살덩어리에 불과하고 사이즈에 대한 문제는 당신의 그것이 몸속에 들어오고 나서야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당신의 비교 대상은 '그녀가 이제까지 잤던 다른 남자'들이지 야동 속 다리 셋 달린 남자가 아니다. 그러니 전혀 주목할 필요가 없는 문제지.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가 나오거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남자가 등장하는 야동을 보는 게 더 좋나?

사실 상관없다. 남자 주인공이 잘생겼다고 해도 초반에 잠깐 '잘생겼네'하고 말뿐이다. 혹시 그거 아니? 야동을 볼 때 남자는 여자를 보지만 여자도 여자를 본다는 것을. 우리도 당신들처럼 예쁜 여자가 나오는 게 더 좋다.

야동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

'몸매 완전 예쁘다', '저런 자세로 누우면 뺨살이 접하는구나', '아, 저 각도에서 쳐다보면 완전 턱살이랑 쿡구멍만 보이네. 꼭 베게 위에 누워야겠다', '헐, 저 여자 가슴 좀 봐. 진짜 예쁘다', '저런 속옷도 있구나. 아, 저거 예쁘네 어디서 사지?'

자, 이래도 우리가 야동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나? 지금 당장 그녀와 함께 후끈한 야동 한 편 감상해 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여세를 몰아 그녀의 파이널 판타지를 실현시켜주는거지. 한 번의 섹스는 백 편의 야동보다 백만 배는 더 훌륭한 법이니까.

침대 위에서 시간을 지배하고 싶은 남자의 고민

토끼 같은 여자는 좋아도 토끼 같은 남자는 좀 아니잖아?



→ 주체할 수 없는 남자의 눈물(?)
 "오빠, 벌써 끝난 거야?"
 조루에 시달리는 김철나 씨, 그의 성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술전결'에서 승과 전을 뺀 '기 결'이라고나 할까. 성질 급한 '아들내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못난 아비는 마치 재채기처럼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그 순간을 컨트롤할 수 있기를 매번 마음 속으로 다짐한다. 자기 몸이지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패배감과 좌절감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한다. 크기로만 평가받는 아랫도리가 아닌, 여자친구에게 홍콩 왕복 티켓을 끊어줄 만한 내실이 튼튼한 공휴는 모든 조루남의 희망 사항. 오죽하면 친구들의 말을 믿고 '최척이'를 뿌렸다가 둘 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멘붕'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수상한 성분의 약들을 사볼까 하는 유혹에 밤새워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뒤져보기도 한다. 간혹 "여자친구가 좋아해요~"라는 의미심장한 글귀와 사이트 주소가 달린 댓글을 볼 때면 한번 클릭해볼까 하는 고민을 해본 적도 있다.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게 하는 병
 조루는 남자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그뿐이라, 잠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녀의 마음도 멀어지게 만든다. "괜찮아"라고 위로하지만 이내 곧 싸늘해지는 그녀를 보면서 차마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기가 민망하다. '조루' 환자보다는 내 기분만 신경 쓰는 '나쁜' 남자가 되는 게 낫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지만 조루는 숨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건 다들 알고 있을 거다. 조루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위축돼 증상이 더 심해지고 파트너에게도 악감정을 심어주어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니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조루는 남성에게 좌절, 수치감, 스트레스를 느끼게 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파트너의 성적 만족도를 떨어뜨려 남녀 모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 실제로 조루를 겪고 있는 남성을 파트너로 둔 여성의 성관계 만족도 조사 결과 약 62%가 '보통' 이하라고 답변했다. 조루를 겪는 남성의 여성 파트너 절반 이상이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상 남성 파트너는 90%가 '만족' 이상으로 답해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다행히 조루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기만 한다면 치료 결과가 매우 좋은 편이다. 아직 희망은 있다고!

'조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조루는 사정 중추 속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 및 고갈이 보통 남성보다 매우 급속히 진행될 때 나타난다. 이 외에도 성기 주변에 분포한 말초신경의 예민함이나 내분비선 장애, 심인성 문제 등이 조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병원을 찾기 전에 자신이 조루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조루 진단표(PEDT)'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조루 진단표는 간단한 다섯 문항을 통해 조루를 진단할 수 있으며, 정확도가 약 95%로 매우 높은 편이다. 조루를 진단하는 기준은 질 내 삽입 후 사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본인과 파트너가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짧거나, 사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이런

증상 때문에 우울과 좌절감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 등이다. 예전에는 조루 치료에 우울증 치료제를 사용하거나 행동요법과 국소마취제 등을 활용했다. 행동요법은 파트너의 인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고, 국소마취제는 남성의 성기를 일시적으로 마취해 사정 시간을 지연시키는 원리인데, 남성의 감각이 없는 데다 여성의 감각까지 마비시킬 수 있어 성행위의 본질인 만족도가 떨어진다. 또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과 피부 질환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인생 처음으로 가진 성관계에서 경험한 좋지 않은 기억 탓에 조루가 생긴 경우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즘은 경구용 조루 치료제도 시중에 나와 있다. 다독세틴 성분의 먹는 약은 조루의 원인인 세로토닌의 급속한 고갈을 지연해 사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최대 4배까지 늘려주고 사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개선해준다. 이 약은 성관계 1~3시간 전에 물과 함께 복용하면 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이제 병원에서 안전하게 처방받은 먹는 약으로 여자친구와의 관계 개선에 놀라운 효과를 누리보자!

조루는 혼자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면서 고쳐나가기 하는 질환이다. 화려한 섹스, 긴 시간으로 그녀에게 만족감을 주려는 생각도 훌륭하지만 그녀가 진정 원하는 것은 대화와 배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조루, 셀프 진단부터 해보자고~!

당신이 토끼인지 거북이인지 일단 체크해보야 하지 않겠어?

- 8점 이하 조루에 대한 걱정은 STOP~!
- 9~10점 조루일 확률이 높다. 전문의와 상담을 고려하도록!
- 11점 이상 당신은 조루대 당사 병원으로 GO GO!!

| 질문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
| Q1. 사정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 | 전혀 어렵지 않다 | 약간 어렵다 | 보통 정도 어렵다 | 매우 어렵다 | 아주 매우 어렵다 |
| Q2. 원하기 전에 사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야? |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0%) | 네 번에 한두 번 정도다(25%) | 두 번에 한 번꼴로 그런 것 같다(50%) | 네 번에 서너 번 정도다(75%) | 거의 항상 그런 것 같다(100%) |
| Q3. 아주 미미한 자극에도 사정해? |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0%) | 네 번에 한두 번 정도다(25%) | 두 번에 한 번꼴로 그런 것 같다(50%) | 네 번에 서너 번 정도다(75%) | 거의 항상 그런 것 같다(100%) |
| Q4. 원하는 것보다 빨리 사정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 전혀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보통이다 | 많이 그렇다 | 매우 많이 그렇다 |
| Q5. 사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파트너가 불만족스러운 게 어느 정도로 신경 쓰여? |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 | 약간 신경 쓰인다 | 보통 정도로 신경 쓰인다 | 많이 신경 쓰인다 | 매우 신경 쓰인다 |

Style

Summer Shorts

와우! 여름이다! 방 안에만 처박혀 있으면 안 되겠지? 바다로 가자!

1. ...Lost

역동적인 컬러에서 느껴지는 정열과 활기가 허반신에 직렬한다. 경쾌하고 활발한 남자로 어필!
swell.com, \$50

2. 퀵실버

현란하지 않지만 무난한 매력이 있다.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뽀파 조합으로 착실남 이미지 굳히기!
quiksilver.com, \$60

3.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하늘색과 오렌지색의 조합이 시원하다. 스트라이프를 아랫도리에 확실한 눈도장 펴!
ae.com, \$40

4. 노티카

빨·노·검·파의 클래식한 4색 반바지. 거기에 중요 부위를 노란색으로 강조해주는 센스!
nautica.com, \$55

5. 반스

한여름 구릿빛 피부엔 역시 오렌지가 정답. 한 가지 컬러로 깔끔하게 올킬하라!
shop.vans.com, \$60



이때
생각나는
여름 BGM



Boeing! Boeing!

멋진 파일럿 스타일 선글라스 챙겨서
빨리 떠나자! 아이아이아이아이 바다로!

1. 몽블랑

디테일이 살아 있는 럭셔리한 테에
다크 그레이 렌즈로 안정감을 주자.
at Saks Fifth Avenue, \$450

2. 폴라로이드

어디에나 어울리는 무난함 디자인에
적당한 편함은 가격이다.
solsticesunglasses.com, \$98

3. 톰 브라운 아이웨어

큰 렌즈 덕에 얼굴이 작아 보인다.
튼튼한 티타늄 소재, 톰 아저씨
이름값까지 더했다(그래서 비싸).
thombrowne.com, \$650

4. 레이벤

반으로 접혀 보관이 편리하다. 보잉
스타일 하면 역시 레이벤이제!
sunglasshut.com, \$245

5. 톰 포드

일단 한 번 써보시면 너도나도
할리우드 주민 포스 폭발.
neimanmarcus.com, \$465

6. 존 바바토스

군더더기 없는 클래식한 디자인과
가벼운 착용감의 만남.
johnvarvatos.com, \$200

7. 포스터 그랜트

30개 시도 톰 브라운 거보다 싸다.
하지만 한국에 없다는 게 함정.
fostergrant.com, \$20

8. 빈스 카무토

여친이 호시탐탐 노릴 정도로
앞모습이 우아하다. 실마 여성용?
vincecamuto.com, \$65

9. 캘빈 클라인 컬렉션

남성미 넘치는 각진 앞모습에서 ck
간지가 터진다.
calvinklein.com, \$210



수컷의 이빨 관리법



주먹을 부르는 강냉이에서
키스를 부르는 치아로 거듭나라. BY 손안나

에디터가
손수 세운
치약



1. 덴티스테 플러스 화이트

솔잎으로 이를 닦는 것처럼 풀 내음이 은은하게 난다. 너무 화하지도, 심심하지도 않은 깔끔한 맛.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닝 섹스를 즐기고 싶지만 침 고랑내 때문에 입을 놀리기가 두려운 사람이라면 자기 전에 사용해보자.
100g, 7,000원

2. 위코니

노란색이라 싱긋한 레몬 향을 기대했지만 낡았다. 청량감도 없고 향도 없다. 심지어 거품도 없다. 하지만 다 이유가 있다. 합성 향료, 계면활성제가 전혀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 화한 맛은 없지만, 확실하게 이가 보드보드해지는 기분이다. 그 느낌이 좋아 자꾸만 혀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보게 된다. 이렇다 키스의 달인 되겠네.
125g, 9,500원

3. 애경 청은차류

'한방 류', '개운한 한방 치약'... '한방'을 엄청 강조해서 팔길래 치약이 아니라 보약이라도 파나 했다. 그런데 기대했던 은은한 약재 향은 없고 첨가된 설탕 향만 너무 과하다. 맛은 탄산음료처럼 달다.
125g, 2,300원

4. 작트 플러스

흡연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흑했을 이 치약. 흡연이나 커피 중독으로 단무지처럼 누렇게 착색된 치아를 가래떡처럼 하얗게 만들어주는 치약이라고 한다. 양치질하면 할수록 거품이 많아지면서 화한 맛이 강해지는 뒷심 센 놈.
150g, 4,900원





1
Editor's
Choice!

5. 파 인프라 실버
생긴 건 비호감인데 속궁합이 기가 막힌 이성을 만난 느낌이랄까? 치약 색깔이 거무튀튀해서 입에 넣기가 찝찝했는데, 양치질을 해보니 구강에 갈끔, 상쾌, 청량 3단 콤보가 작렬한다. 이에 좋다는 건 다 들어있다는 치약 끝판왕이다. 평소 단 음식으로 치아를 혹사해왔다면, 큰맘 먹고 이용해볼 만하다.
100g, 15,900원

7

6. 페리오 덴탈 쿨링 시스템
쿨링 시스템이라더니... 특별히 다른 치약에 비해 더 시원하다는 느낌은 없었고, 오히려 헛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화한 편이다. 칫솔을 물에 한 번 적시지 않아도 양치할 때 백백하거나 텁텁하지 않다는 점은 맘에 든다.
100g, 3,800원

6

7. 부강 시린메드 에프
찬 음식 먹을 일이 많은 여름철에는 이 치약을 두고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시린이 전용 치약이지만 상쾌함이나 거품은 나쁘지 않다. 수산화인회석이라는 물질이 시린 이의 상아질을 매워주는, 일종의 코팅 효과를 제공한다. 다만, 오래 씹어 단물 빠져버린 풍선껌 같은 맛은 예려.
125g, 6,000원

5

5
Editor's
Choice!

8. 시스템아 나이트 프로젝트
처음엔 어린이 물약을 먹는 것처럼 애매모호한 맛이지만 점점 상쾌해진다. 자기 전에 사용하면 수면 중 발생하는 구강 세균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침에 입 냄새와 텁텁함을 덜 수 있다고. 아침마다 본인 입 냄새에 놀라 깨어나는 사람이라면, 자기 전 약 먹는 기분으로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120g, 2,500원



어우 다리 춥다...

록페스티벌에서 록커 스타일, 과연 먹힐까?

바이하르 록페의 계절. 어디서도 풀리지 않을 록맨들 베이비 되고 싶다면 이 실험에 주목! BY 손안나 MODEL(아루타) 조웅재



록페스티벌이 열리기엔 아직 이른 5월, 1년 365일 거리 공연이 열리는 홍대 앞은 이미 아티스트와 관객으로 북적였다. 우리 귀하신 독자님 스타일에 행여나 누를 끼칠까 염려되어, 홍대 앞 아티스트와 관객을 대상으로 록커 스타일이 진짜 먹히는지 사전 테스트를 실시했다. 실험을 위해 평범남 조웅재 에디터에게 록페 킹 아이템을 풀장착하여 홍대 한복판에 던져봤다. 그를 보는 홍대 피플의 반응은?

MAXIM'S PICK

록마니아의 머스트해브 아이템



1. 가죽 재킷

와일드한 그들의 감성은 살육을 향하는개 한여름에 땀띠가 차서 괴로워도, 짐승 가죽과 자신의 살가죽 사이에 베이비파우더를 뿌리는 한이 있어도, 로커는 곧죽어도 가죽이다. 그대 진정 록마니아라면 록커에 대한 존경심을 가죽 패션으로 표현하라.

GOOD

BAD



2. 레인부츠

놀러간다고 새로 산 캔버스 운동화 따월 신고 가면 그야말로 멸망. 대부분 스탠딩이라서 이리저리 발을 밟히기 십상이다. 게다가 보통 록페는 늦봄에서 여름 장마철 즈음에 열리니 진흙탕 반죽에서 구르고 뛰고, 흙먼지 토핑까지 뒤집어쓰는 일이 다반사. 아무리 난리부르스를 취도 물로 씻어내면 그만인 레인부츠가 필수.

GOOD

BAD



3. 비비드한 선글라스

그늘 한 점 없는 땀벌에서 록스피릿은 더 활활 타오른다! 하지만 작업하는 태양빛이 눈가를 지저대는덴 장사없다. 선글라스는 필수다. 록페에선 레트로한 보잉 스타일보다 비비드한 컬러 프레임의 경쾌한 선글라스가 더 어울린다.

GOOD

BAD



4. 강렬한 페이스 페인팅

얼굴에 번개나 뼈에로의 눈을 같은 심볼을 그려보자. 땀으로 번진 그림이 검정 유수가 되어 얼굴에 철철 흐르면 더 광란하라. 주변 관객 모두가 자릴 뜨는 모세의 기적이 벌어진다 (혼잣말을 많이 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 이제 더 쾌적하게 공연을 즐기는 일만 남았다.

GOOD

BAD





그간 갖고뒀던 미스맥심 포즈.

재킷 블라우어 1,855,000원
바지 파리 게이츠 캐주얼 138,000원
레인부츠 락피시 89,000원
선글라스 디스퀘어드 by 세원 ITC 가격 미정

홍대 놀이터로 가는 길, 운동 중이신 할아버지 한 분과 인터뷰를 시도했다.

에디터: 할아버지 오늘 제 패션이 어때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입고 다녀?

에디터: 이렇게 차려입고 공연장에 가려고요.

할아버지: 운동하러 가는 줄 알았어. 그런 데를

이런 걸 입고 간단 말이어? 우리랑은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거 참 이해가 안 되네.

에디터: 그럼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할아버지: 공연장에는 점잖게 입고 가야지.

...라고 하신 어르신도 <전국노래자랑> 가실 땐 현란한 꽃방망이를 걸치고, 백구두를 신으실 게 분명했다.

한 버스킹 공연장, 공연을 지켜보던 한 남성 관객에게 접근했다.

에디터: 오늘 제 패션이 어때요?

남자: (움짤) 줌... 보기 부담스럽네요.

에디터: 어떤 면이요?

남자: 저 번개모양 귀고리요.

에디터: 나머지는 훌륭하다는 거죠? 록페에 간다면 이렇게 입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남자: 누가 억지로 시키면요.

수줍음이 많은 그였다.

그 관객의 대답을 호의적이라고 멋대로 믿어버린 조용재 에디터. 오손도손 담소를 나누고 있는 젊은이 무리로 뛰어들었다. 아주 자신있게 뿔을 내면서.

남자1: 가족 재킷이 록페 가려고 작정한 모습인데?

지금도 아저씨 인중에 땀이 맺혀있어요.

에디터: 아저씨 아니야...

남자2: 록페에선 3일 후에 버릴 편한 옷을 입어야죠.

여자1: 레인부츠는 예뻐요. 공연장에서 너무 많이 밟힐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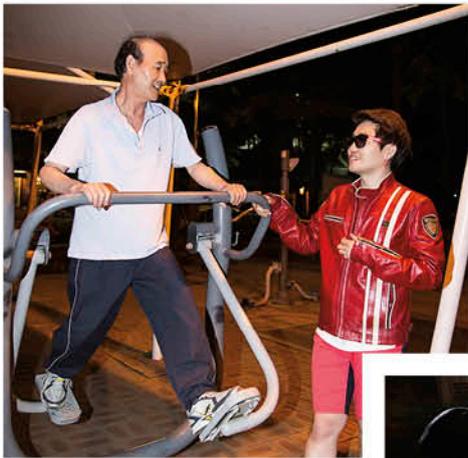
여자2: 록페는 주로 바닥이 잔흙탕이잖아요.

레인부츠는 정말 좋은 선택 같아요.

에디터: 보는 눈이 있네. 어디 살아요?

남녀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지만, 여자들 반응만큼은 열광적이었다. 이만하면 됐다. 다 이루었다.

출구조사를 마치고 이제 진정 음악을 몸으로 느낄 시간. 관객 틈에 자리 잡고 앉은 조용재 에디터는 소싯적의 밴드 생활이 떠오르는지 정열적으로 음악에 호응했다. 인파 속에서도 눈에 띄는 그의 붉은 재킷이 가로등 조명에 유난히 반짝였다. 옆자리가 부담스러웠던지 사람들은 슬금슬금 걸을 떠났고, 노래 한 곡이 끝나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록페에서 인파에 치여서 파김치가 되어 본 적이 있다면 이 록을 시도하라. 반경 1m 이내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전용 공연장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로큰롤을 즐길 수 있다. 확월네버다!!! 🎸



지옥의 패셔니스타 소환 성공!!



홍대 놀이터 앞, 버스킹 밴드에게 즉석 공연을 제안했다. '붓꽃엔딩'을 부르며 흥에 취한 조용재 에디터의 경박스런 '손뼉뼉이'에 연주자들의 기분이 상했던지 잠시 연주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영상은 더 부끄럽다



Style

Upgrade

하루 두 유두?

당신의 1%를 채워주는 아이템

맛있어 보이려고 닭가슴살만 먹느라 힘들었지? 말 못할 신체 콤플렉스에 스트레스 받았지? 간단히 한방에 해결해줄게. BY 김희성

유두 스티커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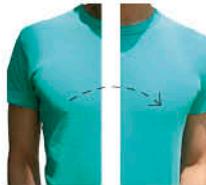
Problem No.1

"염머리가 자주 뜬다. 아침에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드라이하느라 시간 다 간다."

Solution

구레나룻 다리미 '매직모히칸'

머리를 싹싹 다림질하는 효과가 있는 세기의 발명품! 머리를 감은 뒤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린다. 염머리는 물기가 조금 남아있도록 바싹 말리지 않는다. 그리고 15~20분 머리에 쓰고 있거만 하면 염머리가 가라앉는다. 더 이상 말 안 듣는 염머리 때문에 소개팅에 늦는 일은 없어! 무엇보다 귀찮지 않아서 너무 좋다. 7,500원/ 매직모히칸(magicmohican.com)



Problem No.2

"티셔츠를 입고 싶는데 젖꼭지가 티셔츠 위로 유난히 도드라져보여서 고민이다."

Solution

젖꼭지 가라게 '니플리스'

유두만 유난히 돌출돼 아래 갑빠를 키우겠다고 죽음을 몸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다면 다 집어치워라. 유두 스티커 하나면 평생의 고민이 해결된다. 접착제를 사용해 피부에 자극도 없고 피부색과 정말 비슷하니 얇은 티셔츠 안으로 비치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개(10회분) 3,900원/ 니플리스(nippleless.net)



Problem No.3

"갔다 온 사람은 말 안 해도 알 거다. 군화때문에 발이 색어문드러질 것 같은 기분이 어떤건지?"

Solution

초강력 군화탈취제 '크린 아이'

땀에 젖은 군화를 그대로 놔두면 냄새와 함께 세균도 자란다. 행군이 끝난 뒤 세균이 번식하기 최적화된 군화에 물고기도 죽일만큼의 강알칼리성 탈취제를 뿌려라. 바람이 잘 통하는 양지바른 곳에 자연 건조시키면 더 좋고, 아, 군대에서 혼자 이렇게 유난떨다 양지바른 곳에 고이 묻힐려나? 8,500원/ 군대야놀자(gundaeya.com)



Problem No.4

"하체가 빈약해 바지만 입으면 엉덩이 부분이 폭 꺼져 없어 보인다. 가슴이 질백인 여자들의 심정이 백번 이해간다."

Solution

남성용 엉뿔 'The Him 힙업팬티'

남자 체형에 딱 맞게 제작된 남성용 엉뿔도 있다. 입고 걸러라! 여자들의 시선이 당신의 탱탱한 엉덩이를 향해 있을 것이니... 참고로 엉덩이뿔은 탈부착이 가능하다. 더러워졌다 싶으면 꺼내서 미지근한 물에 빨면 계속 입을 수 있다. 43,000원/ ㈜부건이앤아이(bodyshaper.co.kr)



Problem No.5

"갑자기 소개팅이 잡혔는데 살을 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탈씬..."

Solution

남성용 코르셋 '바이오퍼'

보정속옷은 여성용만 있을 거란 편견은 버려라. 남성용 코르셋도 있다. 다이어트 뭐 이런 거 다 필요없다! "아무리 그래도 사나이된 체면으로 어찌 저런 걸..." 하겠지만 한 번 효과를 보면 멈추지 못할 거다. 허리가 5인치 이상 줄어 뱃살이 자체보정되는 신세계를 맛보게 될 거다. 아메, 입고 싶지? 입고 싶지? 79,000원/ ㈜부건이앤아이(bodyshaper.co.kr)

For Lady



Problem No.6

"여친이 고데기로 머리를 마느라 항상 나와야 하는 악속에 30분 이상씩 늦는다!"

Solution

셀프파마기 '여신머리'

이해해라. 이상하게 데이트가 있을 땐 평소 예쁘게 말리던 머리가 말을 안 듣는다. 여친이 자연스러운 연예인 웨이브로 사랑해지고, 자각도 덜 하게 만들 '여신머리'에 주목하라. 미용실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여신 파마를 할 수 있는 마법의 도구다(저 마법 돌는 지태를 봐). "손님, 이건 파마 아니고 고데기예요"라는 말, 정말 지겨웠어! 19,000원/ 올리브영(oliveyoungshop.com)

Watch out!



헬다이버의 대표 워치, SB2C-2001 시리즈 컴백!

헬다이버의 대표 모델 SB2C-2001 시리즈가 돌아왔다. 드라마 <보고싶다>에서 유승호가 착용해 폭풍 인기를 끌었던 SB2C-2001 시리즈는 블랙과 로즈골드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고급스러운과 패셔너블함을 느낄 수 있다. JAPAN 멀티무브먼트로 날짜와 요일까지 확인 가능하며 기본 생활 방수 기능까지 더해 편리함과 안정성을 추구했다. 팔방미인의 이번 모델은 이십만 원이 안되는 가격으로 주머니 사정까지 고려했다. 실물로 보면 더 멋진 SB2C-2001 시리즈는 헬다이버 공식 홈페이지와 가까운 매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189,000원, 헬다이버(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



조르지오 페론 1919의 딥 씨 타이머로 여름나기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조르지오 페론의 1919 딥 씨 타이머를 소개한다. 딥 씨 타이머는 100 기압 방수 다이버 시계로 강렬한 오렌지 컬러가 인상적인 제품이다. 또 자체 발광 루미노스 기능을 넣어 칙칙같이 어두운 밤에 시간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탈리아의 감각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일본 SEIKO의 무브먼트를 탑재해 디자인과 기능의 조화가 돋보이는 아이템이다. 올 여름, 산과 바다를 불문하고 불철주야로 야외 활동을 즐길 계획이라면 조르지오 페론 1919의 딥 씨 타이머를 추천한다.

(주)거노 코퍼레이션(02-3397-7100, www.eurotime.kr)

빅토리노스, CHRONO CLASSIC 워치 출시

빅토리노스 스위스 아미에서 새로운 크로노 클래식 워치를 선보인다. 기존 크로노 클래식에 크로노그래프를 탑재하여 시간 측정 기능을 넣었다. 스테인리스 스틸 스트랩과 블랙 세라믹으로 시계 테두리를 디자인하여 세련되고 도회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또한 스크래치 방지 3중 코팅과 충격 방지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를 통해 내구성을 높여 오랫동안 변함없는 품격을 보증한다. 센스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면 갤러리어클락을 통해 빅토리노스 스위스 아미의 크로노 클래식을 만나보자.

97만 원, 갤러리어클락(02-3284-1300, www.galleryclock.co.kr)



ALBA, 글로브 트로터 AF8R43X 모델 제안

고급 패션 시계 브랜드 ALBA가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글로브 트로터 신모델을 출시했다. 기존의 세계 지도 문자판은 유지하면서 이전 모델에 비해 사프한 시계 바늘과 정교한 밴드로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또 시간 측정 기능이 가능한 크로노그래프를 추가함으로써 기능의 만족도를 높였다. 청량함을 더한 블루 계열의 AF8R43X 모델 이외에도 클래식한 디자인에 4가지 버전의 컬러를 출시한다.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자. 여행 떠나는 공항 패션의 일인자가 되고 싶다면 ALBA의 글로브 트로터를 추천한다.

21만 원, 삼정시계(02-511-3182)



VERTICALE 커플 라인로 우리 사랑 영원히!

덥고 짜증나는 여름, 그래도 커플의 사랑을 굳이(!) 지키고 싶다면 시원한 스테인리스 스틸 워치를 장만하자. 자스페로는 커플들을 돋보이게 할 VETICALE 커플 라인 워치를 선보인다. 청명하고 우아한 느낌의 스테인리스 스틸 스트랩은 땀나기 쉬운 손목을 시원하게 보호한다. 또 수퍼 루미노스 코팅이 되어 있어 야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다. 스트라이프 입체 무늬 다이얼은 자스페로의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다. 여름이 지나면 어떡하냐고? 걱정은 금물! 여름엔 스틸, 겨울엔 가죽 스트랩 호환이 가능해 실용성까지 잡았다.

398,000원,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

Style news

파리게이츠 캐주얼, 견장 패턴 시리즈

복유립 캐주얼 브랜드 파리게이츠 캐주얼이 여름 시즌을 맞아해 멋스러운 견장 패턴 시리즈를 선보인다. 견장 패턴 시리즈는 간결한 이미지의 견장 패턴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심플하면서도 발랄한 느낌을 준다. 패턴 자체로 유니크함을 어필하기 때문에 특별한 스타일링 없이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견장 패턴 시리즈는 셔츠와 팬츠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준비되어 있어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도 좋다. 올 여름 포인트 패션은 견장으로 OK?

파리게이츠(www.pearlygates.co.kr)



코오롱 스포츠 남성 이소재 패치 재킷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대비해 캐주얼 감각의 코오롱 스포츠 이소재 패치 재킷을 소개한다. 이소재란 서로 다른 소재로 배색 및 절개 입체 패턴 디자인을 적용해 착용 시 편안한 것이 장점이다. 재킷은 레드와 카키로 준비되어 있어 경쾌한 캐주얼룩을 연출할 수 있다. 트렌디 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에 가슴 부분과 팬츠 사이드 부분에 지퍼 포켓을 달아 수납 공간도 살렸다. 밑단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여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다.

16만 원, 코오롱 스포츠(www.kolonport.com)



뉴에라, 제레미스캇과 콜라보레이션 캡 출시

현대 가장 핫한 패션크리에이터로 알려진 제레미스캇이 뉴에라와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인다. 다양한 아라비스크 느낌의 디자인을 가진 이번 제레미스캇 컬렉션은 많은 패션피플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Arab Spring이라는 컨셉으로 기존 뉴에라 캡에 약어, 표범, 뱀, 타조 등 여러 동물들의 가족을 표현하여 제레미스캇 특유의 위트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5월 전 세계 동시 발매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한정적으로 소량 판매하고 있으니 합합 정신이 가득한 패션 피플은 서둘러 구입하길 바란다.

뉴에라캡코리아(www.neweracapkorea.com)

WeSC(위에스씨) 시그니처 아이템 아이콘 티셔츠에 주목

반팔의 계절이 왔다. 술술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어떤 반팔을 입어야 간지가 살지 고민인 남자는 매 시즌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WeSC(위에스씨)에서 답을 찾아보자. 자고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코디에 화려하지 않은 티셔츠는 필수. 이런 조건에서 WeSC만한 티셔츠가 또 없다. 이번 시즌에 출시된 WeSC의 시그니처 아이템 아이콘 티셔츠는 로고 프린트가 깔끔하게 박혀 있어 심플함이 강조되었다. 소매부분에는 로고 패치로 디테일까지 살렸다. 또 오가닉 코튼을 사용하여 착용감이 좋다. 다양한 컬러의 티셔츠가 준비되어 있으니 취향대로 골라볼까?

위에스씨코리아(www.wescckorea.com)



에이글, 레인코트 피셔테일 13 코트 출시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다니기 번거롭지? 에이글에서 비와 바람을 막아주면서 실용성과 멋까지 갖춘 레인코트 피셔테일 13 코트를 출시한다. 누가 24만 원이나 주고 비옷을 사느냐고 비웃겠지만 이 녀석은 초경량 재질이라 입기에 부담 없으며 휴대성, 내구성도 좋다. 또 허리 조절 스트링이 달려있어 슈트나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게 코디하여 입을 수 있다. 언제 닳칠지 모르는 소나기에 대비할 유용한 아이템이겠지? 레인코트로 자유로워진 당신의 두 손은 그녀를 주무르는데 쓰자고.

24만 원, 에이글(www.aigle1853.co.kr)



탐스 아이웨어 2013 컬렉션 출시

여름 대비 필수 아이템 선글라스, 그것도 옛지 잘잘 넘치는 농으로 찾고 있었다면 탐스의 아이웨어를 추천한다. 탐스는 독특한 디자인의 프레임과 컬러로 예비에이터, 오버사이즈, 빈티지 디자인 등 다양한 컨셉의 세련된 아이웨어를 선보인다. 모든 제품에는 자외선을 100% 차단해 피부와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차단 렌즈를 사용했다. 탐스가 슈즈 브랜드인 줄만 알았다면 큰 오산! 여자친구와 탐스 커플 슈즈만 고집했던 남자들은 올 여름에는 탐스 선글라스로 여자친구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는 건 어떨까?

탐스(www.tomsshoes.co.kr)



* 흑백처리된 커버의 월호는 품절을 의미합니다.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자난 호 MAXIM을 놓쳤나?
 구독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래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쟁취하시길!
 *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서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우스

패턴



김보성

생년월일 1966년 6월 27일
신체 175cm, 70kg(요즘은 조금 늘었다)
가족 슬하 2남

데뷔 1989년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대표작 영화 <투깝스 2>, <투깝스 3>, <강패 수업 2>, <보스 상륙작전>

<영웅: 셀러맨더의 비밀>

방송활동 <세바퀴>, <라디오스타> 등
다수 출연

선글라스 스톤아일랜드

ICON

義理 김보성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나이 김보성의 「열혈 의리론」

에디터 조영재
사진 YUD

의리론
육성 파일



연소자 관람가

제작·기획 맥심필름

푹나기는 가라! 이 時代의 진짜 男子가왔다!
영화계의 재간꾼 김보성의 리얼.액션.쏘!
<영웅: 사라만다-의 비밀>에 이은 액션의 정석!

- 엄청난 제작비
- 진한 인간애
- 강렬한 메시지

현대판 무사의 귀환!
우주공간적 액션의 진수!
이 영화를 보는 순간
당신의 정자 수는 두 배가 될 것이다!

"잔재주 부리며
살지 마!"

부루-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 김보성의 이유없는 반항
영화사에 길이 남을 호화 캐스트

<대도무문>

大道無門

NO GATES FOR THE BIG WAY

여러분의 맥심 극장

마포구 서교동
지하철2호선

24일 대개봉!

서로가
소홀했는데

덕분에
소식듣게돼

-하상욱 단편 시집 '애니팡' 중에서-

'애니팡' 시인 하상욱

아무도 시(詩)를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에, SNS를 뜨겁게 달군 시인이 있다. 우리에게 다시 시를 논하게 한 SNS 시인 하상욱을 만나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BY 김희성 

한때 내 꿈은 시인이었다. 이유인즉슨 보통의 사람들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면 잉여밖에 안 되지만 시인은 맨날 늦잠을 자고 늘어져있어도 '시인이니까' 그 행동이 다 정당화될 것 같아서다. 집구석에 틀어박혀 몇 날 며칠을 킁킁만 먹으며 만화책만 봐도 웬지 시상을 떠올리는 것처럼 보일 거고 오후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고 빈둥거리려 잉여는커녕 있어 보이니까까지 하겠지. 자면서도 문장을 날카롭게 다듬고 있을 것 같아 함부로 깨울 엄두도 못 낼 거다. 그것이 바로 내가 시인이 되고 싶은 가장 이유였다. SNS 시인, '애니팡' 시인으로 불리며 초대박을 친 하상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페이스북에 한두 편 올리던 시에 대한 반응이 꽤 괜찮아서 회사 동료들과

말해주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시인에게 다가가기 어려움 이미지를 덮어 씌워놓고 '시는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닐까. 배우이자 시인인 김보성과 직장인이자 시인인 하상욱을 만나고 나니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창 시절 글짓기 대회에서 곧잘 입상을 하거나 밤새워 책을 읽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학생이 아니었다더라도 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태생이 꼭 문학청년이어야만 시를 쓰고 소설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에디터는 그들에게 물어봤다. "도대체 시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먼저, 하상욱의 답변은 이랬다. "내 얘기를 하면 되는 것 같다. 내 애긴데 그 얘기가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얘기, '시'라고 하면 언어부터 다르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울 시>는 그러지 않아서 새로웠던 것

고정관념을 완벽히 파괴했다. 하상욱은 '시'라는 장르 앞에 세워져 있던 장벽을 무너뜨리는 실로 대단한 일을 해낸 거다. 그는 앞으로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시에 더 많이 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시 덕분에 딱딱한 일상에 불과하던 출근길을 조금 더 관조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서울 시〉를 통해 서울의 씩씩함을 얘기하고 싶었다. 다같이 씩씩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너무 슬퍼하거나 아파할 필요도 없고 '나만 왜 이러나'하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다. 씩씩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짜질하고 웃길 거다. 이런 걸 드러내놓고 같이 얘기하면 더 편해지고 좋은 것 같다"는 하상욱 시인의 말처럼



장난으로 "책 내보자"는 대화를 하다가 진짜로 책을 낸(!) 케이시다. 전자책 유통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작가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던

WALK A MILE 펍

카멜의 성공적인 캠페인을 기념

1920년대 유명한 "나는 카멜을 사기 위해서라면 1마일도 걷겠다"는 슬로건을 모티브로 디자인 되었다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니코틴아민, 니켈,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CAMEL FILTERS 타르 8.0mg/니코틴 0.70mg
CAMEL LIGHTS 타르 6.0mg/니코틴 0.50mg
CAMEL SUPER LIGHTS 타르 3.0mg/니코틴 0.30mg

그는 주말에 회사에 남아 혼자 자신의 전자책을 직접 만들었다. 전자책의 인기에 힘입어 단행본 <서울 시>까지 출간하게 됐고, 방송 출연 및 강연도 활발하게 하며 요즘 가장 질 나가는 '시인'이 됐다. 시인 인기 있는 건 아니다.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의 셀카도 화제다.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린 다음 몇 명이 언팔하는지 세는 걸 즐긴다"는 그의 악취미마저 원가 천재스러워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건 이게 다 그가 시인이기 때문일 거다. 시인이 아니었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지. 6월은 문학의 달도 시의 날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연히 2명의 시인을 만나게 됐다. 배우(이자 의리의 아이콘) 김보성과 얼마 전까지 직장인이었던 시인 하상욱이 그들이다. 김보성은 시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천상 터프가이지만 여린 감수성을 담아낸 시를 여러 편 썼고, 하상욱은 개그맨들의 뺨을 후려치고도 남을 만한 개그 센스를 지녔으면서 셀카 찍는 게 취미인 시인이다. 2명의 시인은 그동안 나 혼자 '시인은 이럴 것'라고 상상해온 시인의 모습과는 영 거리가 멀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시인이란 여던가 모르게 고고하고 교만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외모의 사람이었다. 아마 당신이 생각한 시인의 모습도 이와 유사할 거다. 김보성과 하상욱은 그동안 우리가 시인에게 가졌던 고정관념이 마치 '테러리스트는 모두 아랍인이고 미국에 사는 한인은 모두 세탁소를 운영할 것' 같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걸

같다. 언어적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감정이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더라. 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시 쓰는 다른 분들이 이걸 보면 '저 이상한 놈이... 시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라고 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만이 시의 정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김보성의 답변이다. "시를 쓰는 데 정도(正道)는 없다. 가슴에 느낌이 올 때 펜을 들어라.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보니 우리에게도 '가슴에 느낌이 올 때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가끔 무언가에 치밀어 올라 어딘가에 글을 써서주고 싶을 때, 그럴 때가 가끔 있지 않나? 김보성이 얘기하는 가슴으로 쓰는 글이 바로 그런 타이밍을 얘기하는 것일 테다. 아무도 관심 없을 줄 알았던 "내가 싸질러놓은 얘기"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상욱이 말한 '교감'이겠지. 하상욱은 지인 중 서너 명을 검사원으로 두고 주기적으로 시를 보여준다고 한다. 자신은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공감이나 안 되는 시는 책에서 다 뺐다. 그 과정에서 싸놓은 시 중 3분의 1이나 걸러졌다. 검사원의 기준은 너무 센스 있는 사람은 아닌 사람. 그가 스스로 정한 검사원의 기준만 봐도 그가 얼마나 '공감'을 중시하는 시인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공감을 중시하는 그의 시론은 대중들에게 정확히 통했다. '시'워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어려운 문학이라는 사람들의

우리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현실을 다룬 그의 시에 격하게 공감하며 길질거리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건 숨막히는 만원 지하철과 밤새 야근인데 야근인데, 알고 있는 시라곤 교과서에서 배운 무위자연이나 인빈낙도, 자연에 귀의해 유유자적하며 무위도식하는 것을 이상적인 삶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시 정도였기 때문에 시를 멀리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어도 퇴근 시간은 기억 없는 삶의 피로를 감당하기엔 당신이 알고 있는 시들이 너무 아름답지만은 않았는지, 그동안 시를 알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어렵다고 투덜거리기만 했던 건 아닌지 시가 친숙하게 느껴진 이 기회에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하상욱은 "나는 지금도 내가 시를 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학개 개드림의 중간 같다. 시를 쓰는 다른 분들이 보면 우습다고 할지도 모르겠다"라며 시인이라 호칭을 겸연쩍어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의 미학을 알게 해줬다는 점에서 그는 꽤 훌륭한 시인이다. 이창동 감독, 윤정희 주연의 영화 <시>를 보면 우연히 시를 접한 뒤 일상의 풍경에서 새로움을 느끼게 되는 미자(윤정희)가 등장한다. 이제 당신도 '시'를 만났으니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목도할 수 있을 거다. 마치 첫 경험을 한 다음 날의 풍경처럼 싱그러움 광경을 말이다. ☺

〈서울 시〉 맛보기

에디터를 사로잡은 구절들.

고생 끝

관계 끝

-하상욱 단편 시집 '조별과제 끝' 중에서-

다 잊은거니

왜 말이없니

-하상욱 단편 시집 '돈 안 갚는 친구' 중에서-

소유할수 없기에

포기할수 없는너

-하상욱 단편 시집 '품절' 중에서-

작을편 예뻐는데

크니까 떠편이네

-하상욱 단편 시집 '프로필 사진' 중에서-

궁금하고 기대돼

너희들의 내일이

-하상욱 단편 시집 '옆 테이블 소개팅' 중에서-

꼭 솔직한 것도

꼭 거짓인 것도

-하상욱 단편 시집 '니가 제일 예뻐' 중에서-

나한테 니가

해준게 뭔데

-하상욱 단편 시집 '수수료' 중에서-

내가 다른길까

내가 속은길까

-하상욱 단편 시집 '맛집' 중에서-

생각의 차이일까

오해의 문제일까

-하상욱 단편 시집 '미용실' 중에서-

알고

보면

다들

딱히

-하상욱 단편 시집 '불금' 중에서-



〈서울 시〉
글·그림 하상욱
중앙북스
9,800원

하상욱
친필 사인본
받기



전자책 시집을 내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 솔직히 예상했나?

전혀 예상 못 했다. 트위터에서 먼저 화제가 됐다고 주위에서 말해주더라. 일베나 오유 같은 커뮤니티에도 올라가 있더라. 신기했다. 그런데 그날부터였던 것 같다. 내가 내 이름을 백 번씩 검색해본 게.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당신과 관련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검색되던가?

다음(Daum), 카페 글이 제일 반갑더라. 내가 없는 곳에서 사람들끼리 내 얘기를 하는 게 기분 좋다.

당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에 어떤 게 났으면 좋겠나?

ㅋ. <서울 시>에는 의미도 많이 담았지만 99%의 목표는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다. 1%의 바람은 의미를 느껴주면 고맙고 아니어도 할 수 없고. '하상욱' 하면 재미있는 걸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웃어주면 기분이 좋다.

솔직히 "이건 내가 썼지만 병맛이다" 하는 시도 있지?

책에 실고 나서 후회한 건 "저는 정치가 꿈이에요. 조정치". 이건 심지 말 걸, 되게 후회했다.

반대로 "내가 썼지만 정말 기가 막히다" 싶은 시를 한 편 꼽자면?

MAXIM을 제목으로 시를 지어줄 수도 있나?

"사웠지말입니다" -'맥심'

혹시 시집에 실릴 수도 있는 건가?

다들어서 책에 실을 수도 있다. MAXIM은 공감 많이 되는 집지니까. MAXIM은 하나의 아이콘이 된 것 같다. 확실한 이미지가 있잖아. 그런 건 시로 쓸 수 있다. 예전에 EBS로도 하나 썼었다. "보긴 보나". EBS에서 촬영할 때 써달라고 해서 썼는데 안 쓰더라. 국장님이 보시면 방송 취소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보니 당신의 시는 MAXIM과 코드가 잘 맞는 것 같다.

'이 달의 몫을 사진' 코너가 특히 나랑 통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당신을 시인이라고 부르는 게 오그라들진 않나?

적응이 안 되고 많이 오글거린다. 나한테 연락을 한 분들이 "하상욱..." 하면서 약간 멍청하곤 한다. '-씨'라고 해야 할지 '-작가'라고 해야 할지 호칭의 애매함이 있는 것 같다. 호칭을 부를 때 머뭇머뭇 거리면 '아, 이분이 나를 어떻게 부를지 고민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들었을 때 가장 재미있었던 호칭은?

선생님.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저 안 가르치는데요" 라는 드립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장난치면 안 될

싫어하고 언팔하는 게 재밌다. 셀카를 올린 다음에 언팔이 몇 개나 되나 세어보기도 한다. 후줄근한 우리 집 화장실에서 안 멋있게 찍는다. 난 그런 게 좋다.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

셀카에 달린 댓글 중에 기분 나빴던 건 뭔가?

웬만하면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데 박성광 씨 관련 건 '좋아요'를 안 누른다. 님은 것 같긴 한데 박성광 씨도 기분 안 좋을 것 같다. 대신 박해일 씨 닳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1년에 한두 번은 듣는다.

'박해일'을 제목으로 시를 쓸 생각은 없나?

박해일 씨와 내가 닳았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이 없기 때문에 못 쓴다. 의견이 너무 갈리는 소재는 써도 공감을 못 하니깐.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반응이 별로라서 삭제한 글도 있나?

쓰고 나서 '아차' 싶은 것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다가... 이틀테면 성형이나 정치 같은 주제말이다. 이 이야기를 잘못 쓰면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아니라 공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SNS 시인으로도 불리는 당신에게 페이스북이란?

내 성격을 개조해줬다. 트위터나 블로그를 할 때는 까는 걸 진짜 좋아했다. 비판 의식이 강한 스타일이었는데 나중엔 그게 너무 싫더라. 하지만



“CAMEL SOUND” 팩

카멜의 음악에 대한 애정을 기념

1913년 발매 후 카멜은 가장 최신의 음악과 함께하며 카멜의 크리에이티브를 표현해 왔다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레도 파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콜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CAMEL FILTERS 타르 8.0mg/니코틴 0.70mg
CAMEL LIGHTS 타르 6.0mg/니코틴 0.50mg
CAMEL SUPER LIGHTS 타르 3.0mg/니코틴 0.30mg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곳에" -'지옥철'. 이게 가장 잘 쓴 것 같다. <서울 시>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잘 담겨 있다.

묘비에 시를 하나만 새긴다면 '지옥철'을 넣고 싶나?

죽을 때쯤 다시 써야겠지? 기억에 남는 시는 있긴 하다. "서로가/소홀했는데//덕분에/소식듣게 돼" -'애니팡'. 내가 죽을 때쯤엔 애니팡을 누가 알까 싶어서.

필명이나 예명을 지을 생각은 없나?

갖고 싶은 필명은 있다. 병명. '병맛 같지만 멋있어'. 내가 갖고 싶은 이미지다.

것 같아서 참았다. 알고 보니 신문사에서는 작가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한다더라.

다른 사람이 써온 글을 RT하기도 하더라. 어떤 글을 봤을 때 가장 기분이 좋나?

MAXIM이니까 솔직히 하는 말인데 예쁜 분들이 올린 글.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올린 글도. 어떤 초등학교 1960년도 졸업생 카페에 내 글이 올라온 걸 봤는데 되게 반갑더라.

유명해지기 전과 후 SNS에 올리는 게 달라졌을 것 같은데?

셀카를 많이 올리게 됐다. 셀카를 올릴 때 사람들이

페이스북은 노는 분위기라 밝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다. 만약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다면 <서울 시>를 쓰려는 생각도 안 했을 거다. 페이스북 덕분에 성격이 많이 밝아진 것 같다.

앞으로 계속 시집을 낼 건가?

<서울 시>의 2권이 나올 거다. 그리고 만우절 날 장난으로 "지방 시를 쓰러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진짜로 몇 개 썼다. 나는 원래 서울 사람이라서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방 이야기를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 제목은 '명품 시집, 지방 시', 어떤가. 🐫

For Ladies



왜 연락 안 하나고
개생쿠야...

음썰!



여성 독자를 위한 리얼 LOVE 가이드 필살 소개팅 전략 Q&A



소개팅이 입사 면접보다 어렵다는 여성 독자를 위해 MAXIM 남자 에디터가 가르쳐주는 '아는 오빠 우리 오빠 만들기' 전략! 남성 독자에 대해 당신이 오해하고 있던 사실들을 남성 독자에게 다구리 맞을 각오로 하나하나 까발려주마.

BY 조용재



얼마 전 편집부 메일링에 "독자 선물은 왜 남자 것밖에 없나요?"라는 여성 독자의 사연이 도착했다. 사연을 가장한 이 사자후는 어느새 MAXIM에도 '진짜 남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여성 독자가 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외침이었다. 약 1년간 20명 남짓한 MISS MAXIM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속으로 무수한 소개팅 판타지를 만들어온 에디터는 이제 "진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이렇다"고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궁금하면 와서 얘기 좀 듣다 가 누나들. 라면도 끓여줄게.

첫 만남 공략

Q 평소와 다르게 섹시한 모습으로 가슴 파인 블라우스와 ‘짧차’를 입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A. 그럼 난 망고 나시에 레이밴을 끼고 나갈까? 여자들은 필사적일 때면 자신의 노출에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여자들이 비 콘서트 복장을 한 남친과 데이트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남자들 역시 과한 노출에 부담을 느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클럽이 아닌 이상 남자들은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우연찮게 보았을 때 더욱 묘한 성취감과 정복감을 느낀다. 처음부터 가슴골이 훤히 내다보이고 타질 듯한 힙 라인이 드러나는 복장으로 나타나는 것은 남자들에게 온라인 게임을 맨렐부터 시작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좋은 것과는 별개로, 재미가 없다는 얘기도.

→ 의도하지 않은 섹시함이 먹힌다.

어차피 여체에 대한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은 당신이 전신 패딩을 입고 와도 속으로 스리 사이즈를 가능해본다. 그러나 굳이 첫 판에 어필해야했다면 적당히 섹시 정도까지만 오른뿔 무릎 위 길이의 원피스를 착용하되 떨어진 물건을 줌은 척 속이며 가슴을 살짝 내비치거나 계단을 오르며 시선을 애타게 만드는 정도로 섹시함을 어필하도록 하자. 남자들이 괜히 ‘은골’에 환장하는 게 아니다. 가슴께에 손을 대거나 치마를 잡는 행동 역시 눈을 끄는 행동 중 하나다. 섹시한 여자가 좋지만 내 여자는 조신하기 바라는 남자들의 불가사의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Q 약속 시간에 일주일 늦어서 애타게 만들고 싶은데, 얼마나 늦으면 좋으려나?

A. 헛소리하지 말고 안 늦는 게 가장 좋다. 남녀의 첫 만남에서 보통 우세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다. 어차피 남자들은 얘기하지 않아도 10분이고 20분이고 먼저 도착해 유리창 보면서 앞머리를 만지고 있을 거다. 당신이 제

시간에 와도 결국은 기다린 게 되는 셈이다. “여자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 어쩔 수 없이 늦게 된다면 액션을 취하라.

칼같이 가자니 너무 기다린 티를 내는 것 같아 아쉽다면, 애교로 봐줄 만한 마지노선은 딱 5분 정도로 잡자. 만약 정말 늦었다면 눈웃음치며 걸어가자 말고 최대한 액션을 보여 뛰어가라. 30분을 늦어도 몇 초의 액션만으로 당신은 ‘늦은 여자’에서 ‘개념한 여자’로 뒤바뀔 수 있다. 이상하지만, 남자 두뇌의 회로는 늘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작동한다.

Q 남자들은 털털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파스타보다는 그냥 순댓국집이나 가자고 할까?

A. 그건 복학생 선배랑 학생식당에서 실컷 시켜 먹고, 첫 만남에서는 암전히 남자가 추천하는 분위기 좋은 양식집으로 향하도록 하자. 남자는 여자가 계획한 대로 따라주고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반응을 보여줄 때 뿌듯함을 느끼고 ‘이 여자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

→ 첫 만남은 분위기가 있게, 리액션은 필수!

털털한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보다 삼겹살이 더 좋은데, 먹으러 갈래요?”라고 말하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도록 하자. 그런 취향은 애프터 만남에서 밝혀도 절대 늦지 않다.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데 왓자지컬 떠드는 직장인 사이에서 담배 냄새 맡으며 고기 익는 영접의 시간을 보내기 싫다면 말이다. 분위기가 반은 먹고 들어가니 최대한 릴랙스한 상태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맛있게 먹고 나면 최대한 만족스러움을 표현하라. 남자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에 한층 더 자신감을 얻게 될 테니까.

Q 밥 정도는 남자가 사도 괜찮겠지? 언제부터 지갑을 여는 게 좋을까?

A. 그래, 어차피 남자는 밥값 정도는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온다. 식사를 잘 했으면 “맛있게 잘 먹었다”라고 어필해주는 정도면 충분하다. 이후 커피값을 당신이 내려고 해도 가끔 거래처 사람에게 밥 사듯

굳이 오버하며 “커피값도 내가 낸다”는 남자들이 꽤 있다. 이럴 때 바둑바둑 우기며 굳이 카드를 내밀어도 거부감을 느끼진 않는다. 남자들 역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지출은 예상하고 오니까.

→ 첫 만남에서 뭐든 사 주면 좋아한다.

고집부리는 게 아니라면 뭘 사 주는 여자는 무조건 호감형이다. 남자가 커피값마저 끈이끈대로 내려고 한다면 민망한 척하면서 “조각 케이크라도 먹을래요?”라든가(어차피 안 먹을 거다), “다음에 만나면 제가 살게요”라고 은근슬쩍 애프터의 여자를 던져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사소한 걸 캐치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사실 남자는 “다음에 만나면”이라는 한마디에 고환이 두근거릴지도 모른다.

Q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남자들이 좋아할까?

A. 그저 잘 웃어주지만 해도 남자들은 병신같이 좋아한다. 만약 남자가 때려죽이고 싶을 정도로 재미없는 농담을 던져도 실심할 것처럼 웃어주는 것이 포인트. 남자는 자기가 뭘 소리를 해도 잘 웃어주는 여자에게 금방 빠져든다. 만약 그 얘기가 정말로 재미있어서 웃었다고 해도 남자는 ‘내 얘기가 재밌어서라기보다는 ‘내가 호감이라서’라고 착각하니까.

→ 대화는 틀이 하는 것, 분위기도 함께 푸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 남자는 분위기를 톺아내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늘어놓을 거다. 대화의 흐름이 중간에 끊기는 어색한 순간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아득바득 질문을 이어가는데, 여자가 말이 너무 없다면 약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성심성의껏 대답해주는 동시에 “그럼 남은 취미가 뭔데요?”처럼 되묻기 스킬을 시전하라. 남자는 자신에 대해 궁금증을 보이는 여자에게 호감을 느낀다. ‘관심이 없으면 궁금하지도 않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남자라고 모를 리 없으니까 말이다.



카멜의 진화를 기념

1913년부터 100년 동안 카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진화해 온 이 시대의 진정한 아이콘이다.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니코틴, 타르, 벤젠, 비닐콜로이드, 비스,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CAMEL FILTERS 타르 8.0mg/니코틴 0.70mg
CAMEL LIGHTS 타르 6.0mg/니코틴 0.50mg
CAMEL SUPER LIGHTS 타르 3.0mg/니코틴 0.30mg

For Ladies

애프터 공략

애프터 신청은 남자의 몫이 아닐까? 연락이 안 오는 걸 보니 망한 건가?

A. 응, 당신 망했다. 솔직히 이미 소개팅 자리에서 게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당신이 마음에 들었다면 남자들은 이미 진작 소개팅 자리에서 떡밥을 던져 당신과의 재회를 기억했을 거다. 아니면 당신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연락이 왔을 거다.

→ 그래도 연락을 기다린다면, 데드라인은 이를 만약 당신이 주말을 이용해 그 남자를 만났다면 바쁘고 정신없는 월요일까지 연락이 없는 건 이해해준다. 사실 여기까지 볼 것도 없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바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 후에도 연락이 없다면 그냥 포기하라.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을 했는데 씁스대거나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게임 오버.

당신: 밥 먹었어요? / 남자: 네! 먹었죠, 날씨가 좋네요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 이리하면 멸망.

술을 마시러 왔는데 많이 마셔도 될까? 남자들은 술을 잘 마시는 여자를 정말로 좋아하나?

A. 술을 '잘 마시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남자들에게 '술을 잘 마시는 여자'란 혹여나 있을 다른 남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사고를 안 칠 것 같은 '믿음직한 여자'고, '술을 좋아하는 여자'란 다른 남자들과 있으면 진탕 술파티를 벌이며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불안한 여자'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친구로 삼기에 경계하는 여자는 '술을 좋아하는 여자'라는 소리다.

→ 주량을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주사는 금물 그와 술자리를 하게 된다면 '잘 마시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술에 못 이겨 취한대거나 주사를 부리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적절히 조절하자. 물론 술에 취하는 음흉한 목적이 굳이 당신에게 따로 있다면야 말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지인을 통해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는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다르다. 어차피 첫 만남이라면 양아치가 아닌 이상 백이면 백 집에 데려다줄 테니 쓸데없는 기대 말고 끝까지 정신 차려서 두 발로 걸어가자.

남자들은 잘 먹는 여자를 좋아한다던데, 진짜 나온 음식 다 먹어도 될까?

A. 잘 먹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빈말이 아니다. 이걸 당신이 말랐든지 뚱뚱하든지 상관없다...는 건 아니지만(그런건 비단 밥 먹을 때만 보이는 게 아니니까), 맛있게 잘 먹도록 하자. 맛없게 깨작거리다가 포크를 놓고 "배부르다"라고 말한다 해서 호감형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 내속은 파스타 처먹던 첫 번째로 충분하다. 첫 번째 만남에서 샐러드를 남남 깨작거리던 기억 때문에 와구와구 먹기가 창피하다고? 여자가 직접 만들어준 음식을 잘 먹는 남자가 호감형인 것처럼, 사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여자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를 뿌듯하게 만드는 법. 어차피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 애프터를 신청한 남자라면, 당신이 추어탕 그릇을 기울여 바닥까지 긁어 먹는 모습조차 사랑스러워 보일 거다. 맛있게 먹자.

아무리 좋아도 남녀사이에 밀당은 있어야겠지? 꼬박꼬박 답장하면 매력이 떨어지나?

A. 재미있고 긴장감 있게 한 번에 떠밀리고 싶으면 실컷 그래도 좋다. 밀당은 상대방이 얼마나 당신이 마음에 들었는지에 따라 적당한 수위 조절이 필요한 법. 어쭙잖은 포지션에서 과도한 밀당을 시전하는 건 자폭과 다름없다. 해도 되는 푸시가 있고 삼갈 푸시가 있다는 얘기가. 남자 중에는 밀당을 시전했을 때 '요것 봐라'라면서 흥미를 갖는 타입, '니가 뭔데?' 라면서 학을 떼는 타입 그리고 '어쩌지?'"라고 하며 허둥대는 호구 타입이 있다.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모두가 싫어하는 것은 삼가는 게 좋다.

→ 괜한 오바는 남아 있던 정마저 떨어지게 한다. '문자 답장 늦게 하기', '약속 시간에 좀 늦기', '연락한다고 해놓고 안 하기' 정도는 남자 쪽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면서 살짝 똥죽 타게 만드는 좋은 푸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카톡 프로필에 다른 남자와 음주자음을 즐기며 팔라가 된 사진을 올린대거나, SNS에서 친구가 되어놓고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등 과도한 푸시는 그저 '어장 관리'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성 친구가 많다는 걸 어필하는 것은 남자에게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방법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아예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일어서 조심하도록 하자. 남자에게 밀당과 어장 관리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세 번째 만났는데도 진전이 없으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A. 확신이 없는 것과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르다. 남자가 확신이 없다는 건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게 맞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이 여자도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에 대한 확신이라는 걸 알아두도록. 모든 남자가 되든 안 되는 질러보는 화끈한 성격이라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훈훈한 남자도 가득 차 있지는 않다. 반대로 손가락 꼼지락대며 고민하는 남자를 귀엽게 여기는 타입이라면 당신은 사서 고생 좀 할 거다. 이런 남자라면 당신이 고백만 안 했다 뿐이지 단 둘이 놀러 가자고 해도 손가락이나 빨고 있을 테니까. 성격이 우유부단한 남자일수록 내 남자 만들기가 더 힘든 법이다.

좋은 떡밥을 던지면 물고기는 결국 걸리게 마련이다.

어차피 세 번씩이나 만났다면 그도 당신에게 호감이 없진 않다. 하지만 됐다 싶어도 소식이 없다면 주선자를 떠보자. "나는 개가 관음인데... 그냥 아무 얘기가 없는 걸 보니 그냥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 흐지부지되겠지?"라고 살짝 어필해주면 주선자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남자 역시 "나 네가 좋아. 사귀자"라는 말을 여자에게서 직접 듣는 것보다는 은근슬쩍 들어온 정보에 콧김을 내뿜으며 흥분하게 마련. 밀밥을 뿌렸으면 이제 실렁실렁 기다리며 여유를 가져도 좋다. 아마 곧 그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올 테니까. "어디야? 잠만 불래?" ☹

PLUS TIP

주선자의 성향 파악하기

주선자의 성향에 따라 당신의 소개팅이 쉽게 성사될 수도 있고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1. 호들갑형 주선자

둘이 잘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난 타입. 둘의 만남 이후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계속 서로의 브리핑을 들으려 한다. 이런 주선자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됐다 싶으면 "이제 대신할 타이밍이다"라며 남자에게 타이밍 러시를 권고하는 타입이니, 쉽게 소개팅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재미는 좀 떨어질걸?



2. 방관형 주선자

"난 너희를 소개해줬으니 너네가 알아서 해" 하는 타입. 이런 주선자는 그냥 번호 하나 툭 던져주고 이에 잠수를 타버린다. 혹시나 당신이 물으려고 해도 "나도 잘 몰라. 개강 따로 연락 안 하거든"이라며 방관하는 무책임한 주선자다. 이럴 땐 당신이 알아서 고백을 이끌어내는 편이 좋겠다.



3. 재미추구형 주선자

호들갑형 주선자의 성향을 갖고 있으나 절대로 밖으로 내뽐지 않는다. 양쪽의 호감도를 블럭처럼 죄다 빨아들여놓고 가운데에서 사실상 쪼개며 "어떻게 되나 보지"라며 로맨틱 코미디를 즐기는 타입. 하지만 정말 이리다 잘될 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단서를 특목 던지기도 하니 놓치지 말고 잘 주워 먹자.



EVERY
CAMEL
TELLS A
STORY



100 YEARS OF CREATIVITY
BE PART OF THE STORY
카멜 특별 한정판 컬렉션



Walk a Mile

Birth of an Icon

Evolution of an Icon

Camel Sound

2,500원

100 YEARS OF
INSPIRING
CREATIVITY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CAMEL FILTERS
CAMEL LIGHTS
CAMEL SUPER LIGHTS

타르 8.0mg/니코틴 0.70mg
타르 6.0mg/니코틴 0.50mg
타르 3.0mg/니코틴 0.30mg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에 대한 7가지 편견과 진실

국민요정 손연재의 리본 연기를 보면서
두루마리 휴지를 리본처럼 흔들고 던지던
삼촌팬들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BY 김덕중(엑스포츠 뉴스 기자)



→ **바야흐로 연재의 시대**

체조 선수 손연재(19, 연세대)의 환한 미소를 우린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 자연스럽게 마주친다. 그녀를 보지 않고 상가나 백화점을 거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각종 전자 제품, 모바일 기기 그리고 스포츠 의류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손연재의 모습이 끊임없이 시야에 들어올 때면, 새삼 그녀가 보통의 스포츠 스타를 넘어서는 인기와 관심을 받는 ‘국민 요정’이라는 걸 인식한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국민 요정’ 손연재에 관한 기사가 쏟아진다. TV를 틀면 요구르트, 생리대, 운동화, 에어콘에 이르기까지 여러 CF에서 손연재의 애교를 볼 수 있다. 6세의 어린 나이에 리듬체조를 시작한 한 소녀는 어느새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스타가 되었다. 그녀의 존재감이 단지 귀여운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리듬체조의 불모지이던 한국에서 손연재의 화려한 동작 하나 하나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 리듬체조 사상 첫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 대회 메달 획득과 최초의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 그리고 올림픽 최고 성적(2012 런던 올림픽 5위)은 모두

→ **손연재**

소속: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13학번
태어난 곳: 서울
생년월일: 1994년 5월 28일
체격: 키 165cm, 몸무게 37kg

이 작은 소녀가 이룩한 성과다. 올 시즌도 그녀의 발돋움은 거침이 없다. 손연재는 한국 리듬체조에 최초의 월드컵 은메달을 안겼다. 4월 28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페사로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 리본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것. 동유럽 선수들의 전유물로 여겨온 리듬체조계에 극동 아시아 출신인 손연재가 '작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오는 6월에는 리듬체조 갈라쇼에 참여하고, 올여름에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개최하는 세계 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대단한 '국민 요정'에 대해 우리 얼마나 알고 있나? 이번 달엔 손연재에 대한 일곱 가지 편견과 진실을 파헤쳐보자.

1. 런던 올림픽 때와 비교해 체중이 불었다?

런던 올림픽을 마친 뒤 비시즌을 보내면서 체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체중 조절에 들어갔고, 현재는 지난해와 비슷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 4월에는 첫 월드컵을 앞두고 무리하게 체중 감량을 하다가 구토 증세를 일으켰다. 리듬체조 선수의 경쟁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의 기량을 발전시키는 것과 체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리듬체조 선수가 체중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손연재는 마음껏 음식을 먹지 못한다?

사실이다. 리듬체조를 처음 시작한 여섯살 이후 마음껏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 샐러드와 요구르트 그리고 과일만 거의 주식이 됐고, 군것질은 여전히 '금기'로 남아 있다. 훈련 기간에는 샐러드와 과일 이외에 단백질 섭취를 위해 닭 가슴살과 생선을 먹는다. 하지만 대회 기간에는 오로지 샐러드와 과일 그리고 요구르트만 먹을 뿐이다.

3. 새침한 인상의 그녀, 실제 성격은?

낯을 많이 가린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한번 친해지면 매우 정답게 다가온다. 동료 리듬체조 선수들 사이에서 의리가 있다고 인정 받는다. 그리고 귀여운 인상과 달리 굉장히



독하다. 고집적인 발목 부상 때문에 언제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훈련에 임한다. 그의 측근들은 "아무리 아파도 훈련 할 때는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한다. 정말 독한 모습이 이때 나타난다"라고 입을 모았다.

4. 무남독녀인 그녀는 독립적?

형제 없이 홀로 성장한 손연재는 꽤 독립적이다.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혼자 해왔기 때문에 타지인 러시아 모스크바에 적응하는 일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외로움은 많이 탄다. 모스크바에서도 함께 훈련하는 외국 선수들과 친해지기 위해 러시아어를 공부했다. 어릴 때 부터 외국어 공부에 관심이 있던터라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를 독학했다. 현재 손연재의 외국어 구사 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5. '피겨 여왕' 김연아와는 어떤 사이?

한때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만큼 친한 사이다. 지금은 각기 다른 소속사에 있지만 이 둘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서로 바쁜 스케줄 때문에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지는 못하지만 두사람은 친분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10년 김연아의 아이스 쇼가 열릴 때는 평소 친분이 있는 피겨 선수들과 쇼를 관람하기 위해 직접 공연장을 찾았다.

6. 그녀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은?

여중생 시절부터 빅뱅을 변함없이 좋아하고 있다. 비스트도 좋아해 웬만한 신곡은 챙겨 듣는다. 모스크바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낼 때는 국내 최신 가요를 듣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7. 그녀의 궁극적인 꿈은?

올림픽 메달 획득 같은 결과물이 아니다. 손연재는 이미 16세 때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보다 언제나 내 연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꿈이다. 많은 분이 내 연기를 보고 감동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리듬체조 없는 손연재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리듬체조에 열정을 쏟아 붓겠다는 그녀는 "한국에서 리듬체조가 인기 종목이 되는 것도 나의 꿈이다" 라고 밝혔다.

이제 국민 요정과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빠는 성 빼고 그냥 '연재' 라고 부를게.



숫자로 보는 리듬체조

1,000

일본에선 남자 농들이 리듬체조를 한다. 2002년 일본 남자 리듬체조 선수는 약 1천 명으로 집계됐다. 네네 그러지 좀 마 진짜! (사실 한국에도 리듬체조 남자 선수가 있다. 공식대회는 없다.)

3 기구는 금, 은, 청동색의 3색을 쓸 수 없다. 그 외엔 색깔에 제한이 없다.

5 현대 리듬체조는 로프, 후프, 공, 리본, 곤봉의 5개 도구를 사용한다.

13 리듬체조 선수가 뛰는 시각 경기장의 1면 길이는 13m다. 금 밭으면 감점!

2 올림픽 종목 중 유일하게 여자만 출전할 수 있는 두 종목 중 하나가 리듬체조. 나머지 하나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다. 남자들이 꼴꼴이 입을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인류의 염원이 담겨 있다.



MAXIM판
비키의
가상예보!





☾ ☾ ☾

The Forecast is... Very HOT!

★ 비키 ★

달샤벳을 떠나 웨더자키로 당당히 홀로서기한 미녀 비키가
촬영 현장에 나타나자 수은주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BY 김희성 WORDS 조용재



Viki

본명 강은혜

생일 3월 28일

신체 172cm, 50kg

좋아하는 음식 고기, 초콜릿



세상에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예쁘다!
고맙다. 다들 실물이 더 낫다고 한다.(웃음)
사진보다 화면질이 잘 안 받아서 속상하다.

방송 캡처에서는 눈이 풀린 것 같다는 얘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푹푹푹푹하다니!
눈 성형을 하지 않아서인지 성형외과에서
제안을 많이 받았다.(웃음) 눈에 힘을 줘야
화면이나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데, 방송에서
잠깐이라도 눈에 힘을 빼면 땀한 표정이
되어버리니까 말이다. 실물이 괜찮다는 걸
MAXIM이 날리날리 알려줬으면 좋겠다.(웃음)

MAXIM과 오늘 촬영한 소감이 궁금하다.

오늘 촬영 어땠나?

나조차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발견한 것
같아 무척 재미있었다. 스태프분들도 친절하게
잡해주셔서 좋았다.



**오늘 입은 의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뭔가?**

오피스 룩! 핫팬츠나 짧은 상의 같은 건 걸그룹
할 때도 많이 입어봤는데 정상 스타일의 옷은
처음 입어봤다. 기상예보할 때도 정장을 입진
않으니까 말이다. 마치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우리는 그때 왜 당신을 부르지 않았는지
한편으로 후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게 말이다. 나를 미워했나 보다(웃음)

**강은혜라는 예쁜 본명을 놔두고 어쩌서
비키라는 예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나?**

8년간의 연습 생활 동안 빅토리아라는
예명을 사용했다. 비키(Viki)라는 예명은 그
줄임말인데,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이름이고
주변 사람들도 다 나를 그렇게 불렀다. 그
이름이 나와 굉장히 잘 맞고 잘 풀리는
이름이라고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요즘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 아무래도 걸그룹
때와는 많이 다르지?**

매일 출퇴근하는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회사원이라고나 할까?(웃음) 회사 식구들이
무척 잘해주셔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참고로 나는 사회1부
소속이다. 최근에 화식도 했다! 화식이라니!
뭔가 색다른 경험이었다.

반지와 팔찌 어거스트하모니

당신이 직장인이 되었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앞으로 계속 웨더자키 일에 전념할 생각인가?

일단은 그렇다. 하지만 곧 뮤직드라마에 출연할 예정이라 최근에는 연기 수업도 받고 있다. 촬영에 들어가 바빠질 예정이다. 게다가 가수의 꿈을 아직 버린 게 아니라서... 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욕심쟁이다(웃음)

웨더자키를 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취미나 특기가 생겼을 것 같은데?

여전히 내 특기는 춤과 노래지만, 이제는 날씨를 스스로 읽을 줄 알게 됐다.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날의 일기예보를 기상 캐스터들이 직접 작성하더라고. 방재센터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대부분을 쓰는데, 처음엔 거의 선배들에게 의지했지만 요즘은 내가 거의 다 쓴다.

평소에는 어디서 뭘 하나?

카페에 가는 걸 좋아한다. 친구 얼굴 보면서 수다를 떨고 서로 고민 상담도 해주고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 고민을 나눴을 때 진정한 친구가 되는 느낌? 나는 굉장한 의리파다!

신기하다. 이번 달 또 다른 표지 모델이 바로 의리의 아이콘, 배우 김보성 씨인데 말이다.

진짜로? 몰랐다(웃음)

초콜릿을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다.

예전부터 유명했다.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 예전 팬들은 날더러 '초키'라고 불렀다. 당시 다른 멤버들은 선물이 다양했는데, 나는 초코 우유, 초코 과자, 초콜릿만 엄청 받았다! 살짝 질릴 뻔한 적도 있었지. (웃음)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 웨더자키답게 날씨로 표현해보자.

최근에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를 보다가 김강우 씨에게 푹 빠졌다. 자기 아내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아직도 설레고 좋다는 그 모습이 멋지더라. 자기 여자만을 위해 사는 남자라니... 그런 남자는 아주 많은 날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내 남자는 아니지만(웃음)

남들에게 없는 본인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내 입으로 말하긴 참으로 오글거리지만, 난 청순할 수도 있고, 귀여울 수도 있고, 섹시할 수도 있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때, 때리진 때(웃음)

인정한다! 팔색조 같은 여자라서 연예계 마당발이 되었나 보다.

마당발이라고보다 친한 걸그룹 멤버들이 많은 편이다. 오랫동안 연습생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지. 나인뮤지스의 성아, 세라 언니 등등... 그리고 보니 모두 MAXIM 표지 모델 출신이네?

우리도 신기할 따름이다. 손성아 양과 친할 줄은 정말 몰랐다.

엄청 친하다. 얼마 전에 성아한테 보고 싶다는 전화도 왔었거든. "언니는 우리 그룹에 있었어야 해"라면서 말이다.(웃음) 예전에 흥대에 있는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며 친해졌다. 정말 자매처럼 지냈다. 아마 살면서 그때와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예전에 나인뮤지스의 세라 양이 표지 모델로 나와 우리와 인터뷰했을 때 당신을 라이벌로 꼽았다.

당연히 읽어봤지(웃음) 팬이 사진 찍어서 올려준 걸 보고 다 읽었다. 숨에 MAXIM이 있어서 가끔 읽는데 친한 동료가 나오면 뭔가 웃긴다. 왜 예쁘고 안 예쁜 걸 떠나서 아는 사람이 나오면 오글거리는 거 있잖아. (웃음)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MAXIM이란 어떤 잡지인가?

여자들이 패션지를 보며 열광하듯, 남자들에게 MAXIM 역시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다.

웨더자키가 가수보다 힘든 점이 있다면?

아이돌 시절엔 사소한 실수를 해도 귀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일은 진지한 뉴스라서 그런지 긴장이 많이 된다.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팔찌: 어거스트하모니
구두: 슈조월

“

난 귀여움과 청순함,
그리고 섹시한 버전까지
모두 가능한 여자다.

”



빙글 액세서라이즈
구두 슈즈원
틀림 의자 Knoll, (주)유오스 수입

기상 예보 리포터로서의 웨더자키 비키만이 갖고 있는 강점은 뭐가 있을까?

날씨를 전하며 손동작을 많이 사용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도 손동작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라고 주변에서 얘기한다. 그리고 나름대로 아이템을 한 가지씩 넣는다. 예컨대 “내일 비가 오니까 레인부츠를 준비하세요~”라고 하면서 레인부츠를 신는다던가... 이런 게 나름의 강점이 아닐까?

장마라도 왔다면 아주 큰일나겠다. 그러다 소재 고갈이 오면 어떡하나?

맨날 레인부츠, 우산, 레인코트를 반복하다 보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럴 땐 선배님들께 SOS를 쳐서 답을 찾는 편이다. 여러 가지 더 해 봐야지.(웃음)

전직하고 나서 팬들 혹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니가 어떻게 9시 뉴스에 나오냐”며 놀랐다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잘 챙겨본다. (웃음) 오히려 친구의 남자친구들이 더 챙겨본다며 질투도 하더라. 부모님들도 매일매일 날 볼 수 있다며 좋아하신다. 팬층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무려 삼촌 팬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팬들도 생겼다고 하더라(웃음).

홀로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혼자 활동하는 것의 장단점이 있다면?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나 예전처럼 MAXIM 촬영에서 밀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웃음) 일단 촬영을 할 때 대기 시간이 확 줄었다는 점은 확실히 편하다. 하지만 역시 내 편이 없다는 느낌? 촬영장에서 응원해주는 멤버도 없고, 이동할 때도 혼자라 허전하고, 그런 건 참 아쉽다.

외롭다니, 일기예보를 진행할 때 남자 한 명 불러 주고 싶다! 누구를 옆에 두고 싶은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역시 강우 오빠 같은 남자랄까...?

유부남인데 상관없나?

그런 어쩔 수 없지. 그런 남자가 또 있다면야 모를까.(웃음)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한다!

남성지에 나오는 만큼 많은 남성분들이 저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그리고 MAXIM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니,
이런 능력어?



33

인의 한반도 히어로즈 그 놀라운 이야기

이제 <아이언맨>에 더 이상 열광할 필요 없다. 수입형 R8 아우디 가마를
끌고 하늘을 날며, 눈에서 레이저빔을 쏘고 메테오를 소환해 적을
무찌르는 무적의 조선 히어로들이 있으니까. 토니 스타크가 뭐시여?

옆집 김서방네 종놈이여?



BY 조웅재 ILLUSTRATION 장재혁



통술 88
무력 82
지력 70
정치 90



조선의 신궁(神弓), 이성계

〈반지의 제왕〉에 레골라스가 있다면 조선 왕조에는 이성계가 있었으니, '조선의 신궁(神弓)'이라 불린 그의 활 실력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한번은 전장에서 화살이 적장의 투구를 뚫지 못하자 그를 향해 연속으로 두 발을 쏘았는데, 첫 번째 화살이 투구를 벗겼고, 두 번째 화살이 놀란 적장의 입 안에 꽂혔다 한다. 그 외에도 의주 전투에서 승리한 이성계가 "오늘 내가 맞춘 적들을 실패보라"고 해서 부하들이 죽은 적병들을 실패 보니 모두 왼쪽 눈에만 화살이 박혀 있었다는 카리스마 넘치는 일화도 전해진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뻥이 가지.

2. 히드라가 된 뮤탈리스크 채동지

조선시대의 기인 중에는 채동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날아다니는 데다 힘까지 세서 그의 기동력을 두려워한 조정 대신들이 날개를 분질러버린다. 졸지에 지상군이 된 그는 능력을 잃고 패잔병처럼 근신하며 밥을 빌어먹고

다녔는데, 매 까마다 쌀을 한 말씩 축내 민폐를 끼쳤다고 한다. 대신 그의 침은 만병통치약이라 아픈 아이들이 먹으면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아, 더러워.



3. 조선의 밥 아저씨, 이서방

그림을 사물로 불러내는 재주가 있던 그는 그림을 그려 돈을 찍어 내다가 조정에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임금 앞으로 끌려간다.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 주겠다"는 임금의 얘기에 "거 그림이나 그리시다" 하고 종이에 금강산을 배경으로 당나귀 한 마리를 그린다. 곧 그는 "당나귀,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 번 타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선 그림 속으로 들어가 당나귀를 타고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4. 메테오를 소환한 김유신

신라의 히어로 김유신 장군에 얽힌 일화 중에는 시공을 초월한 판타지가 한 편 전해져 내려온다. 어느 날, 경주 성부산 신단에서 그가 주문을 외자 갑자기 커다란 장독만한 빛이 떠오르더니 남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그 빛은 곧 충남 한산성까지 날아가 적진을 격파하고 적군들을 쓰러뜨렸으니, 한산성에서 고전하던 아군을 무사히 퇴각시켰다는 이야기다. 이 설화와 함께 〈삼국유사〉 편찬에 J.R.R 톨킨이 개입했을 거라는 음모론도 함께 전해진다.

출처



J.R.R. 톨킨



거북이와 두루미!

5. 장수의 아이콘, 동방삭

죽을 운명이었던 동방삭은 저승사자의 눈을 피해 잔피를 부려 동명이인을 저승으로 보내버렸다. 이게 잘 먹어서 신이 낫는지 계속해서 요리조리 도망을 다니며 살아남은 그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의미의 '삼천갑자'라는 타이틀을 따 낸다. 그러던 어느 날 냇가에서 일부러 동방삭을 꼬드기기 위해 숯을 싣고 있던 저승사자를 본 그는 "하.. 내 삼천갑자를 살면서 숯을 싣는 병신은 처음 보네ㅋㅋ"라며 자폭 드립을 날리고 마는데.. 기록엔 없지만 이 때 잡힌 동방삭은 아마 지 나이만큼 후두려 맞았을 거다.

6. 고려 시대의 여포, 유금필

척준경과 함께 고려시대를 대표하던 일당백 장군 중 하나. 서경 전투에서 쌍검을 든 채 말을 타고 성문을 돌파했으며, 서라벌 전투에서는 별동대 80명과 함께 백제군을 종이뜨기처럼 찢어 발라버리고 순식간에 입성한다. 이후 7일 동안 성에 머물며 생각날 때쯤 특 튀어나와 우두머리만 골라 생포해 왔는데, 이 때 단독으로 생포한 장수의 수가 무려 일곱 명이었다고 한다. 아마 현세에 태어났으면 인형뽑기의 달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통술 88
무력 80
지력 70
정치 68

七

남자는 붉은 간지, 레드 옴즈 광재우

왜란 당시 활동하던 문인 출신의 의병장 광재우는 항상 붉은 색 옷을 입고 다녀 '홍의장군'이라 불렸다. 활이 조총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그는 적의 시야 밖에서 이군 부대가 적진을 향해 고각사를 뿌리면, 화살 비가 왜군 정수리에 꽂힐 때까지 발생하는 시간차를 이용해 토끼는 전번 '포트리스'를 사용했다. 항간에는 성격과 옷을 잘못꿨다는 설이 있는데, 의병들이 모인 엄숙한 자리에서 친구가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깨자 그를 단숨에 베어버렸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대의를 위해 의리를 희생하더니! 보성 형님이 보면 분노하시겠네.



八

지상 최강의 파이터, 척준경

헤비 머신 건 같은 살상력을 자랑하던 고려의 살아 있는 저승사자. 대 여진족 전투에서 고려군이 퇴각 위기에 빠지자 그는 "말이랑 무기 좀 주시오"라 자칭하고 홀로 뛰쳐나가 순식간에 적장 3명의 목을 베어버린다. 맨손으로 성벽을 타고 올라가 문을 뚫다는 공성전 원맨쇼부터 1,000명의 적병 사이로 뛰어들어 적장을 베어버렸다는 무쌍난무까지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자랑하던 고려의 명장.



통술 69
무력 97
지력 66
정치 50

9. 문과생 최후의 희망, 정복창

천재 정복창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했으며 이미 유년기 때부터 유, 불, 선 3교에 능통했다고. 심지어 오랑캐의 말조차 한 번 들으면 쉽게 익힐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니 이런 니취필리마. 한양 8서당군 학부모들이 자식들 좀 들볶았겠다. 가끔 사람이 아니라 설이 전해지는 것은, 아마도 그의 탈인간급 학습 능력을 질투한 동년배들의 모함이었을까.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10. 용봉산과 백월산의 호구 장수

나라히 위치한 용봉산과 백월산에는 각각 장수 한 명씩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아랫마을 고을에 살던 '소항'이라는 처녀를 두고 매일 사랑의 들팔매질을 했다. 아마 백월산 장수가 더 젊었는지 용봉산에는 돌이 미친 듯이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 용봉산은 돌산이, 백월산은 민둥산이 되었다. 하지만 누가 소항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전해지지 않는다. 예쁜 후배 두고 과방 어지르며 피티치게 싸우던 옛 선배들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十一

라이트 형제보다 앞선 조선의 파일럿, 정평구

정평구는 임진왜란 때 김시민 목사 아래에서 화약을 다루던 공물이 출신으로, 항공 소재공학 및 화학공학에 능통해 하늘을 나는 수레, 비차(飛車)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왜란 때 민주성이 왜군에게 포위되자 그가 만든 비차가 30리를 날아 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탈출시켰으며, 심지어 그가 직접 비차를 타고 왜군 진영에 폭격을 했다는 설도 전해진다.



통솔 61
무력 73
지력 93
정치 60



12. 철 없는 도사 전우치

조선시대의 유명한 도인으로, 비슷한 시기의 슈퍼 히어로 흥길동과 자주 비교가 된다. 하지만 흥길동이 울도국까지 세위가며 왕노릇을 할 때 이쪽은 밥알로 나비를 만들어 좋다고 깔깔대고 있었다. 난세의 영웅들이 한 번씩 한다는 '국고 털기 세리머니'를 저지른 이력도 있으나, 특하면 과부를 납치하는 등 영웅이라기보다는 자기 끌리는 대로 살던 기인(奇人)이었다.

13. 정통 마법사의 후예 윤세평

중국에서 이인을 만나 정통 마법을 배운 무인 출신 재상. 도술을 사용하는 사파 찌꼬레기 전우치와 속적 관계로, 전우치 역시 그의 마법을 더러 "내 환술이 찌질방 식해라면 윤세평의 마법은 비락 식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훗날 전우치는 윤세평의 괴로 아내에게 개죽음을 당한다. 역시 눈속임 따위로는 대마법사를 이길 순 없는 법.

폭탄의 최우선이다.
얼굴과는 관계없다.



통솔 79
무력 85
지력 77
정치 63

十五

대담무쌍 조선 봄버맨 최무선

14세기 중엽, 일본의 잦은 침략으로 국내 폭탄 수요가 늘어나자, 자체적으로 폭탄 생산 연구에 뛰어들어 기술자, 심지어 무관 출신이라 화약을 기마술에 넣고 끓이는 등 무모한 실험을 서슴지 않았다. 체대생이 매일 염산과 클로로포름으로 실험을 한 셈. 이에 그의 중국인 친구 아원이 "이 놈 이리다 죽겠구나" 싶어 폭탄 제조법 노하우를 몰래 전수해 준다.(혹시 이 사람 일부러... 천재네?) 그 덕에 그는 총포, 발사류, 로켓 병기 등 총 18종의 화학 무기를 만들어 일본 선박을 격퇴하는 쾌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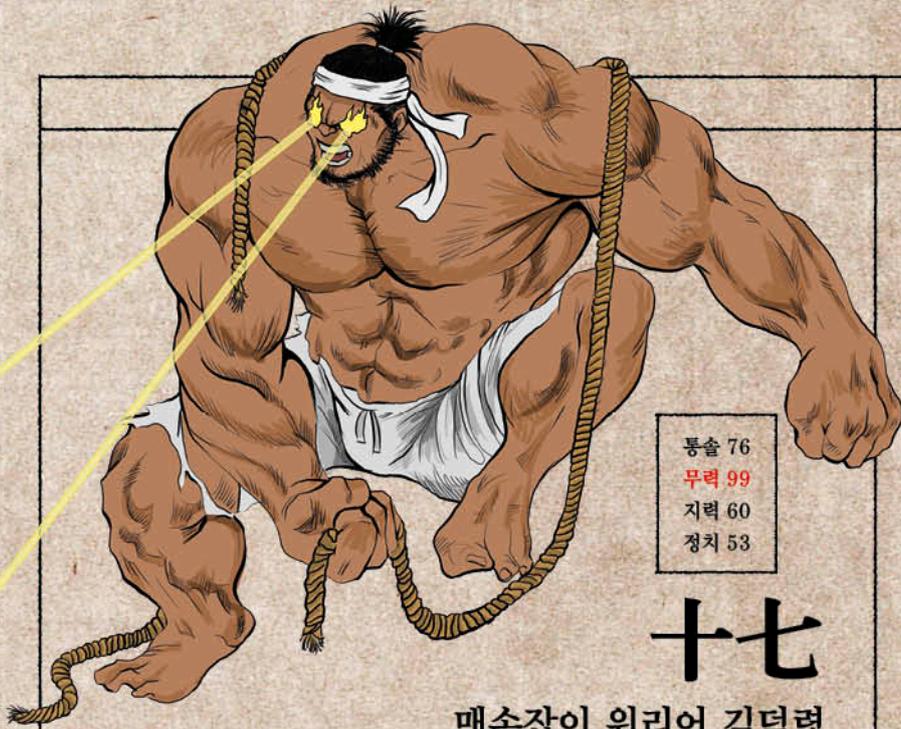
14. 멧을 좀 아는 도적 일지매

의적으로 잘 알려진 일지매는 처마와 처마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넘고 벽에 숨어 모습을 감추는 등 도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그 역시 탐관오리들의 재산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퍼부어 주며 '애네 꺼 너네 꺼'라는 봉사 정신을 발휘했다. 특이했던 점은 자신의 혐의를 다른 사람들이 덮어쓰지 않도록 매화 한 가지(一枝梅) 모양의 표식을 만들어 현장에 찍고 바림처럼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런 로맨틱한 도둑 같으나, 여자들이 단순히 이준기라서 반한 건 아니었나 보다.

16. 조선의 정자왕 김생

소금장수인 김생은 전국을 돌며 과부들과 동침을 했는데, 정력이 좋아 1되 팔 소금을 2되씩 사게 만드는 효율적인 영업(奏)질을 했다. 의리 형님 못지 않은 정자 보유량으로 인해 조선 팔도에 그의 자식들이 가득해 아들만 83명이었다고 한다. 그는 소금(및 정자) 판매 사업으로 모은 돈으로 집을 지어 자식들을 불러 모아 일꾼으로 썼고, 소문난 땅부자가 되었다 한다. 정자 부자=여자 부자=자식 부자=땅 부자?





통술 76
 무력 99
 지력 60
 정치 53

十七

맨손잡이 위리어 김덕령

조선시대 인물 중 가장 용맹과 힘이 뛰어났던 자로 알려져 있다. 어린 시절부터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두 발이 묶인 채 자기 키보다 높은 담을 뛰어 넘었다. 심지어 엑스맨 사이클롭스도 아닌데, 한 번 화가 나면 눈에서 십 리까지 밝히는 빛을 뿜었다고 한다. 훗날 의병을 일으켜 활동하다 역적으로 몰려 관아에 끌려가지만, "죄가 있다면 진작에 도망갔다"며 관군이 보는 앞에서 오랏줄을 끊고 담을 넘어 도망갔다가 스스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결국 그는 침수형에 처하게 되나 이번엔 목에서 비늘이 솟아나 칼로 썰리지도, 죽지도 않았다고 이에 그가 "내 충신이었다는 헌판을 걸어 주면 자결하겠다"고 하자 조정어 고을에 '만고충신 김덕령'이라는 헌판을 걸어 주고, 그는 자결해 최후를 맞는다.

18. 성스러운 다이버, 논개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이 함락되었을 때, 6만에 가까운 무고한 백성들이 왜구에게 죽임을 당하고 관료들이 스스로 남강에 몸을 던져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때 진양 출신의 기생이었던 논개는 술자리에서 왜군 적장을 고드겨 버랑에서 함께 춤을 추는 척 유인하다가 갑자기 적장의 허리를 꺼내고 남강으로 백브레이커를 시전, 함께 자결해 버렸다. 반도 여성 히어로의 종결판.



19. 탐라국의 천하여장사

제주도의 옛 이름인 탐라국의 여왕은 어머머만한 천하장사였다. 얼마나 장사였는지 사신이 왔다 하면 죽어서 돌아갔는데, 이유인즉 사신과 늘 동침을 하던 여왕이 뒤척이다 발로 툭 차기만 해도 죽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어떤 사신은 등에 떡 치는 무쇠판을 메고 참을 잔 덕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고 한다. 떡 치는 무쇠판이라니, 어쩌면 떡을 잘 치는 재주로 살아 돌아온 게 아닐까.



전통 떡판

통술 60
 무력 77
 지력 95
 정치 80

二十

조선 원더우먼 박씨 부인

도사 박공의 딸. 하지만 너무 인물이 못나서 남편에게 소박을 당했다가, 3년 후 친가에서 허물을 벗고 초미녀가 된다. 이를 본 남편이 사죄를 하고 재결합을 제안하는데 그걸 받아 준 킹왕짱 오브 대인배. 훗날 청나라군이 조선에 쳐들어왔을 때 신성한 도술로 청나라 군사들을 소탕하고 포로가 된 중전과 세자를 구출해 한양으로 돌아오는 쾌거를 이룬다. 역시 예쁜 여자가 뭘 해도 잘 하는 법이구나.



21. 조선의 마타 하리, 어우동

기생이라 알려진 것과는 달리 양반집 규수였던 그녀는 풀리는대로 섹스를 즐겨, 한 번 눈이 돌아가면 근친도 마다하지 않았던 조선판 서큐버스였다. 수백 명과 잠자리를 한 그녀는 '어우동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후 조선 최대의 스캔들인 '어우동 게이트'가 터져 왕실이 뒤집어진다. 조정의 대신들간, 심지어 부자지간까지 구명동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벼슬아치들의 모가지가 싸그리 날아갔다고.



우동 먹고 갈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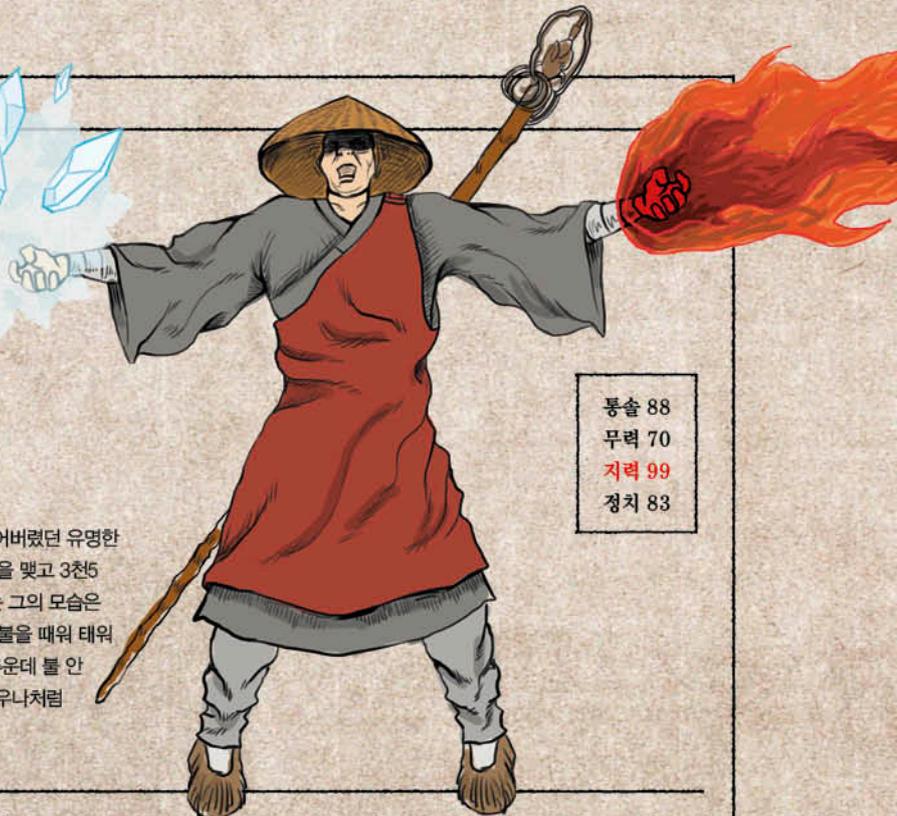
22. 변태형 트랜스포머 국사철

그는 둔갑술을 구사해 늘 지백에 빠져 있었다. 하루는 미녀를 발견하고 파리로 둔갑해 그녀의 요강에 숨었다가 엉덩이가 내려앉아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만다. 알고 보니 미녀 역시 도인이라 그를 알아챘던 것. 결국 그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풀려난 뒤 겸손한 삶을 살았다 한다. 여기서 나온 말이 "나는 놈 위에 싸는 놈 있다"라고..

二十三

조선의 원소마스터 사명대사

임진왜란 당시 승려 클래스 파티를 모집해 부처님의 힘으로 왜구를 썰어버렸던 유명한 승려. 전쟁이 끝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직접 대면해 대일 강화조약을 맺고 3천5백 명의 포로를 데리고 오는 큰 공을 세웠다. 심지어 야사에서 그려지는 그의 모습은 간달프 그 자체. 하루는 왜구들이 그가 묵는 방을 걸어 잠그고 수 시간 불을 때워 태워 죽이려 했으나, 문을 열자 방 안에 고드름이 맺혀 있었다고 한다. "거 추운데 불 안 때나?"라고 했다고... 반대로 방을 열려 동사시키려 했을 땐 방 안이 사우나처럼 뜨거웠다고. "거 손님이 더워 죽었는데 에어컨도 안 트나?"



통솔 88
무력 70
지력 99
정치 83

아 놔, 돌잡이
해야하는데...



二十四

소환술사 아기장수

그는 태어날 때 부터 허반신이 없는 대신 거드랑이 아래에서 날개가 돋았다고 한다. 탐관오리가 판을 치던 당시 조정 대신들은 이를 수상케 여기고 역적이 될 상이라 하여 우두리 수배령을 내린다. 위험을 감지한 그는 어머니에게 뜬금없이 멧가지 곡식을 볶아 달라 하고 어머니는 곡식을 볶다가 잘 익었나 보려고 콩 한 알을 입에 넣는다. 우두리는 깊은 산에 들어가 받아 온 곡식으로 갑옷과 병사를 소환해 훈련을 하는데, 중간에 포졸들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곡식 병사들이 다 해체된다. 어쩔 수 없이 홀로 뛰어들어가 수십명의 적을 전광석화처럼 쓰러뜨리지만 어머니가 집어먹은 콩 때문에 갑옷이 구멍이 생기는 바람에 화살을 맞고 죽는다.



통솔 90
무력 82
지력 63
정치 53

25. 조선트라다무스, 홍계관
조선 최고의 점쟁이로, 사람의 수명을 신들린 듯 알아맞췄다. 점쟁이를 싫어했던 세조는 트집을 잡으려 작정하고 그를 불러 흰 천을 내밀더니 "여기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그가 "쥐 세 마리용"하고 대답했는데, 천을 걷어 보니 쥐가 한 마리 뿐이었다. 노한 세조가 그를 감옥에 쳐 넣고 죽이려 했으나, 쥐의 배를 갈라달라는 홍계관의 청에 배를 갈라 보니 새끼 두 마리를 배고 있었다고, 결국 세조는 그의 능력이 크게 감탄하며 그를 석방해 준다.



26. 이기면 장평, 꿈수의 제왕 명림답부

PC방에서 만났으면 뒤통수 한 때 후련을법한 고구려의 명장으로 '니가 와 +뒤치기' 전략의 대가였다. 성 안에서 꿈쩍 않는 고구려군을 기다리다 지친 한나라 군사들은 식량 부족으로 굶주려 결국 퇴각하게 되는데, 이 틈을 놓치지 않은 명림답부가 손수 기병을 이끌고 성 밖으로 출전해 뒤치기 작렬! 한국을 싸그리 전멸시킨다. 조금 치사하지만 이기면 장평인 역사에서 그는 영락없는 히어로일 뿐이다.



27. 저승사자 행동대장 강림도령

저승사자는 저마다 하는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 행동대장을 맡은 강림도령은 '적배지'라고 부르는 사자(死者)의 명단을 들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생명 연장의 꿈을 방해했다. 집 주인을 데려가려고 하면 항상 부엌이나 대청마루에 머물고 있는 가내신들이 해방을 놓았는데, 이 때문에 그는 산타클로스처럼 지붕으로 들래 드나들었다고, 죽을 이의 눈 앞에서 이름을 세 번 부르면 영혼이 빠져나와 그를 따른다고 한다.





28. 거인 마고 할미

그녀는 옷을 입고 서해바다를 거닐어도 고쟁이가 찢지 않을 정도로 몸집이 컸다. 그녀가 땅을 파자 눈발이 만들어졌고 오줌을 누자 강이 되었으며, 누워서 땅을 훑자 한라산이 되었고, 독을 खा다



떨어뜨린 돌은 석이 되었다 한다. 아아, 본격 창세 SF물 <단군 앤 마고>가 보고 싶다. 심형래가 망하지만 않았어도...

잘되기 쉬운 줄 알아?

29. 선덕을 갖고 싶었던 불꽃남자 지귀

옛날 신라에 선덕 여왕을 사모하다 미쳐버린 지귀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여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빨갛을 하다 병사들에게 잡혀 가마 뒤를 끌러다니게 되는데, 마침 지쳐 잠든 그를 발견한 여왕이 연민을 느껴 팔찌를 벗어 그의 가슴에 올려 준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그것을 발견하고 가슴이 선덕선덕 뛰다 못해 아크 원자로처럼 타 들어가더니 결국 불귀신이 되었다고 한다.

三十

부석사 건축의 일등공신, 용녀

당나라 워킹홀리데이를 마친 의상대사가 절을 지으려고 신라에 돌아가다 만난 여인. 처음엔 꽃뱀사기를 우려했는지 무시하고 고국에 돌아가는데, 봉황산 절터에서 또 다시 그녀를 마주친다. 알고 보니 절을 짓기로 한 터가 도적의 소굴임을 미리 알았던 그녀는, 의상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동행을 요청했던 것. 곧 그녀는 집채만한 바위를 들고 도적들을 협박했고, 기겁한 도적들이 조용히 절터를 떠나 쉽게 절을 지을 수 있었다.



통술 60
무력 94
지력 87
정치 55

31. 제주도의 수호신 영등할망

오래 전 제주 한우리 마을의 어부들이 낚시를 떠났다가 외눈박이 거인이 사는 섬에 표류된 적이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수호신 영등할망은 이들에게 귀환 주문을 알려 주고, 어부들은 무사히 마을로 돌아온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진격의 거인들이 몹시 박쳐 영등할망을 상대로 고어를 찍었고, 제주 어부들은 할망의 명복을 빌며 매년 음력 2월에 '영등제'를 지내게 되었다.

노인 확대 인식의 날이라며!



三十二

명의를 넘어선 신의(神醫), 김응립

상능의 자식이었던 김응립은 까마귀이었다. 의사는커녕 제 이름도 입을 줄 모르던 그는 놀랍게도 후대에 신의(神醫)로 이름을 날린다. 맥도 짚지 않고 증세도 묻지 않은 채 그저 얼굴만 보고 병세를 알아 맞췄다는 그는 나뭇잎, 종이, 엿 등 민간요법에 가까운 것들을 약으로 처방해 병을 낫게 했다. 눈에서 액스레이를 쏘는 재주라도 있었나 보다.

통술 40
무력 55
지력 98
정치 34



33. 마이티 마우스 (MIGHTY MOUTH) 서희

공포의 군주 광종 앞에서 바른 말 하기로 유명했던 재상 서희의 아들이라 말뚝이 장난 아니었다. 훗날 그는 요나라 소손녕과 100분 토론을 벌여 강동 6주를 날로 따먹는 쾌거를 이룬다.(아, 내 땅 아니거든요! / 소손녕 씨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선비들이 '내각 대신 드림팀' 라인업을 짜며 늘 때면 항상 외교관 예조판서 자리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꼬우면 따지든가.



PUNCH DRUNK LOVE With 1950s 로이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김민종을
짝사랑한 강 변호사. 어리여리한 외모의
그녀는 사실 복싱을 즐기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였다. 자, 다들 그녀의 러브 펀치에
정신을 잃을 준비 단단히 하라고!

BY 손안나 PHOTOGRAPH YuD



First round, first minute



ALI Vs. SON



박아인

생년월일: 1985년 2월 12일
신체 사이즈: 168cm, 47kg
특기: 복싱, 재즈댄스

달고 싶은 액션 배우: 전지현
좋아하는 영화: 왕가위 감독의 모든 영화
자신 있는 신체 부위: 두툼한 입술, 질퍽한 허리

미녀의
몰주머니



브라 톰 험퍼온

4년째 취미로 복싱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여전히 복싱이 재밌다. 헬스가 혼자 외롭게 하는 운동이라면, 복싱은 소속감도 생기고 지루하지 않아서 오래할 수 있다.

편치가 강력하다고 들었다. 남자랑 겨뤄서 이길 자신 있나?

내 몸 하나 지켜낼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배우 이시영처럼 경기에 나가볼 생각은 없나?

에이, 온리 취미 생활이다.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관장님이 아예 복싱 선수로 전향을 요구한 적도 있다. (웃음) 하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난 연기를 하고 싶대!

외모는 도도하고 여성스러운데... 의외다.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맡은 역할 때문에 도도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평소에는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서인지 엉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엉뚱한 편인가?

허당이라고 해야 하나? 물건도 잘 잃어버리고, 잘 넘어지는 편이다. 그래서 무릎에도 상처가 많다.

도도해 보이는데 허당 같은 매력이라니...

남자들이 좋아하겠다.

그런가? 남자들이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다. 진작 알았으면 그걸로 공략해볼 텐데!

영화 <577 프로젝트>에서 하정우,

공효진과 함께 국토대장정을 했다.

처음 며칠은 생각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수행하는 사람처럼 멍하니 걷기만 했다. 잡생각이 안 들어서 좋던데?

다 걷고 나니까 어쩌나 후련하던지. 그때의 멤버들과는 지금도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

<신사의 품격>에서 윤진아와 사랑의

라이벌이었다. 극 중에서는 김민중을 뺏겼지만

'임메아리'보다 '강변'이 나온 점도 있을 텐데...

'강변'이라면 남자를 좀 더 성숙하게 감싸줄 수 있을 것 같다. 좋아하는데도 뉘준 걸 보래!

<신사의 품격>의 장동건, 김수로, 이종혁, 김민중

중 이상형을 꼽아본다면?

재미있는 이종혁... 아, 아니다! 김민중! 사람을 배려하고 다정다감하다. 결혼은 김민중, 연애는 김수로, 근육도 있고 남자답잖아? 그나저나 내가 선택하면 무조건 사귀어 줄 수 있는 것처럼 고민하고 있네. (웃음)



브라를 나이키



She was in...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김민종을 짝사랑한 '강변북로' 강 변호사



영화 <577 프로젝트>에서 청초한 생얼을 뽐낸 박아인

당신의 몸매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남자를 만날 때조차 몸을 따질 것 같다.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의 감성을 본다. 내가 뭔가 물어보면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주는 따뜻한 똑똑한 사람. '2따'라고 하지? 따뜻 똑똑!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
미안하다. 내가 만든 말이다.

주변에 그런 남자가 있나?
있다면 내가 이미 쟁취했겠지.

활영이 없을 때 입과가 어떻게 되나?
아침 7시에 중국어 학원에 간다. 중국어... 애교 있고 정말 예쁘지 않나? 열심히 해서 나중에 왕가위 감독의 작품에 출연하는 게 꿈이다.

어떤 배우가 되고 싶나?
너무 진부한 대답이지만 믿음이 가고 계속 보고 싶은 배우가 되고 싶다. 🍷

MAXIM Challenge



이게 바로
드리프트다!



MAXIM 짐카나 챌린지 참가 멸망의 서

지난 5월 11일, MAXIM이 취재용 회사 차로
짐카나 대회에 출전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으니..

BY 손안나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개 가란 말야



짐카나(Gymkhana)란?

90도 커브, 180도 회전, 360도 회전, 슬러림, S자 커브, 8자 턴 등의 코스에서 장애물을 피해 달리는 자동차 경기. 정해진 코스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완주해야 한다. 자동차 경주에 앞서 선수의 자질을 시험해보거나 모터스포츠 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 코스다.

MAXIM Challenge

예선전



2013 코리아 짐카나 챌린지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MAXIM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선수전, 일반전, 경차전, 여성전으로 나눠 치른다는 이번 대회에서 MAXIM은 취재용 경차 쉐보레 스파크와 기아 모닝으로 '경차전'에 패기 있게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회 날, 날고 기는 베스트 드라이버들 앞에서 개망신을 면하려면 어느 정도 검증된 운전 실력자가 출전해야 했다. 결국, 대회에 나갈 드라이버를 뽑기 위한 MAXIM배 자체 예선전까지 벌이게 됐다. 이...일이 커졌어.

예선에서 뽑힌 2명의 MAXIM 직원은 2013 코리아 짐카나 챌린지에 나갈 자격이 반강제적으로 주어진다. 평소 "내 밥은 내주어도 내 술은 내주지 않는다"는 애주가 편집장은 사내 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니워커 위스키 세트까지 부상으로 걸었다. 슬금슬금 눈치를 보던 직원들은 하나 둘 참가 신청서를 내기 시작했고, 자체 심사를 거쳐 평소 운전으로 방귀 좀 쾀다고 자부하는 6명의 직원이 예선전에 참가했다.

예선전은 서교동 MAXIM 사옥 주변 골목길을 한 바퀴 도는 간단한 코스였다. 평가 항목은 두 가지, 랩타임과 동승자 평가였다. 아무래도 골목길을 도는 생활 드라이빙 테스트다 보니 변수가 많았다. 양주에 눈이 멀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치면 그야말로 똥 되는 것이므로, 뒷좌석에 동승한 에디터가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하는지 신호를 잘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중간 기록이 좋더라도 빨간불에 한 번 걸리면 멸망이었다. 어차피 인생은 복불복 아니겠나?



예선전 코스가 공개되자 너무 쉽다며 도전자들의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다.



사내 공고

'소녀시대 축하공연'까지만 보고 낯인 사람이 많았다.

MAXIM KOREA 모든 드라이버는 주막! MAXIM KOREA 사내 드라이버들이 그간 관여했던 폭풍 같은 운전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2013년 5월 11일 코리아 짐카나 챌린지에 출전할 2인의 레이서를 뽑는 'MAXIM KOREA 법안장배 짐카나 출전권 획득 타이틀 매치 : 피 워는 레이싱 예선전'(이하 예선전)이 동년 동월 3일 실시됩니다. 지원 자격은 당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 중 면허를 소지한 모든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식은은 ① 국민연예 ② 소녀시대 축하공연 ③ 월드컵 파이 무대인사 ④ 박근혜 대통령 기조연설 ⑤ 예선전 토너먼트 ⑥ 박태일 파티 순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선전 시간 관계상 ⑤ 예선전 토너먼트만 처리하겠습니다.

예선전에 사용할 차량은 쉐보레 스파크와 기아 모닝이며 서킷은 서교동 MAXIM KOREA 사옥 주변 골목입니다.

평가항목은 ① 랩타임 ② 동승자 평가 2가지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심으로 철저히 운전하다가는 할러조의 운명을 살 수 있다는 점 유념주시기 바랍니다.

5월 요약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팀은 조운재 에디터를 위해 플래카드 응원까지 펼쳤건만...

첫 번째 도전자 경영지원팀 이재만

평소 화려한 주차 실력으로 회사 내 베스트 드라이버로 손꼽힌 그는 첫 주자라는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2분 39초라는 애매한 성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두 번째 도전자 편집3팀 주활성

"면허는 있으나, 운전은 못 한다"는 말 같지 않은 핑계로 평소 회사 내 각종 운전 노동에서 제외되었던 그는 일코올에 눈이 먼 나머지, 이번 대회에서 커밍아웃을 선언했다. 미하엘 슈마허로 변신하고 2분 4초 만에 끝인!



세 번째 도전자 편집2팀 박정욱

출발과 동시에 일방통행 차로에서 리어가 부대를 마주치고 멸망...하는 듯했으나 신인의 패기로 포기하지 않았다. 코너링 구간에서 분노의 질주 끝에 2분 4초로 통과!



**네 번째 도전자 편집팀
조용재**

2006년 면허를 취득한 이후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아본다는 그는 호기롭게 대회에 도전했으나 "기...기어가 어딤지"라는 명언과 함께 최단거리 주행(1m)을 마치고 기점을 선언했다. 여전히 액셀과 브레이크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른다고.



**다섯 번째 도전자 마케팅팀
김진욱**

2분 1초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충분히 좋은 기록이었음에도, 마음이 급했는지 코너링 부분에서 차도가 아닌 인도로 올라가는 불법을 저지르는 바람에 동승자 평가에서 탈락!



구경하러 나온 MAXIM 여직원들. 도핑테스트까지 구경할 기세였다. 망측한 줄도 모르고!

**여섯 번째 도전자
편집장**

평소 '안전 운전'을 모토로 하는 편집장은 4분 40초라는 실로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겼다. 동네 마실 나온 듯한 여유로운 드라이빙이 마감 때 에디터에게 원고 독촉하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12년 무사고의 비결이지, 훗!



결국, 2분 4초로 결승점을 통과한 편집2팀 박정욱과 편집3팀 주활성 사원이 본선에 진출했다. 동점을 기록하는 바람에 위스키 세트의 주인은 실전 짐카나 대회의 본선 기록으로 가리게 되었다. 두 선수의 전의는 더욱 불타올랐다.



본선전

그리고 드디어 5월 11일, 대회 날이 밝았다. 안산 톱 기어 트랙으로 다양한 자동차가 모여들었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BMW는 물론 트랜스포머 뺨치는 각종 튜닝 카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경기 시작 전, 드라이버 브리핑이 있었다. 경기는 1차전, 2차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각 부문 1, 2, 3등에게는 부상과 함께 레이싱 선수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선수 명단을 훑어보니 경차 전에 출전하는 선수는 MAXIM의 2인 포함 총 5명. 두 명만 제치면 입상이라니... 이거 완전 꿀이었던!



안에 미스맥심 탔나?!!!!

미안, 우리 남자 직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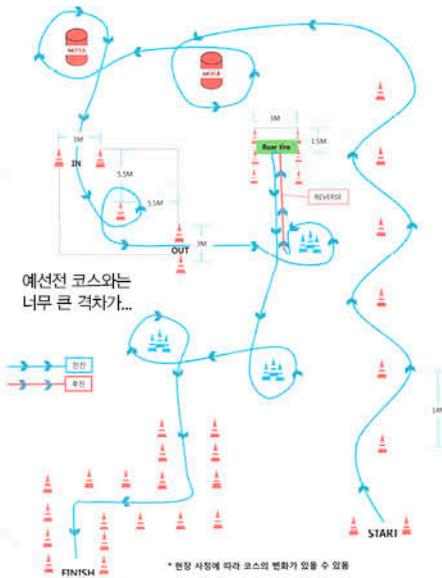


1인당 회원 5명만 모아오면 되세요.

물론 저건 농담이고, 코스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다.

MAXIM Challenge

주행 코스



트랙을 도는 데 1분 남짓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니, 잠깐 한눈팔면 경기가 끝나기 십상이었다. 관중의 몰입도는 극에 달했고 점점 MAXIM의 순서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먼저 출전한 73번 박정욱 선수(기아 모닝). 빠른 스타트를 위해 '후카시'를 주면서 RPM을 높이고 튀어 나갔지만, 경차라 그런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러버콘을 쓰러뜨릴 것 같아 곡선을 크게 돌면서 시간이 지연됐다. 첫 번째 드림통 통과 구간 시합 전 레이싱 선수에게 배운 대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브레이킹 드리프트'를 시도했지만, 속도가 부족한 탓에 실패했다. 멘붕 상태에서 어찌어찌 두 번째 드림통을 돌았고, 3단계 코스에 돌입하면서도 다급한 마음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러버콘을 대거 쓰러뜨리며 자멸했다.

이어 출전한 74번 주환성 선수(쉐보레 스파크). 경기 시작 전까지 코스 지도를 그렇게나 뜯어져라 보더니만 실전에서는 코스 이탈로 실격하고 말았다. 짐카나 경기에 처음 출전하는 많은 선수가 익숙하지 않은 서킷에 당황해 종종 코스 이탈을 경험한다고, 1차전이 끝나고 '좌절할 필요 없다. 그래서 2차전이 있는 거다'라고 고개 숙인 선수들을 위로하긴 했지만, 부끄러움만큼은 관중석에 홀로 남아 그 멸망의 광경을 지켜보던 담당 에디터의 몫이었다. 저는 일행 아나예요...

2차전은 1차전의 역순으로 진행했다. 바로 앞 선수인 75번 김복만 선수가 1분 1초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는 바람에 다소 풀이 있는 상태였다. 74번 주환성 선수가 심기일전해 출발했지만 1구간에서 러버콘을 한 개 건드렸다.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러버콘은

51번 기아 프라이드 팝



37번 지프 랭글러 TJ 사하라



83번 마쯔다 유노스 로드스터



경기 관람 중인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와 페라리 F430



06번 닛산 SILVA S14



40번 현대 제네시스 쿠페 200 Turbo



36번 크라이슬러 300c



여성전 1위 심진희 선수, 그녀의 레이싱 카리스마가 어지간한 남자 선수들을 발라버렸다.



원자현 아나운서도 이날 경기에 출전했다. 1경기에서 코스를 반대로 도는 실수를 범한 그녀, 귀여운데?



달려!!!!!!!!!!!!

쓰러지지 않았고 볼링 핀처럼 빙글빙글 돌다가 원위치에 멈춰 섰다. 이후 코스 이탈 없이 침착하게 모든 구간을 클리어하고 도착한 시간은 1분 14초. 나쁘지 않았다. 3위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성적. 이제 나머지 3명만 끌어주면 된다!

73번 박정욱 선수는 "걸뭇 든 잡기술은 다 빼고 라인만 잘 타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출발했다. 하지만 첫 번째 드림통을 통과하면서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간 나머지 와이퍼 레버를 건드렸고, 그 바람에 와이퍼가 작동해버렸다. 굵은 소나기가 올 때나 쓰는 3단이었다. 그는 "순간 와이퍼가 '넌 끝이야'라며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설상가상으로 와이퍼를 멈춰야 하는데 당황한 나머지 깜빡이를 켜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멘붕 속에 가까스로 결승점에 도착한 시간은 1분 20초, 이날 MAXIM은 74번 기아 모닝 4위(1분 14초), 73번 5위(1분 20초)의 공식 기록으로 대회를 끝마쳤고, 무관의 설움을 안고 씩씩히 회사로 복귀했다. 🍀



아니



사, 실려 주세요!



75번 기아 뉴모닝

경차전 1위 김복만 씨가 알려주는 짐카나 우승 비법

복이 넘치는 드라이버 김복만 씨 왈, "경차는 출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사이드를 당기는 건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라인! 최대한 거리로 돌아서 랩타임을 줄여야 한다. 튜닝을 해서 사이드를 날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 사람이, 그걸 이제야 알려주나?

MISS M

2013 MISS MAXIM CONTEST

열 번째 본선 진출자

김소희

얼굴이 이렇게 귀여운데
몸매가 이 정도까지 섹시하면
반칙 아닙니까?

BY 김희성 WORDS 조웅재



이름 김소희
이상형 얼굴은 귀엽고 몸은 섹시한 남자
취미 영화 감상
특기 춤
술버릇 집에 가서 자기
가장 섹시한 신체 부위 쇄골과 치골
가장 섹시할 때 봉 탈때





→ 왜 낯익은 인상이다.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봤나?
허가윤? 미료? 최정윤 닮았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못된 아이유 같다는 얘기도 들어봤다.

친구 중에 MISS MAXIM 콘테스트 참가자가 있다고 들었다. 이번 달에 나온 황주영 씨와도 아는 사이라며? 같이 클럽 파티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다. MAXIM 2월호에 나오는 (박)선혜와는 중학교 동창이고 원래부터 친했다. 선혜 따라 MISS MAXIM 콘테스트에 지원했지.

원래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편인가?
클럽에 자주 가는데, 거기서 포토그래퍼들이 사진 찍을 때 일어서 내가 포즈를 취한다. 난 원래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니까.(웃음)

어떤 남자를 좋아하나?
얼굴은 귀엽고 몸은 섹시한 남자가 좋다. 배려심 있는 남자라면 배가 좀 나와도 상관없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먼저 대쉬하는 스타일인가?
마음에 들면 내가 먼저 번호를 물어본다. 보기보다 적극적인 여자다.

방송에서 풀댄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풀댄스 퀸'이라고 방송에서 소개했는데, 클럽 매스 풀댄스 경연 대회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서 출연하게 됐다. 사실 주영 언니한테 배운 거다. 3일에 5분 정도밖에 안 배웠는데?

이성을 유혹하는 당신만의 노하우는?
핑크 행동이나 말투에서 섹시함과 귀여움을 한 번에 보여주려고 한다. 지그시 바라보면서 헛바닥을 날름날름? 귀엽게 보이려면 입술을 오물오물?(웃음)

주력으로 입는 속옷 스타일은?
빨간색 속옷! 망사나 호피 같은 스타일도 좋아한다.

평소에는 어떤 일을 하나?
고시 공부한다. 검정고시...(웃음)
앞으로는 메이크업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싶다. 비서도 되고 싶고

처음 만난 남자와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뽀뽀? 아니다. 정말 마음에 들면 키스까지는 괜찮을지도!

MAXIM 독자들에게 한마디!
좀 더 섹시하게 찍고 싶었는데 귀여운만 어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아쉽다. "그래도 한창 귀여운 나이는 맞잖아요. 귀여운 나이나가 귀엽게 봐주세요! 뿌잉뿌잉!"

MISS MAXIM

2013
MISS MAXIM
CONTEST
열한 번째 본선 진출자

황주영

몽환적인 매력을 뽐으며
뇌쇄적인 몸짓으로 봉춤을 춘다는
섹시녀 황주영이 MISS MAXIM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름 황주영
이상형 생크림이 없는 남자다운 남자
취미/특기 춤
좋아하는 아이돌 사이니 온유
음주 흑역사 소주 반 병 마시고 실신

봉춤 추는
미녀를
감상하세요!





포즈가 예사롭지 않다!

원래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전에 <맵스>에도 나왔었다. 피팅 모델도
한 적 있고.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

당연히 있지. 예전에 MAXIM PARTY에서
맥심걸을 한 적 있다. 포니테일 머리를
하고 나왔는데 기억나나?

**어쩐지 낯이 익더라. 당신이 하루 중 가장
섹시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속옷을 갈아입을 때.

어떤 속옷을 주로 입는데?

ck 언더웨어같이 약간 스포티하면서
여성스러움이 가미된 스타일을 좋아한다.

요리는 잘하나?

아예 못 한다. 그래서 요리 잘하는 남자를
좋아한다. 파스타랑 오코노미야키를
좋아하는데 그런 거 잘하는 남자라면
금상첨화지! 하지만 지금은 솔로다. 흑흑.

도대체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예전에 진짜 잘생긴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남자를 만난 후로는 눈이 잘
안 내려간다. 아마 좀 더 나이가 들면
바뀌겠지?

**단도직입적으로 물겠다. 처음 만난
남자와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손 잡는 거.**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어디인가?
그나마 종아리가 좀 예쁜 것 같다. 일이
없거든.(웃음)

**다음 번에 또 촬영하게 되면 어떤
콘셉트가 좋을까?**

무조건 섹시한 콘셉트! 이번 콘셉트보다
조금 더 어둡고 섹시한 느낌이 좋다.

**우리도 좋다. 마지막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한마디!**

사랑해요! 너무 짧은가?(웃음)



언더웨어 칼라질
구두 슈조원

MISS MAXIM

2013 MISS MAXIM CONTEST

열두 번째 본선 진출자

유리

강렬한 허벅지 타투와 동양적인
섹시함으로 MAXIM 스태프를
사로잡은 유리의 뇌쇄적인 매력





이름 최유리
취미 인디 음악 감상
특기 그림
이상형 소년 같은 남자
좋아하는 음식 죽, 요거트 같은
흐물흐물한 음식
주요 서식지 이태원



PHOTOGRAPH Zho HAIR & MAKEUP 정혜민 ASSISTANT 김세형 김소은 명윤희 정재식 FILM 김슬기
COOPERATION 슈즈원(02-3443-1703) 컬러젠크(02-547-5707)



**이름이 예쁘다. 유리라는 이름은
본명인가?**

그렇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하도
놀려대서 '은지'라고 개명했다. 그 이름을 좀
쓰다가 다시 유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관심 있는 이성에게 호감을 표하는 당신만의
방식이 있다면?**

장난을 많이 건다. 툭툭 치거나 다리를 막 걸거나
하는 식으로 관심을 표현한다.

키스를 잘하는 남자란?

허 놀림이 작살나는 남자. 허가 멈추지 않는
남자가 진짜 키스를 잘하는 남자가 아닐까.(웃음)

요즘 무슨 맛에 사나?

강아지. 몸이 피곤해 집에 들어와서 바로 침대에
누웠을 때, 강아지가 달려드는 게 좋다. 말티즈

두 마리랑 푸들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남자친구를 다루는 것과 강아지를 다루는 것 중
뭐가 더 편한가?**

강아지를 다루는 게 더 편하지. 먹을 것만 주면
끝나니까. 하지만 남자들은 머리를 쓰잖아.(웃음)

요리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먹고 싶려면 잘해야 한다. 벌써 자취 생활
4년차니까 말이다. 특히 된장찌개는 나만의
레시피가 있다. 멸치 국물과 건새우 그리고
무까지 넣으면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다른 MISS MAXIM 후보에게 끌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은?**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이거나 몸매가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섹시한 티투나 오묘하게 생긴 얼굴이
몇몇 사람에게 먹히지 않을 거 같다.(웃음)

2013 MISS MAXIM CONTEST

세계적인 남성 잡지 MAXIM에서
모델 데뷔의 기회를 잡아라!

-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MAXIM 스태프와 함께 하는 멋진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될 기회!
- 2013 총 상금 700만 원 (온라인 예선만 통과해도 상금 10만 원)
- 온라인 예선 통과 시, MAXIM 월간 매거진 화보 촬영
- 8강 진출 시, MAXIM 특별판 매거진 표지 모델 발탁
- 우승 시, 2014년 MAXIM 월간 매거진 표지 모델로 선정 (1~12월호 중 하나)

참가 신청

MAXIM 홈페이지에서 **미스 맥심 참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매력을 잘 표현한 사진 10장 이상을 업로드 한 뒤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씁니다.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

콘테스트 진행

2013 MISS MAXIM 콘테스트 온라인 예선에서는 본인이 올린 사진이 공개되며, 다른 참가자와 1대1 인기투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약 열흘 간의 대결에서 더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은 참가자가 예선을 통과합니다. 온라인 예선을 통과하면? 승리하는 즉시 상금이 지급되며, **이달의 MISS MAXIM**으로 선정되어 화보 촬영에 들어갑니다. 해당 화보는 다음 달 MAXIM 매거진에 실리게 됩니다. 이후 MISS MAXIM 콘테스트 16강전에 진출하여 우승을 위한 토너먼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16강부터는 상금도 더욱 커지니 승은 매력녀들의 뜨거운 참가 신청 바랍니다!

문의

e-mail: missmaxim@maximkorea.net
www.maximkorea.net



MISS MAXIM in the World

MISS MAXIM의 인지도는 싸이급이다! 호주 MAXIM이 <올해의 한국인>으로 1위 사이에 이어 2011 MISS MAXIM 우승자 이명희 양을 2위로 선정했다! 3위는 북한의 김정은. MISS MAXIM 이명희의 매력에 외국인도 푹 빠졌으니, 이제 당신이 세계에 매력을 발산할 차례다. 어서 도전하라!

미스 맥심
바로 가기



2012 MISS MAXIM
우승자 단영

요즘 유행하는
'워싱턴식 격려 인사법'이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준강제추행의 죄

MAXIM과 함께하는 법률 공부 시간! 거의 1년 만의 수업 재개니까 좀 흥미로운 주제로 출발해 볼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만끽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이에나처럼 암수의 본능에 몹시 충실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다. 행복도 섹스도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다. 법치 국가를 살아가는 MAXIM 독자라면 기본적으로 법치 섹스는 시전할 줄 알아야겠지?



BY Devil's Advocate
대한민국의 현직 변호사로서, 국내 글지의 르포르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6년간 MAXIM을 구독하던 중, 2013년부터 MAXIM 격원 에디터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 2013. 6. 19. 시행)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 신설 2012. 12. 18] [시행일: 2013. 6. 19] 제297조의 2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진 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본조는 2013. 6. 19. 자로 폐지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판타지, 원 나이트 스탠드.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경험담을 쏟아내는 녀석들도 사실은 네이트판에서만 존재하는 판춘몽에 소설인 경우가 많다. 원 나이트 스탠드를 경험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다.



DAUM 인기 웹툰 작가 네온비의 <기형세에게도 봄은 오는가> 중에서

사랑은 볼비를 타고, 은팔찌는 술을 타고 내려
첫인상만으로 잠자리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원 나이트 스탠드 시장에서 외모의 힘은 절대적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매일 못생긴 우리에게도 한 줄기 희망은 있으니, 모두 짐작했겠지만 그건 바로 술이다. 원래 대부분의 남녀상열지사는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법. 만취한 골뱅이 처자의 눈에는 우리도

합합 장동건, 예능 소지섭으로 보일 수 있다.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낯선 처자와 나누는 짜릿한 잠자리! 생각만 해도 꿀릿하고 훈훈한 결말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복병이 하나 숨어 있다. 소위 '박앗시후'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받고 있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다. 우리나라 형법상 강간 및 추행의 죄의 체계는 맨 위에 적혀있으니 읽고 와라. (기왕 하는 거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개정 형법을 소개해 주마. 위 사진 속 형법 조문 참조)

MAXIM 독자 중에 '폭행, 협박'을 써가며 여자를 강간, 추행하는 놈은 없을테니 여기서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알아보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법률용어로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이다. 심신상실, 항거불능, 간음, 추행...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지? 법의 구성 요건이라는 게 원래 다 이렇게 어렵다.

대한민국 남성, 강간 당할 자격 획득!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원래 강제추행죄에서는 법적으로 남녀 모두가 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강간죄는 오로지 '부녀' 즉, 여성을 상대로만 가능했다. 남성은 개념적으로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법적으로는 남자인 한 트랜스젠더가 신사동 뒷골목에서 윤강당한 일이 있었으나 가해자들에게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었음). 그러나 이 또한 불평등하다고 하여 2013년 6월 19일부터는 남자도 강간당할 수 (?)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강제로 당했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에게 당했다 싶으면 편따같이 그녀를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해도 된다. 그런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나만...

하지만 그래야 우리도 먹고사니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사해 만민이 은팔찌 차지 않고 안전하게 섹스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필자의 미력한 지식을 대방출해보고자 한다.

→ **심신상실(心身喪失)**이란 몸도 마음도 없는, 말 그대로 멍실신 상태를 말한다.



→ **항거불능**이란, 판례에 따르면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판례 읽어봤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냥 항거불능은 사이비 교주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사이비 종교에 폭 빠져 교주를 절대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교주가 아무리 심장질을 해도 감히 저항할 수 없는데, 이게 바로 항거불능이다.

- **간음**은 존손을 삽입하는 것을 말하고,
- **추행**은 그 이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동, 즉 물고 빨고 만지고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형량**은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했으니, 강간이면 3년 이상, 유사강간이면 2년 이상(이건 오는 6월 19일부터), 추행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똑같다.

자, 이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 간단하네? 결국 우리가 JMS가 아닌 다음에야 골뱅이 딱실신녀만 안 건들면 되는 거 아냐?

잘 잤어?누구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심플하지 않다. 분명히 내 기억에는 이 처자가 술은 마셨어도 나를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안면을 바꾸면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정신 없는 사이에 당했다"며 고소 드립을 시전한다고 생각해보라. 시후 형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박시후는 상대 여성의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이게 불기소처분이라고만 나오니까 무혐의랑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이런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바로 불기소처분이 떨어진다. 이처럼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한 죄를 친고죄라고 한다.

그런데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부터는 강간과 추행의 죄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다. 이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거다. 대의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변화다. 왜냐면 과거엔 사람 강간해 놓고도 피해자가 고소만 취소하면 만사 해결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가해자 쪽이 합의를 중용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젯밤에 술먹고 합을 맞춘 여자가 당신의 스킵이 구리다는 이유로 당신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돌아이라면? 또는 클럽에서 만나 당신과 즐빔해놓고 남친에게 걸리자 갑자기 성폭행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한다면? 필자도 짤게나마 검찰의 입장에서 형사사건을 맡았을 때, 비슷한 데이트 강간 고소 건이 종종 들어왔었다. 그런데 이 경우 고소 여성 쪽에서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얼른 고소를 취소하고 발을 빼는 경우도 많았다. 자칫하면 무고죄(죄없는 사람을 허위로 신고한 죄)로 자기가 쇠고랑을 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그렇게 사건이 어영부영 종결되며 누명을 벗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일단 고소를 당하면 나중에 그녀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계속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안전하게 집구석에 앉아 손양이랑 놀든지 명상을 하며 여자를 멀리하라는 말 따위를 해달라고 MAX에서 변호사 에디터를 둔 건 아닐테니 몇 가지 팁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우리 시후 형님은 겨우 이것 홀쭉소주 드시고, 핀치에 붙었다.

꽃뱀 탈출 넘버원!



1 요즘엔 허름한 장급 여관에도 카운터와 복도에 CCTV가 있다. 그러니 CCTV 앞에서조차 몸을 제대로 못 가늘 처하는 아예 건드리지 마라.



2 거사를 끝내고 다정하게 셀카를 한 방 찍어두면 이보다 든든할 수 없다. 그렇다고 나체 사진을 찍어서 퍼뜨리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말고 옷 다 입고 다정하게 얼굴 찍어라.

3 불일 다 났다고 뻘에 있는 여자를 혼자 두고 나가는 양아치짓은 없던 꽃뱀도 만들어낸다. 말도 없이 먼저 가면 정말 자기가 강간당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4 아침까지 함께 보냈다면 CCTV가 있을 법한 큰 식당에 가서 사이좋게 해장국 한 그릇 먹고 가라.

5 존손 장갑은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우리의 소중한 CD 굵은 각종 병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뿐 아니라 꽃뱀의 임신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준다. MT 것이 구리다는 이유로 맨손으로 동굴 탐험을 시도하는 우매한 중생이 있는데 오카모토003을 써보라. 신세계대(PPL로 오해하지 마라.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추천이다).

6 MT비 계산을 여자가 한다면 너무나 유리한 정황이 되겠지만, 이런 일은 현실에서 좀처럼 없다. 돈을 여자에게 쥐어주고 계산을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냐는 사람도 있지만,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싶으면 어디 그렇게 해보라.

이런 거 다 신경 쓰다가 어디 작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쉽게 될 것 같으면 그게 어디 판타지겠는가. 조심 또 조심하는 마음으로 안전한 나이트 라이프를 즐겨야 유흥의 삶을 무탈하게 지속할 수 있다. PEACE! 🍷



다시 말해두지만 나는 준강간죄를 면하는 방법 따위를 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악역적인 꽃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다. 이런 여자 건드리면 배도 박도 못하고 준강간범 되는 거여.





Ashley Tisdale

패러디 영화 시리즈 <무서운 영화 5>의 여주인공 애슐리 티스데일이 섹시한 비키니 차림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녀와 해변에서 섹시한 하루를 보낸 우리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연신 기쁨의 환호성을 질러댔다. 아야, 그녀의 허벅지에 물은 모래라도 되고 싶어!

BY LAURA LEU PHOTOGRAPH STEPHAN WURTH



“
난 항상
나쁜 남자에게
끌린다.
”



비키니 상의 6 Shore Road
비키니 하의 Inca
부츠 Peneiope and Coco
금색 목걸이 Melinda Maria
은색 목걸이 Bing Bang



티셔츠 Alternative
수염복 하의와 부츠 Vintage
금색 목걸이 Melina Maria
은색 목걸이 Bing Bang
하트 목걸이 Gorjana



네 살 때 영화 <위스퍼 오브 더 하트>에서 아역으로 데뷔한 예술리 티스테일이 어느새 폭풍 성장해 디즈니 만화에 나올 것 같은 공주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버렸다(겉옷도 함께). 얼마 전 북미 전역에서 개봉한 <무서운 영화 5>에서 <블랙 스완>, <파라노말 액티비티> 등을 완벽하게 패러디하며 섹시 호러 퀸으로 변신한 티스테일. 그녀를 무섭게 하고 흥분시키는 게 뭐까? MAXIM이 꼬치꼬치 캐물어봤다.

하이틴 뮤지컬 영화 <하이스쿨 뮤지컬>은 유난히 극성 팬이 많기로 유명하다. 그중 가장 이상한 팬은 누구였나?

한번은 인스타그램에 잠에서 막 깬 모습을 찍어서 올렸는데, 다음 날 한 중년의 신사가 부모님 집에 와서 나를 볼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다신 침대 위에서 셀카를 찍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서운 영화 5>는 엄청나게 많은 호러 영화를 패러디했다. 원작들은 다 봤나?

무언가를 패러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작을 충실히 공부하고 그 역할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블랙 스완>의 퍼포먼스 장면을 패러디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빌레 수업을 듣기도 했고, 벌벌 떨면서 공포 영화를 다 봤다. 난 <파라노말 액티비티>가 가장 무서웠다. 잠을 못 자겠더라.

영화를 찍다가 진짜 무서운 경험을 하기도 했나? 진짜 귀신이라도 나타났는지...

호텔 방에서 막 잠에 들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화장실 불이 켜지더라. 자동 감지 센서 탓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자다가 갑자기 깬데 또 화장실에 불이 켜져서 정말 무서웠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나? 그때가 한창 <파라노말 액티비티> 패러디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때라는 거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끼친다.

그러면 방에 귀신을 들이는 것과 린지 로한과 함께 촬영하는 것 중 솔직히 어느 쪽이 더 무섭나?

당연히 귀신이지. 린지 로한은 정말 멋지다! 영화에는 린지 로한 말고도 수많은 카메오가 등장하는데 난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든다. 제작진이 한 신의 대본을 쓴 다음 그 역할에 맞는 카메오를 찾아서 등장시키는 식으로 촬영을 진행한다. 어떤 카메오가 나올지도 미리 계획하지 않는다. 어느 날 촬영장에 가보니 마이키 타이슨이 와 있어서 놀라고 그런 식이다.

배우 찰리 신도 카메오로 나왔다. 찰리 신은 최근 포르노 배우와 염문설에 휘말리기도 했는데, 혹시 당신에게 작업을 걸지 않았나?

전혀. 그는 매우 쿨하고 프로페셔널한 남자다.

She was in...



그녀는 패러디의 결정판, <무서운 영화>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에 새롭게 합류해, 린지 로한과 심각한 오바 연기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미드 <헬 캣츠>에서 보수적이지만 열정 넘치는 낙천주의자 사바나'역으로 출연해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맘껏 어필한 그녀. 아마 이거 찍으면서 팬 좀 늘었을 걸?

“

난 밀당엔 관심 없다.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솔직히 말할 거다.

”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할아버지가 미국 주방 기기 업계의
스티브 잡스라고도 불리는 론
포페일이라고 들었다.
맞다. 우리 할아버지다. 나도 할아버지
회사에서 만든 칼과 바비큐 기구를
샀다. 외가 쪽 친척들이 모두 주방
기구를 발명하고 유통하는 일을 한다.
할아버지는 쇼 호스트도 하시는데,
한밤중에 TV를 보다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칼을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웃음)

놀라운 집안이다! 명절 때는 정말
편리하겠나.
당연하다. 우리 집엔 훌륭한
주방용품이 많으니까.

홈쇼핑계의 거장 집안에서 자란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
나는 지금도 수줍음이 많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부끄러움을 더 많이
탸다. 열 살 때 할아버지는 마트에서
일하셨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더
잘하게 하려고 제품 설명을 하라고
시키셨다! 매장에 고기를 자르는
기계가 있었는데, 나는 직접 고기를
자르는 시범을 보이면서 “제가 열
살인데요, 저도 했으니 여러분도 쉽게
고기를 자르실 수 있을 거예요”라며
판촉을 했다.

그 칼 불티나게 팔렸겠다! 당신도 주방
기구를 개발해 가업을 이어볼 생각은
없나?
나 말고도 가업을 이을 사람이 많아서
괜찮다. 그 대신 ‘블룬디 걸 프로젝트’
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열심히
홍보하는 중이다.

당신은 배우이자 가수기도 하다. 노래
‘Guilty Pleasure’ 가사 중에
‘배반하고 위험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건가?
정확하다.(웃음) 대학 동아리에 꼭 한
명씩 있는 잘 노는 스타일의 유쾌한
남자도 좋지만 어둡고 미스테리한
분위기의 나쁜 남자에게도 끌린다.

그러니까 당신은 전화한다고 해놓고
감감 무소식인 남자한테 더 매력을
느낀다는 거지?
밀고 당기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당신을 좋아한다면 당신에게
대놓고 고백할 거다. 그리고 당신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겠지.

알겠다. 완벽히 이해했다. 오늘 밤
전화하면 되는 거지? ☺

상의 Vintage
비키니 하의 Zimmermann
부츠 Penelope and Coco
반지와 팔찌 Jennifer Fisher

MMA 최악의 부상 15



MMA는 복싱, 승마, 미식축구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포츠다. 어디까지나 상대적.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23승 11패를 기록하고 있는 베테랑 MMA 파이터 레이 엘브는 말레이시아에서 여자친구와 격렬한 정사를 벌이던 도중 음경이 꺾여버렸다. 해면체가 찢어지면서 피부를 뚫고 나오면서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렸다. 응급 수술 후 한동안 그는 요도 내에 배뇨관을 꽂은 채 생활해야 했다. 격렬한 행위는 그게 무엇이든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MMA도 예외는 아니다.

관심이 뜨!
하고
부러졌습니다.



손과 팔

1. 엄지 고자



2013년 4월 28일, UFC 159에서 안시 메데이로스는 상대의 테이크다운에 걸려 넘어가면서 손을 잘못 짚었다. 엄지손가락이 두 사람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면서 뒤로 흘러당 넘어갔다. 경기는 잠시 중단되었으며 메데이로스는 결국 부상으로 TKO 패했다.

2. 반 토막난 상완골



2011년 12월 10일,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와 프랭크 미어 간의 2차전. 1차전에서 미어에게 생애 최초로 KO패한 노게이라는 1라운드부터 미어를 두들겨 그로기로 몰고 갔다. 큰 충격を受け 받고 다운당한 미어에게 파운딩을 내려치던 노게이라는 돌연 파운딩을 멈춘 후 미어를 붙잡고 서브미션을 시도했는데 그사이 정신을 차린 미어가 상황을 반전시키고 기무라 카운터를 성공했다. 노게이라가 탭을 하지 않고 버티자 미어는 냉정하게 힘을 가해 노게이라의 팔(상완골)을 두 조각 냈다. 노게이라는 그 상황에서도 팔이 부러진 사람답지 않게 침착했다. 역시 관록의 형님다웠다.

3. 인과응가



2009년 12월 31일, 아오키 신야와 히로타 미즈토가 대전했다. 같은 체급에서 세계 최강급 서브미션 장인 아오키는 히로타의 등 뒤에 올라타 해머록을 걸었다. 히로타는 항복을 거부한 채 버텼지만 아오키는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그의 팔꿈치 관절을 탈골시켰다. 그리고는 고통스러워하는 히로타의 면전에 손가락 욱살을 퍼부었고 과한 표정으로 상대를 조롱했다. 관객석에서 아우가 터지자 아오키는 사방팔방 손가락을 날리며 더욱 심하게 날뛰었고 이 장면을 본 수많은 팬이 그의 매너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1년 뒤, 아오키는 킥복서 나가시마 유이치로와 입식-MMA 혼합 룰로 특별 경기를 치렀다. 이 경기에서 아오키는 태클을 시도하던 중 나가시마의 니킥을 정통으로 맞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한 관객이 SNS에 "아오키 실신했면서 탈분한 듯, 지나가는데 똥냄새가 장난 아님"이라고 올리면서 아오키는 똥싸개 파이터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멘탈이 붕괴한 아오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똥으로 범벅된 내 인생"이라는 멘션을 남기고 계정을 폐쇄했다. 이게 바로 '인과응가'인 것인가?

4. 팔은 밖으로 굽는다



2012년 3월 3일, 여성 MMA의 떠오르는 신예 룬다 로우지가 스트라이크포스 여성 밴텀급 챔피언 미사 테이트에게 암바를 걸었다. 정신력이 매우 강한 테이트는 한계를 넘어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룬다 로우지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다. 결국, 테이트의 팔꿈치 관절이 탈구되면서 괴이한 각도로 꺾였고 테이트는 그제야 탭을 쳤다.

머리

5. 마왕의 사이닝 핑거



사쿠라바는 이후 2010년 12월 31일 마리우스 자름스키와의 대전에서 귀를 거의 잃을 뻔했다.

2005년 6월 26일, 아시아의 별 사쿠라바 가즈시와 아부다비의 마왕 히카르도 아로나가 맞붙었다. 아로나는 사쿠라바를 마음먹은 대로 넘기고 누르면서 마음껏 파운딩을 내려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쿠라바의 안면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피부가 찢어지면서 유혈이 낭자했다. 아로나는 마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엽기적인 기법을 사용했다. 사쿠라바의 커트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마구 비벼댄 것. 심판의 TKO 선언으로 사쿠라바는 겨우 구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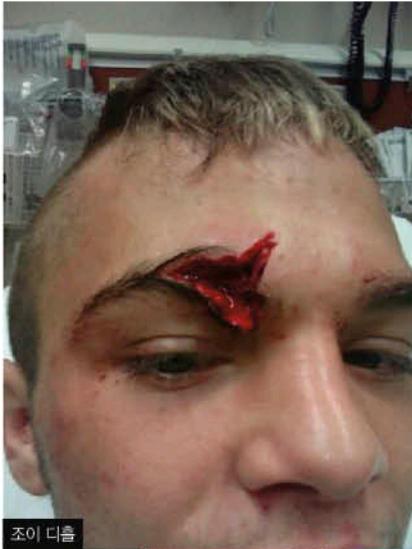


2010년 6월 5일, 핀크라스 밴텀급 우치야마 시게유키도 경기 중 귀의 절반가량을 잃었다.



우치야마의 귀에서 떨어져나간 부분

6. 찢어져도 괜찮아



조이 디홀



마빈 이스트먼



에이브 와그너

"MMA 3대 커트"로 유명합니다.

2011년 9월 3일, 조이 디홀과 조시 엠스가 싸웠다. 엠스는 1라운드에서 기가 막힌 점핑 니킥을 디홀의 인면에 적중시켰다. 코너에서 자신의 코치가 빨리 경기를 끝내라고 소리쳐서 디홀은 그제야 자신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챘다. 디홀은 데미지를 수습하고 경기를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가 암 트라이앵글을 시도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쉽게 조이지가 않았지만, 겨우 상대의 탭을 받아낼 수 있었다. 승리의 기쁨 덕에 아픔은 거의 느끼지 못했고 MMA 역사상 최악의 커트를 당한 것에 대해서도 "아싸!!"라는 반응을 보였다. 몇 바늘을 꿰맬지는 세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한다.

7. 이마 볼륨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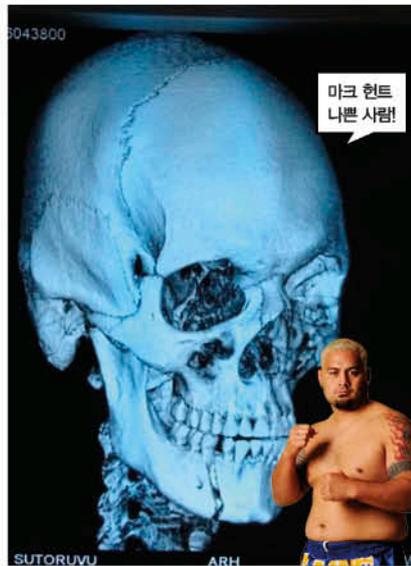


엄마, 나 키가 커진 것 같아요.

2011년 4월 30일, 마크 호미닉은 WEC 페더급 챔피언 호세 알도에게 도전했다. 알도는 앤더슨 실바와 함께 현 MMA계를 대표하는 타격 전문가다. 알도의 타격은 무겁고 빠르고 정확하다. 어지간한 선수는 알도의 화력 앞에서 무너지지만, 맷집과 정신력으로 버티내는 선수들도 간혹 있다. 호미닉도 그중 한 명이였다. 경기가 끝난 후 호미닉의 얼굴은 겐시로우의 '복두신권'에 가격당한 것처럼 변해 있었다.



8. 역전의 레프트 훅



마크 헌트 나쁜 사람!

2013년 3월 3일, 마크 헌트와 스테판 스트루브 간의 대결이 펼쳐졌다. 스트루브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헌트는 1, 2라운드 그라운드에서 마운트를 내주면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스탠딩에서 강한 타격을 적응시키며 우세를 점했다. 그리고 3라운드 헌트의 강력한 레프트 훅이 스트루브의 턱을 흔들면서 헌트가 TKO 승을 거두었다. 문제는 헌트의 펀치가 스트루브의 턱을 흔들기만 한 게 아니었다는 점. 병원으로 간 스트루브는 하악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9. 내 아내의 턱주加里



2008년 6월 20일, 랜디 커투어의 아내였던 킴 커투어가 프로 MMA 무대에 데뷔했다. 상대는 킴 로즈. 커투어는 상대의 타격을 여러 차례 허용하면서 코가 부러지고 턱이 깨졌다. 하지만 커투어는 마지막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버텼다. 물론 결과는 만장일치 판정패였다. 그래도 예쁘네.

10. 에이 세컨즈



2013년 3월 23일, 안드레 알롭스키도 앤서니 존슨과의 대결에서 턱이 부러졌다. 알롭스키 측은 1라운드의 종료가 8초 늦게 되었으며 그 8초 사이에 존슨이 치명상을 입힌 거라고 NSAC(네바다 주체육위원회) 측에 불만을 털어놓았다.



11. 발목은 회전한다



2007년 4월 17일, '보독 파이트-코스타리카 컴뱃' 여자 파이터 대결에서 수나바 토모미는 태권도 파이터 로지 섉스톤과 대결했다. 토모미는 경기 중 갑자기 발목이 돌아가버리는 바람에 철심 몇 가닥을 박고 수 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야 했다.

12. 무르팍 무르팍팍!



2012년 3월, 신예 브라이언 존스 주니어와 저스틴 리 파울리의 경기. 파울리가 존스 주니어를 뽑아들어 매쳤다. 존스 주니어는 떨어지면서 다리를 잘못 짚었고 무릎이 통째로 빠져버렸다. 엄청난 부상에 관객석 여기저기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13. 고무고무 열매 복용실



2008년 12월 10일, 군 장병을 위해 기획된 'UFC Fight for Troopers'에서 코리 힐과 데일 하트가 대전했다. 2라운드 2초경에 코리 힐이 라이트 로키를 시도했다. 데일하트는 정확한 방어 동작을 취했는데 그 덕에 힐의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말았다. 힐의 다리는 마치 연체동물의 그것처럼 흐느적거렸다.

14. Knee, 돌았나?



2010년 5월 27일, 오클라호마 출신 미들급 파이터 제러드 헤스는 'KO Artist' 알렉산더 쉐레멘코와 싸웠다. 앞선 두 라운드에서는 제러드 헤스가 앞서 나갔다. 그러나 3라운드에 쉐레멘코의 니킥을 맞고 넘어지면서 헤스의 왼쪽 무릎이 탈구되었다. 헤스는 계속 싸우려 했지만, 심판은 단호했고 경기는 바로 중단되었다. 11개월 후 그는 다시 전선으로 복귀했다.

15. 그깟 발가락 하나쯤...



Last Highlight

2013년 4월 27일, UFC 159의 메인 이벤트는 존 존스 대 차엘 소넨의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매치였다. 존스는 이 경기에서 리치를 이용해 멀리서 장거리포를 쓰는 특유의 전법을 버리고 소넨과 근접전으로 맞붙을 놓았다. 신장과 리치가 우세한 선수는 거리를

두고 싸우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접전으로 가면, 작은 선수에 비해 오히려 불리하다는 게 정설이다. 게다가 소넨의 레슬링은 우수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존스의 이러한 선택은 많은 이를 경악케 했다. 그렇지만 존스는 아무런 문제 없이 소넨을 계속 매다쫓았고, 세 번째 테이크다운 이후 존스의 엘보 파운딩이 소넨의 안면에서 적중했다. 라운드 종료를 20여 초 남긴 시점에서 소넨은 거의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입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주심은 존스의 TKO승을 선언했다. 그런데 승자 인터뷰를 위해 조 로건이 존스에게 다가갔을 때 존스의 왼쪽 엄지발가락이 거의 질러나갈 듯 너털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서로 누르고 밀어내는 힘겨루기 도중, 존스의 발가락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분필 부러지듯 똑 하고 골절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부상에도 그는 로건과의 인터뷰를 아무렇지 않게 마쳤다. 눈치 없는 로건은 존스와의 인터뷰를 상당히 오래 끌었는데, 존스는 태연히 할 말을 다 했다. 인터뷰에서 존스의 이번 전략이 상당히 놀라웠다고 말하자 존스는 "소넨의 방식으로 소넨을 제압하는 것이 게임 플랜이었다(really wanted to 'Chael Sonnen' Chael Sonnen, and I think I did that)" 라고 유쾌하게 대답했다.

네티즌은 존스의 이 같은 발언을 모용복에 비견해 모용 존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김용의 무협 소설 <천룡팔부>에 등장하는 모용복이라는 캐릭터가 사용하는 두전성이라는 무공이 바로 상대의 방식으로 상대를 능가한다는 것이다. 또 관우가 살을 벌려 뼈를 드러내고 뿔속에 침투한 독을 굶어내는 화타의 치료를 받는 도중 여유롭게 바둑을 두었다는 <삼국지>의 일화에 빗대 존스를 존운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찌찌~뽕!!

Adhya Shetty

Winner Of
MISS MAXIM

인도 MAXIM 편집부가 자랑스럽게 선보이는
2012 MISS MAXIM INDIA 우승자 아드야 셰티.
뺨속까지 열혈 MAXIM 팬인 그녀가 알싸한 매력을 풍긴다.
당신도 그녀의 격렬한 S라인과 풍만한 가슴을 보고 나면,
문득 오늘 점심엔 노라조의 '카레'를 들으며
풍미작렬하는 인도식 카레에 갓 구운 폭신한 난(인도식 빵)을
푹 찌어 먹고 싶어질 거다. 산티 산티 나마스떼!

PHOTOGRAPH **AMIT SHARMA** STYLE DIRECTION **PARAS & SHALINI**





From MAXIM India 

“

예쁜 외모만이 전부는 아니다.
관능미, 대담함도 필요하다.

”



STYLING KARISHMA BERY HAIR&MAKEUP PROD ANKER'S TEAM AT MONSOON LOCATION THE METROPOLITAN HOTEL & SPA, NEW DELHI





**MISS MAXIM 우승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관능적인 면모를 맘껏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MISS MAXIM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됐다. 우승까지 해서 기분이 무척 좋다. 나의 재능을 알아봐준 MAXIM에 무한한 감사를 보낸다.

수많은 참가자 중 단연 돋보이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으니, 쟁쟁한 미녀들 사이에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았겠지?

콘테스트 날 밤은 정말 대단했다. 너무 벅찬 나머지 대회 당일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동안 늘 꿈꿔온 일이니 당연하지. 기다린 보람이 있다. 화보 촬영도 정말 신났다.

**MISS MAXIM은 여느 미인 대회와 다르다.
참가 자격 조건도 없으니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참가자인 당신이 느끼기엔 어땠나?**

이 콘테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예쁜 외모'만 보고 뽑지 않는다는 거다. 현대 여성의 당당함, 성격, 위트, 관능미, 대담함도 중요하다. 만약 MISS MAXIM에

도전하고 싶은 여성이 있다면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다. 피부 관리실에 하루 종일 처박혀 있지만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라!

대회 전에 어떤 준비를 했나?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프레젠테이션 연습도 많이 했다. 그리고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유쾌하게 지냈다. MISS MAXIM이 되려면 자신감은 필수니까, 자신이 여성으로서 지닌 모든 매력과 특징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우승자의 팁이니 새겨들여라!



여친 몸매를 당신 몸매처럼 바꾸고 싶은 남성들을 위해 몸매 관리 비결을 알려달라.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평소엔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리스 귀족처럼 내 몸을 위해 좋은 것만 먹는다. 채소, 유기농 음식을 많이 먹고, 가능하면 밥은 집에서 해먹는다.

당신처럼 섹시한 여자애겐 남자들이 작업도 많이 걸 텐데, 어떤 남자라면 OK인가?

뭐든 기초가 중요하듯, 기본이 잘된 남자여야 한다. 잘못을 했을 때 사과할 줄 알고, 자기 일에

열정이 넘치는 남자가 진짜 남자다. 신사적이지만 강해야 할 때를 알고, 자신감이 넘치며, 나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남자. 그런 남자라면 도무지 거절할 수가 없을 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뭘 입어야 하는지 알려달라!

흠흠, 늘 청결을 유지하고 상황에 맞게 입으면 된다. 아무리 몸짱이라고 해도 근육이 다 드러나는 꼴티는 별로다. 멋부리지 않은 듯 심플한 흰 셔츠에 청바지는 모든 남자애게 잘 어울리는 룩이다.

마지막으로 MAXIM과 MAXIM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MAXIM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처럼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MAXIM이야말로 남자가 진정 원하는 것을 아는 잡지다. 그러니 세계 최고의 남성 잡지가 되지 않았겠나. 그러니 당신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달라. 그리고 이 기사를 보고 있을 전 세계 모든 여성에게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꾸준히 MAXIM을 읽어요! 그리고 인생을 즐기세요!" 

Military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세기의 전투 Best 5

BY 군사전문가 김대영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지금까지도 국토가 분단된 상황에 놓여 있다. 전쟁은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참혹한 역사이지만, 드라마틱한 전투는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기도 한다. 이번 달에는 한국 근대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25를 맞아 '세기의 전투 Top 5'를 선정해 보았다.



워털루 전투(Battle of Waterloo) 나폴레옹의 고별무대

재기의 발판

프랑스가 낳은 유럽의 영웅 나폴레옹. 그는 군인이자 제1통령이며 황제를 지낸 인물로, 잘 나가던 시절에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륙 대부분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이 실패하면서 큰 위기에 직면하고, 결국 엘바섬으로 쫓겨나게 된다. 전투 처리를 위한 빈 회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나폴레옹은 엘바섬을 탈출해 프랑스로 돌아와 다시 한 번 유럽 대륙을 공략할 전투를 준비한다.

명장 vs. 명장, 그리고 역전패

결국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유럽 동맹군은 1815년 6월 18일, 벨기에의 워털루에서 결전을 벌인다. 워털루 전투에 앞서 프로이센 군을 격파한 프랑스군은 동맹군에 비해 사기가 크게 올라 있었다. 전투 초반까지 프랑스군의 공격은 별 성과가 없었지만 오후가 되면서



살감나는
게임 속 전투



쿠르스크 전투(Battle of Kursk)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전

명불허전 독일 전차 군단의 위엄

1941년 6월 22일 전차군단을 앞세운 독일군은 동쪽의 소련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한다. 막강한 독일군의 진격에 당황한 소련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하지만 러시아의 겨울은 혹독했고 나치 독일은 수도 모스크바를 눈앞에 두고 퇴각해야만 했다. 이후 독일군은 소련의 요충지였던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기 위해 공세를 펼치지만, 소련군의 완강한 저항과 반격에 22만여 명의 전사자와 9만여 명의 포로만을 남기고 후퇴한다.

예상치 못한 육탄전, 그리고 나치 독일의 패망

이러 나치 독일은 전세를 뒤집을 만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한다. 소련군은 독일군이 쿠르스크를 공격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고, 독일 전차군단의 발을 묶기 위해 참호와 지뢰밭 그리고 대전차 포를 촘촘히 구축해 놓는다. 1943년 7월 5일, 독일군의 포격이 시작되고 전차군단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지뢰로 독일군의 진격이 지지부진해진다. 양국 군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프로호르프카에서 전무후무한 전차전을 감행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7월 12일 아침, 200여 대 가량의 독일군 전차와 600여 대의 소련군 전차가 맞부딪힌다. 수백 대의 전차가 3km에 불과한 지역에서 뒤엉켰고, 소련군의 T-34 전차는 당대 최강의 전차였던 독일의 타이거 전차에 육탄전으로 맞섰다. 이 전투에서 총 700여 대의 전차가 파괴되었는데, 전장은 파괴된 전차의 잔해와 피와 살이 타는 냄새로 진동했다. 양측 모두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독일군은 막대한 손해를 만회할 능력이 없었다. 이후 전선의 주도권은 소련에게 넘어갔고 나치 독일은 패망의 길에 들어섰다.



저기가 우리 집이야

불타고 있는 곳
말인가?

프랑스군은 영국과 네덜란드군의 진지를 하나 둘 점령하기 시작했고, 전세는 프랑스 쪽으로 기울어 갔다. 하지만 당시 유럽 동맹군을 지휘하던 웰링턴 공작은 나폴레옹 못지않은 명장이었고, 나폴레옹의 '마지막 한 방'이었던 기병대를 꺾어버린다. 게다가 패하여 달아났던 프로이센군이 다시 나타나 전투의 형세는 완전히 뒤집어진다. 결국 프랑스군은 3만여 명의 사상자를 남긴 채 퇴각하고, 위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6월 22일, 영국 군함에 실려 대서양의 세인트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쓸쓸한 최후를 맞이한다.



더워... 탱크보이
먹고 싶다.

Military



근대 과학은
왜 있는 거냐?

한밤에
맞추라고ㅋㅋ



영국 본토 항공전 (Battle of Britain) 나라를 구한 공중전

독일군의 상륙작전 전개

1940년 7월, 서유럽을 집어삼킨 나치 독일은 마지막으로 남은 영국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최후의 상륙작전을 준비한다. 하지만 제공권을 장악하지 않는 이상 상륙작전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았다. 독일 공군은 1940년 8월 13일, 영국 공군을 섬멸하기 위한 독수리의 날 작전을 개시, 이후 영국 본토 상공에서는 치열한 공중전이 전개된다. 당시 독일의 공군은 막강했으나, 영국 공군은 독일 공군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었고, 레이더 기지 또한 촘촘하게 설치해 두었다. 전투 초기에는 영국 공군의 전투기 손실이 독일 공군보다 많았지만, 홀그라운드에서 벌어졌던 전투였던 만큼 격추된 전투기에서 탈출한 조종사들은 빠른 시간 내에 기지로 복귀할 수 있었다.

순간의 실수가 심은 패배의 씨앗

하지만 이 와중에 독일 공군 폭격기의 실수로 폭탄이 런던에 떨어지면서, 전투의 양상은 180도 바뀌게 된다. 영국 공군의 폭격기들은 베를린을 폭격하기 시작했고, 다급해진 독일 공군은 영국 공군의 비행장과 레이더 기지에 대한 폭격을 중지, 대신 런던 폭격에 집중했다. 이 기간 동안 영국 공군은 전투기와 조종사를 보충하기 시작했고, 전투기를 대규모로 출격시켜 런던 상공에 나타난 독일 공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요격하기 시작했다. 1941년 5월까지 이어진 영국 본토 항공전은 결국 영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승승장구하던 나치 독일의 연승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다.



인천상륙작전 성공률 5,000대1의 도박

예견된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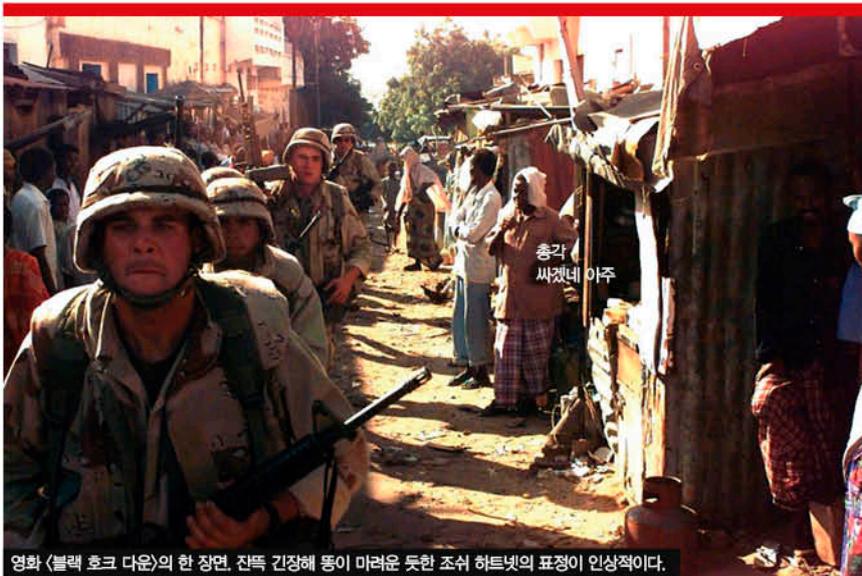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낙동강까지 진격한 북한 공산군은, UN군의 참전과 한국군의 반격으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낙동강에 전선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UN군의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상륙작전을 구상하게 된다. 사실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원수가 전쟁

발발 직후 한강에 이르러 전선을 시찰할 때 구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맥아더 원수는 합동작전기획단을 따로 편성하고,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합동작전기획단은 인천, 군산, 주문진 세 군데에 각각 상륙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명장의 고집, 그리고 기습 작전의 성공

처음에 맥아더 원수가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펼치겠다고 하자, 미 해군 관계자들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상륙작전을 펼치기에는 지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맥아더

원수는 오히려 적의 하점을 찌르는 기습이 될 수 있다며, 인천 상륙을 주장해 미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얻는다. 1950년 9월 15일, 영종도 근처에 UN군 합정 200여 척과 7만여 명의 병력이 집결하기 시작했다. 새벽 5시, 함포 사격과 함께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 월미도 일대에서 벌어진 상륙작전은 오전 중에 성공리에 진행되었고, 뒤이어 인천 시가지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었다. 인천 일대에 북한 공산군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UN군의 기습에 놀라 도망가기에 바빴 뿐이었다. 인천 장악에 성공한 UN군은 서울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결국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북한 공산군 주력 부대의 후방에 새로운 전선이 구축됨에 따라, 국군과 UN군은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나 북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영화 <블랙 호크 다운>의 한 장면. 진득 긴장해 땀이 미려운 듯한 조쉬 하트넷의 표정이 인상적이다.

모가디슈 전투 (Battle of Mogadishu) 대테러전의 시작

대테러 소탕의 전초전

1991년, 권력 다툼으로 시작된 소말리아 내전은 군벌 간의 전쟁으로 번졌고, 대기근마저 겹쳐 소말리아는 지옥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UN은 1992년 12월, 내전의 조기 종식과 식량의 원활한 배분을 돕기 위해 미군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을 파병한다. 하지만 소말리아 군벌 가운데 가장 큰 파벌을 이끌고 있던 아이디드는 1993년 6월 5일 파키스탄 군을 공격해 2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에 격분한 미국을 비롯한 UN 회원국은 아이디드를 체포하기로 결정한다. 곧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와 레인저가 소말리아 모가디슈로 파병되었고, 10월 3일 아이디드의 참모진을 체포하기 위한 고덕 서펜트 작전이 시작된다.

블랙 호크 다운

애초 반나절이면 끝날 작전은 MH-60 블랙호크 헬기가 RPG-7 대전차 로켓에 격추되면서 꼬이기 시작한다. 격추된 헬기의 조종사들을 구출하기 위해 병력들이 도착하지만, 아이디드를 지지하는 민병대원들이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헬기가 격추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기 시작했고, 모가디슈 시내의 법집을 쭈셔 놓은 듯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한다. 10월 4일,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다국적군이 편성되었고,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한 구조대는 병사들을 가까스로 구출한다. 당시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 내에서는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소말리아 민병대 및 민간인은 4천~5천여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당시 미군 병사들의 시신을 소말리아 군중들이 모가디슈 거리에서 끌고 다니는 모습이 TV에 방영되어, 미국인에게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으며 결국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소말리아에서 철수한다. 🇺🇸

미디어 속 세기의 전투

전쟁은 보면서 체험하는 걸로 충분하다.



워털루 전투

PC 게임

<나폴레옹: 토탈 워>

워털루 전투를 게임으로 만나고 싶다면 <토탈 워>

시리즈의 나폴레옹 편을 즐겨 보자. 워털루의 완벽한 지형 묘사와 전쟁의 먼지, 대군의 행렬 등 박진감 넘치는 요소로 가득하다!



쿠르스크 전투

PC 게임

<월드 오브 탱크>

<워게이밍>의 야심작 <월드 오브 탱크>는 역사 고증을

바탕으로 한 '히스토리 배틀' 모드를 제공한다. 첫딩이가 뛰는 탱크들의 박진감 넘치는 육탄전을 체험해 보고 싶다면 강추!



영국본토항공전

영화 <공군대전략>

가이 해밀튼 감독의

1969년작 <공군대전략>은 영국본토항공전을

박진감 넘치게 그려낸 영화다. 어색한 CG가 오글거리긴 하지만, 영화의 클라이막스 신은 전쟁을 나름 박진감 넘치게 그려냈다.



인천상륙작전

영화 <오! 인천>

테렌스 영 감독의 1981

년작 <오! 인천>은 140분 간

6:25 전쟁의 참상을 그려낸 작품이다...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손안나 에디터의 리뷰를 직접 감상하도록(p.44).



모가디슈 전투

영화 <블랙 호크 다운>

가장 리틀리 스포츠의 <블랙 호크 다운>은 두 시간이

넘는 상영 시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흡입력이 뛰어난 영화다. 조쉬 하트넷, 이완 맥그리거의 열연과 훌륭한 연출로 전쟁의 참상을 매우 적나라하게 그려냈다.



Sexy On The Beach **Cora Deitz**

키스를 부르는 도톰한 입술의 코라 디츠,
그녀가 지금 비키니만 입고 해변가에 누워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Cora Deitz

생일: 7월 19일

사는 곳: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좋아하는 연예인:

휴 잭맨, 앤젤리나 졸리

싫어하는 것:

자만심 그리고 물질만능주의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자연스러운 보디라인

즐거 마시는 술:

기네스 엑스트라 스타우트

갖고 싶은 초능력: 시간 조종 능력



이름이 특이하다. '코라'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 건가?
고조고조고조할머니가 지어주셨다. 그리스어로 '심장'이라는 뜻이구나? 지금까지 살면서 나랑 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는 한 명도 못 만난 걸 보니, 내 이름이 독특하긴 한가 보네.

모델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어느 날 쇼핑을 하고 있는데 핑크색 드레드 머리를 한 섹시한 여자가 다가와서 자신의 회사에서 추진 중인 아트 북 모델 일을 제안했다. 그날 이후로 난 카메라와 사랑에 빠졌고, 그 회사의 전단지과 포스터는 모조리 내 차지였다. 그렇게 역사가 시작됐지.

굉장한 '하이힐 마니아'라고 들었다.
그런 건 또 어떻게 알았나?(웃음)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이 세상에 하이힐을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있을까?

정말? 하이힐을 안 신는 여자도 많다.
본인이 평소엔 어떻게 입고, 어떤 스타일의 구두를

선호하든 상관없다. 여자는 하이힐 그 자체를 사랑하는.

여자는 왜 그리 구두에 집착하는 건가? 신발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하이힐은 아이스크림 꼭대기에 있는 체리 같은 존재다. 어떤 옷을 입든지 예쁜 하이힐은 늘 완벽한 마무리를 선사하니까. 힐을 신으면, 스타일도 살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훨씬 여성스러운 매력을 살릴 수 있거든. 그러니 당신 여친이 더 섹시하고 여성스럽길 바란다면 하이힐을 선물하라.

당신은 어떤 남자에게 끌리는가?
지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아는 남자. 한마디로 성숙한 어른 남자! 그런 사람이 섹시하지.

누군가 당신더러 클럽에 가는 것과 소파에 앉아서 비디오게임을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편하게 앉아서 비디오 게임 하는 걸 택하겠다.

클럽을 싫어하는 건 아니다. 춤추는 걸 좋아해서 가끔은 댄스 플로어에 올라가서 격렬한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올여름 가장 떠나고 싶은 휴양지가 있다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는 곳이 하나 있다. 멕시코의 유카탄반도에 있는 툴룸! 몇 달 전 촬영 때문에 가봤는데,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다!

해변으로 떠날 때 챙겨야 할 아이템을 세 가지만 꼽는다면?
책, 선크림 그리고 아이팟.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해변에서 며칠이고 머물 수 있다.

그곳에서 알몸으로 수영도 하고? 캐
깜깜한 밤, 누군가와 함께라면 오케이이다. 물론 나를 잡아먹지 않을 만한 안전한 사람이어야겠지? ☹



“

가끔은 댄스 플로어에 올라
격렬하게 춤추고 싶다.

”

WORDS: GRACE KOFTEKIAN PHOTOGRAPHER MICHAEL VINCENT MAKEUP LILIANA MONTTOYA STYLING TAL-B
WARDROBE MERMAIDS COLLECTION PRODUCE VALENTINO BOOKED VMGImage Group PR



Party

the MAXIM On Air Party : 2013. 4. 19



우리 이거 매주 하면 안 될까?

BY 김희성



MAXIM과 UFC의 콜라보레이션 파티가 열린 2월 15일 이후 이날만 기다려왔는지 "다음 파티가 언제냐"는 독자와 지인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처음 MAXIM PARTY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MAXIM PARTY에 놀러 오라는 에디터의 초대에 "그게 뭐야?"라는 무안한 답변이 돌아오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알고 먼저 연락이 온다. "너네 파티 한다며?"



이날의 파티 장소: 클럽 옥타곤





광고마케팅팀 신입사원이 일일 리포터를 맡았다.



많은 이가 고대하던 MAXIM PARTY는 4월 19일, 우리나라에서 시설도 수질도 가장 좋다는 CLUB OCTAGON에서 열렸다. 이번 파티의 콘셉트는 'ON AIR'. 11시 이전 클럽 입구에서 외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비밀 암호도 있었는데, 이날의 암호는 'ON AIR MAXIM'이었다. MAXIM 홈페이지에서 미리 정보를 입수한 클러버들은 입구에서 암호를 외치고 공짜로 입장 팔찌를 '갓'했다.



Party



얼마나 금했든지 시원증을 목에서 빼는 것도 잊은 또 한 명의 신입사원



포토 월이 들어선 입구에서는 MAXIM 직원이 일일 리포터로 변신해 파티를 찾은 클러버들에게 말을 걸었다. 인터뷰를 핑계로 섹시녀들에게 말을 거는 데 성공한 우리는 쾌재를 불렀고 어느새 클럽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자정이 지나 파티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갔고 정점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클럽에서 가장 무아지경이 된다는 새벽 2시, 필 받은 MAXIM 여직원 몇 명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테이지 위로 올라가더니 술을 마구 뿌려댔다. 디제이 쿠형님의 디제잉과 함께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다.



흥에 겨워 자진해서 스테이지에 올라간 편집 1팀 신입 에디터의 패기. 브라보! 역시 우리팀 신입다워!





남자 신입은 대대로 인형탈 체험을...



본격
수질 탐방



그래,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 MAXIM PARTY를 처음
시작했을 땐 성비가 거의 남탕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젠 여자가 더 많다. 그것도 예쁘고
섹시한 여자개! MAXIM을 보는 남자, 베드
가이들이 잔뜩 모인 클럽에 예쁜이들이
알아서 찾아온 거지. 파티 물이 이렇게
흘름해서야 원... 우리 이거 매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



봉인 해제한 맥시 CEO의 신입 비서



Party DJ of the Month #2



DJ Brain-X a.k.a Beejay

DJ Mind-X a.k.a Mindbender
 소속: Octagon
 장르: Electro House

•요즘 클럽 씬을 장악하고 있는 하우스 음악의 한 장르. 1980년대 신스팝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거칠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특징이다.



Shut Da Mouth

옥타곤에서 만난 대한민국 넘버원 디제이 듀오 셋다마우스, BY 손안나



DJ KOO가 DJ 릴레이 인터뷰의 다음 주자로 셋다마우스를 지목했다.

비제이: 옛날부터 이곳 씬에서 자주 부딪히니 인연이 많았다. 최근에는 '밥밥디라라' 리믹스도 같이 했고, 다른 연예인들은 디제잉을 취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준엽이 형은 이게 본진이다. 물론 형도 처음 디제이로 전업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안 좋아하긴 했지.(웃음)

마인드벤더: 지금은 다 좋아한다. 정말 열심히 하니까. 진짜 디제이다.

팀 이름이 심상치 않다. 입 닥치라는 건가?

마인드벤더: 처음에는 언더그라운드 성향의 답한 음악을 많이 했다. 좀 더 대중적인 성향으로 음악적 색깔을 바꾸면서 팀명도 세계 지어봤다. '닥치고 (음악을) 즐기자'는 의미다.

마인드벤더는 강남 테크노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라던데...

마인드벤더: 테크노라는 게 클럽 음악 중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다. 다크해서 춤추기에도 적당하지 않고 강남은 이 장르의 불모지였다. 세고 빠르고 끝까지 가는 음악이 주를 이뤘다. 애프터 클럽이 하나 둘 생겨나면서 이 씬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클럽도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니 여러 장르의 음악이 공존해야 하지 않겠나?

비제이가 클럽 씬 1세대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디제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비제이: 난 셋다마우스하겠다.(웃음)

클러버들이 왜 셋다마우스를 좋아할까?

마인드벤더: 우리는 무대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즐긴다.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약한 것 같다. 술 마시고 무대에 오르는 건가?

마인드벤더: 많이 마시지. 페스티벌 같은 데서는 막 보드가 한 병 다 마셔버리고...

비제이: 정신줄을 놓기 위해서다. 예전에는 우리도 술을 잘 못 마셨는데, 관객과 호흡을 맞추려면 비슷한 수준으로 취해야겠다고.

대체 얼마나 클럽을 좋아해야 디제이가 되는 건가?

비제이: 어렸을 때부터 흥대인 조그마한 클럽에 매일같이 놀러갔는데, 어느 날 거기 디제이 형이 이 일을 제안하더라. 그때 지금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디제이 한 명이 하루 종일 노래를 틀던 때였다. 영업시간 내내. 그때 그 형이 되게 힘들었나 보다. 그러던 차에 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놀고 있으니 눈에 띄었던 것 같다.

마인드벤더: 원래는 회사원이었다. 주말 아침 8시 타임을 맡으면서, 주중에는 회사에 다니고 쉬는 날에는 디제이로 일했다.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디제이라니... 갑자기 영화 <반칙왕>이 떠올랐다.

마인드벤더: 20대 초반부터 워낙 클럽에 자주 다녀서 이 생활은 익숙했다. 다만 회사 생활이 적응이 안 됐다.(웃음)

밤늦도록 공연하니까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할 것 같다.

마인드벤더: 그렇지 않다. 난 아침 10시에 일어난다. 셀프 프로모션도 해야 하고, 음악도 만들어야 하고, 선곡이랑 믹스도 해야 하고, 공연도 다녀야 하고... 단순히 디제이 부스에서 디제이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정말로 주변에 섹시한 미녀들이 득실대나?

비제이: '아는 사람'은 많다.

비제이&마인드벤더: 근데 딱 거기까지다.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바가지질 끊을 것 같다.

마인드벤더: 내 와이프는 디제이 하면서 만났기 때문인지 이해해주는 편이다.

비제이: 클럽에서 만나는 여자들은 다 이해해준다. (웃음) 밖에서 만나면 오래 못 가더라고.

셋다마우스와 클럽에서 즐겁게 놀고 싶다면?

마인드벤더: 클럽에 오는 목적을 스스로 명확히 하면 된다. 스트레스 풀러 왔다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신나게 놀다 가라. 옆 사람이 즐거워야 나도 즐겁다는 듯이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조금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됐으면 좋겠다. ☺



Who's Next?



DJ Mazestik
Coming in July

Hot Sau

The Sexy Helper

미국 MAXIM이 뽑은 2013년도 '핫타운 히티스' 결승 진출자 퍼세파니 레스퍼랜스. 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동안 아무도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은 아리까리한 인생 문제들에 대해 명쾌한 답을 준다.

ce



PHOTOGRAPH CARLOS NUNEZ STYLING KRISSE TORGERSON HAIR MARSHALL VANIERLAND/ONE LUV AGENCY MAKEUP CARA MACCIANTI

이 안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어!



Q. 여자친구와 처음으로 휴가를 함께 보내게 됐다. 여자랑 함께 가면 절대 안 되는 나쁜 휴가지로 어디가 있을까?

A. 최악은 할머니 댁이나 친척 집이겠죠. 당신 가족을 만나는 건, 거기가 어디건 그녀에게 결코 휴가가 아니니까요.

Q. 여자친구가 손수 만들었다며 케이크를 주었다. 하지만 보기엔 빵집에서 파는 거랑 차이가 없어 보인다. 내 여친이 제빵왕 김탁구일리는 없고.. 직접 만든 케이크랑, 빵집 케이크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A. 케이크 위 크림이 너무 균일하게 발려있고, 장식도 너무 완벽하게 깔끔하다면 100% 빵집에서 산 거랍니다.

Q. 어떤 제2외국어를 배워줘야 여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A. 프랑스어는 어때요? 아동에서 배운 일본어를 하는 남자보다 훨씬 섹시할 거예요.

Q. 별레가 싫다. 특히 애벌레는 너무 무섭다. 어떻게 해야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A. 아이참, 남자가! 나비 박물관 같은 델 가보세요. 당신이 엄지에 힘을 조금 주면 터뜨려 죽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별로 무섭지 않을 거예요.

Q. 바지는 세탁하고 몇 번이나 입고 빨면 될까? 아무도 안 가르쳐준다.

A. 곧 여름이니 요즘은 두 번이면 적당하겠네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보니... 당신은 지금 당장 바지를 벗어서 세탁기에 돌리는 게 좋겠군요.

MAXIM BUYER'S EDGE

밀러 마시고 뮤직 투어 가자!

맥주 브랜드 밀러는 <밀러 뮤직 투어 인 서울> 개최를 기념한 스페셜 패키지를 출시한다. 또 소비자 1,000명을 뮤직 투어에 초청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는 '밀러 뮤직 투어 인 서울' 스페셜 패키지에 동봉된 스크래치 카드를 긁어 나오는 핀코드를 이벤트 사이트에 입력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6월 27일까지다. <밀러 뮤직 투어 인 서울>은 6월 28일 오후 7시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플래튼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한다니 밀러 마시고 구경가자!

사브밀러 브랜드 코리아 유통회사
(02-3019-6020, www.miller.co.kr)



SnusMan

담배 냄새 걱정 없는 스누스(SNUS), 국내 최초 출시

금연 구역의 확대에 의해 흡연이 힘들다면 무연담배 스누스를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 북유럽에서 2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스누스는 장소에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썬스누스맨은 지난 4월 오프로드, 팬텀, 썬더 스누스 등 10종을 국내에 첫 출시해 현재 절친리에 판매 중이다. 스누스는 전국 스누스 전문 매장(부천점, 인천점, 분당점, 안산점, 의정부점, 대구점, 대전점)과 서울 내 취급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판매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문 매장과 판매점은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7,300원(오프로드, 팬텀), 7,800원(썬더), 8,000원(오프로드 미니) 스누스맨(02-782-5765, www.snusman.co.kr)



칼스버그, 2013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와 함께!

6월 14일, 15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일렉트로닉 음악 페스티벌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를 칼스버그가 공식 후원한다. 라인업에는 떠오르는 스웨덴 듀오 디제이 카제트와 아프로젝, 칼 콕스 등 거물급 디제이와 개그맨 박영수, 로봇 디제이이자 퍼포머인 카이로맨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칼스버그와 어울리는 HOT한 친구를 칼스버그 페이스북에 초대하면 25만 원 상당의 VIP 티켓 2매와 칼스버그 부스 VIP 초대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칼스버그 페이스북(www.facebook.com/carlsberg.kr)



써모스 스테인리스 보틀 출시

100년 이상의 전통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는 보온병의 대표 브랜드 써모스가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젊은 남성을 타겟으로 한 스테인리스 보틀을 출시했다. 원터치 오픈으로 쓰기 편하고, 남성이 넘치는 디자인으로 시선을 끄는 써모스 스테인리스 보틀은 이번에 각기 다른 스타일과 개성을 지닌 8가지의 디자인을 선보였다. 2013년 한정판을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겠다. 이 멋진 디자인의 보온병을 가방에서 꺼내어 따뜻한 음료를 그녀에게 건넨다면 센스와 매너 두 항목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거다. 여러모로 탐나는 아이템이다.

3만 원, 써모스(www.thermos.kr)



몸짱보다 쉽게 인기얻는 방법은? 서울밝은안과와 함께!

울 여름, 주목 받는 몸짱이 되기 위해 헬스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안경남은 주목하라. 매끈하게 다져진 탄탄한 몸도 좋지만 우선 안경부터 벗어보는 건 어떨까? 시력교정술이 몸짱 변신보다 더 쉬울 뿐더러 상대방에게 깔끔한 인상까지 심어줄 수 있다. 맥스 에디티가 추천하는 서울밝은안과는 이미 시력교정술로 정평이 난 병원. 홈페이지에 다양한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라식, 라섹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독자들은 한번 방문해보길 바란다.

서울밝은안과(1566-0838, www.yourlasik.co.kr)

ONLY FOR MEN

HOW DO YOU DO DO?

MADE IN JAPAN

TENGA
NEW ADULT CONCEPT
BE POSITIVE, BE SMART, BE FREE
TO MAXIMIZE YOUR SEXUAL LIFE!

백만가지 어덜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bururu에서, 텡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르르 모바일 페이지 접속 후, 쿠폰번호를 등록하시면

TENGA 전상품 20% 할인!

쿠폰번호 : MX01-ECB5-4BD0-C733

모바일 기기에 bururu.com



어른들만을 위한 명랑완구 전문점
bururu.com

친절 전화상담 | 부르르 고객센터 : 1661-7725



갤럭시 S4 제대로 활용하려면 아이커버 AIO-S!

아이커버에서 선보이는 AIO-S는 케이스를 열지 않고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S-view 기능을 탑재하고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림한 플립 형태의 올인원 케이스다. 특히 커버를 열지 않고 화면을 볼 수 있는 갤럭시 S4의 기능이 최적화된 센서 부착 플립 커버가 장점이다. 플립 형태의 케이스는 큰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의 전면과 후면을 완벽하게 보호한다. 하나의 케이스에 S-view, 플립 커버, 카드 수납 3가지 기능을 접목한 이 제품은 아이커버 스마트폰 액세서리 중 단연 최고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커버(www.icover.kr)



ROAD FC 012 밴텀급 챔피언전 주목!

오는 6월 22일, 원주 치익체육관에서 ROAD FC 12회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ROAD FC 밴텀급 챔피언전 자리를 놓고 강력한 펀치를 가진 이길우 선수와 뛰어난 테크닉과 강한 체력의 송민중 선수가 격돌한다. 또한 거리에서 폭행범을 제압해 화제가 된 정의로운 파이터 김지훈 선수가 일본 CMA 챔피언 노지 류타 선수와 한판 승부를 벌인다. 이외에도 ONE FC 밴텀급 챔피언 김수철 선수와 LFC 웰터급 챔피언 배경호 선수도 출전한다. ROAD FC 012는 6월 22일 토요일 슈퍼액션을 통해 독점 생중계된다.

슈퍼액션(080-080-0780)



루미녹스, SXC와 손잡고 우주 비행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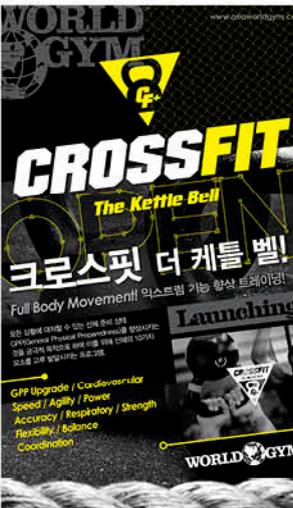
특수 군용 시계로 세계적 인정을 받은 스위스 워치 루미녹스가 Space Expedition Corporation과 우주 비행 사업을 제휴한다. 첫 시험 비행은 이번 여름에 있을 예정이며, 2014년 카리브 해에 있는 퀴라스 스페이스 포트에서 첫 상업 우주 비행을 시작한다. 비행 시간은 한 시간으로 조종사를 제외한 한 명의 사람만 탑승할 수 있다. 지상 103km까지 올라가 한 시간 동안 우주와 지구를 감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참가 비용은 1억이다. 평생 경험하기 힘든 우주 세계를 체험하고 싶다면 루미녹스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미림시계(02-757-9866, www.luminowatch.co.kr)

겐조퍼퐁, 겐조 옴 스포츠 익스트림 선보여

겐조퍼퐁이 6월을 맞이하여 남성 향수 겐조 옴 스포츠 익스트림을 출시한다. 겐조 옴 스포츠 익스트림은 스포츠맨을 위한 프로스틱 아로마향으로, 상쾌한 즐거움과 직장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아이스 민트와 레몬의 환상적인 조합은 주변 사람의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든다. 상쾌함과 파워풀함의 두 가지 남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고 싶다면 겐조 옴 스포츠 익스트림을 추천한다. 다가올 여름 겐조 옴 스포츠 익스트림으로 쿨기가 되어보자. 제품은 전국 백화점과 겐조퍼퐁 직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 볼 수 있다.

76,000원(50ml), 103,000원(100ml), 겐조퍼퐁(www.kenzoperfume.co.kr)



월드짐 크로스핏 프로그램으로 여름 준비 끝!

우리는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뭉뚱이 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 하고 고민한다. 국내 최대 규모 휘트니스 프랜차이즈 월드짐 1호점인 경기도 일산 본점에서 크로스핏 더 케틀벨이 문을 열었다. 크로스핏을 배우고 싶지만 숙련자의 포스에 몸을 움츠렸다면 일산 본점에서 차근차근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기초 체력 증진과 다이어트 효과가 탁월한 크로스핏은 개개인의 힘과 능력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든지 운동할 수 있다. 운동 시 부상이 많은 바벨을 사용하지 않고 케틀벨을 사용하여 운동 강도는 그대로 가져오고 부상은 최소화한다. 입문자를 위한 무료 체험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다. 월드짐(031-932-7010)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을 텐데...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대대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팍팍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 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리보자. 어서 신청하러!

간첩 신고는 113,
전역 신고는
MAXIM으로!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전역 인증
게시판
바로 가기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3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할아버지가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쏜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2명에게
멋진 'J.SPRINGS'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3년 6월 20일까지)

전역지랑겔

내가 재벌 2세라도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2년을 희생한 진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유공자급 평생 멤버십!



윤민재 평생 30%
아, 드디어 MAXIM에 전역 인증을 하네~^^ 우리 불음도 아이들아,

진짜 정말 고생이 많다. 내가 다 알지. 노스 코리아 못된 놈들! 그래서 조금이나마 군 생활에 활력이 되라고 이 글을 쓴다. 전역할 때 머리를 진짜 많이 길러서 나와라. 그래야 형처럼 바로 파마하고 사회에 적응 할 수 있어 내가 아마 육해공 통틀어서 전역할 때 머리카락이 가장 길었을 거야. 밖에 나와서 마장동 한우도 먹고, 술도 마시고, 클럽도 가니 정말 살 맛 난다! 그러니 빨리 나오렴. 그리고 남들이 정말 모르는 위험한 곳에서 생활하니까 자부심을 갖고 건강히 제대해라~ 우리 2생활반 아이들 필승!



김효성 평생 30%
애들아, 너희가 과월호를 받아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능력껏 잘 보길 희망한다. ㅋㅋ 군대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다. 지금 전문하사 안 한 거 후회하고 있다. 전문하사 꼭 하게 바란다 파이팅!



김성섭 평생 30%
반갑다, 애들아. 입대 당시 안 올 것 같던 전역 일도, 전역하고 두 달이나 지났구나.

참 밖에서는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그곳에서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나가고 싶어 했을까. 어쨌든 남자라면 한 번 가는 군대. 정말 추억인 것 같다. 군 생활 남은 애들 자기관리 철저히 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 수고해라!



윤경남 평생 30%
취사병 후임들아, 고생이 많다. 이제 곧 여름이라서 잔반과

더위와 파리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하하! 멍들 또 엄청 울리겠네. 나는 여름에 에어컨 즐기면서 여자친구와 여행이나 다녀야겠다. 애들아, 힘들겠지만 밥 열심히 짓고 다음에 전역해서 꼭 보자꾸나!



이문환 평생 30%
우리 특전사 귀성 본부대 7생 이가들아. 형이 이거 해준다고 했지. 필자는 모르겠

지만 훌륭하신 MAXIM 관계자들이 꼭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올려본다. 각자 남은 군 생활 열심히 하고, 특전사는 MAXIM도 특전 마인드로 읽는 거 알지?



강주혁 평생 30%
지금쯤 부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새끼들! 형이 MAXIM

에 전역 인증 한다고 했지? 형은 잘 지낸다. 너희도 곧 바깥공기 마시며 형처럼 MAXIM을 통해 전역 인사하는 날이 빨리 오기 바란다!



이상림 평생 30%
내가 전역한 게 꿈만 같지? 거의 1년 동안 분대장 달면서 싶은

소리도 많이 했는데 미안...하진 않아. 다 너희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거였으니까 ♥ 아무튼 너희도 다들 얼마 안 남았는데 유종의 미 거두고 얼른 나오너라. 우리 다들 찜질 때부터 말한 것처럼 드디어 이제 다들 밖에서 볼 수 있어 난 좀 일찍 나와서 자리를 잡아놓는 거지. 하하~ 그래도 내가 너희보다 군 생활 하루 이틀쯤 더 많이 한 거 있지 마라. ㅋㅋ 아무튼 거기 있는 동안 MAXIM 보고 대리만족해. 자유 시간도 많아서 뭐 하려면 다 보겠다. 열두 권. ㅋㅋ 수고해 풀겔이들~



오요한 평생 30%
진짜 다른 중대보다 우리 중대가 훨씬 힘든 거 대대 전부가 알고

있잖아. 특히 계원들 나랑 군 생활하면서 고생 많았다. 형은 이제 여자친구랑 천년만년 잘살 거야. 너희도 나오면 생길 것 같지? 안 생겨. 그러니까 군 생활 열심히 해라. 나와서 술 한잔 하자! 사랑한다!



손각진 평생 30%
국가는 나에게 민간인이라 신분을

하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MAXIM 과월호를 선물할게. 내가 전역하면 과월호 보내준다고 했지? 안에서 서로 잘 지낼 거라고 믿고, 날 믿고 따라줘서 고맙다. 사랑하는 후임들아, 너희의 전역이 보이지 않지만 건강히 전역하기 바라. 난 안에서 MAXIM을 보고 느낀 스킬과 센스를 먼저 발휘(?)하게 그림.



유한일 평생 30%
아, 너희는 좋겠다. 나라에서 돈 주고, 밥 주고, 재워주고, 나

백수야. 내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고 갈게. 힘 너무 빼지 말고, '돌격대대'잡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어쨌든 고생해~



이서운 평생 30%
사랑하는 후임들아, 먼저 전역해서

미안하고 그동안 고마웠다. 남은 군 생활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마쳐. 전역증 사진 몰래 MAXIM 포토월로 찍느라 고생한 성진아, 고맙고, MAXIM 포토월 만들어준 원광이, 앞으로도 MAXIM 열심히 보고, 그림 다들 밖에서 만나자. 고생해라!



김하늘 평생 30%
황성광 병장, 이규연 병장, 김재준 상병,

김동철 상병, 김동주 상병, 송수영 일병, 강경진 일병, 전병균 일병, 이민우 일병, 신동민 일병! 너희들 진짜 보고 싶다. 너희는 내 보고 싶겠나?ㅋ, 내가 MAXIM 갖다줄게. 그거 보면서 군 생활 힘내라! 사랑한다. 총포반 애들아!



김성완 평생 30%
니가 보내라고 해서 진짜

보낸다. 일어서 봐라. ㅋㅋ 막상 나오니까 힘들다. 일도 안 구하고 놀고만 있고,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컴퓨터는 맛 가서 포맷만 지금 2번 넘게 하고 있고... 그래도 거기보단 좋아. 빨리 전역해라. 두 번 해라. ㅋㅋ

위 13명을 비롯한 총 180명의 용사! MAXIM에 전역을 신고하고 정기구독 평생 30% V MP가 되겠다!

Unpicked

이달의 몸쓸 사진

이상한 이유로 못 쓴 이상한 사진들 대 방출!



알고 보니 콧꺼?

이달의 몸쓸 손 사진 1

표지모델 비키 화보(p.98)



안 쓴 이유 손이 마치 '획유'를 날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역시! 이렇게 예쁜 처자가 그럴 리 없지!



최혜연 화보(p.36)



안 쓴 이유 그 맥심이 아닌데 찍혀버려서. 커피 맥심과 잡지 맥심의 한 판 대결! 모델로 한 판 뜰까? 혜연씨, 이나영 따위 발라버릴 수 있지?



이달의 몸쓸 손 사진 2

ICON 김보성(p.86)



안 쓴 이유 어퍼컷 연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기 얼굴을 칠 뻔 했다. 사진만 봐도 위태로움이 전해지지 않는다.



누구 손이나 이거?

이달의 몸쓸 손 사진 3

MISS MAXIM 화보(p.126)



안 쓴 이유 분명 자기 손으로 얼굴을 받치는 사진인데, 아래에서 머리를 밀치는 것 같다. 나도 뭔가 하고 한참을 뚫어지게 봤다.

Unpicked



이달의 몸쓸 집착 사진 1



WHO'S THAT GIRL 박아인(p.114)

안 쓴 이유 글러브 뺏었다가 쥐어 터질 것 같아서. 근데 귀엽당!



이달의 몸쓸 집착 사진 2

MOTOR 독자 화보 최현아(p.62)



안 쓴 이유 휴식시간 중에도 카메라 렌즈에서 눈을 떼지 않는 최현아가 화보 촬영 전용 사이보그 같아서. 도할도 못 하겠네, 아이고 무서워라. 근데 진짜 귀엽당!



이달의 몸쓸 XX 사진 1

MUSIC 술탄 오브 더 디스코(p.48)



안 쓴 이유 어쩌다 보니 거시기가 너무 큰 것처럼 나와버렸다. 이 사진 썼으면 더 좋아했을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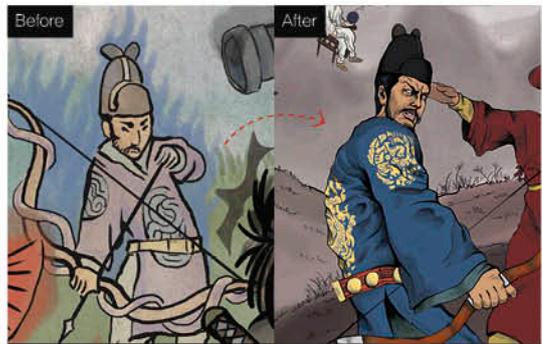


이달의 몸쓸 XX 사진 2

BOOK 시인 하상욱(p.90)



안 쓴 이유 착시현상까지는 아니지만 위치가 너무 묘하다. 게다가 손잡이 모양새까지도...



33인의 한반도 히어로즈(p.106)



안 쓴 이유 에디터는 <어벤져스>를 의도했는데 일러스트레이터가 <은비까비의 옛날옛적에> 버전으로 해석했다! 분노한 에디터가 그를 뒤달해 탄생한 새로운 결과물은 기사 안에 들어있다. 그 전에 것도 나쁘지 않네?

국내 최고의
종합 격투스포츠 리그
ROAD FC 012
ROAD FIGHTING CHAMPIONSHIP

밴텀급 챔피언전
이길우 VS 송민종

ONE FC 밴텀급 초대 챔피언 김수철
LFC 웰터급 챔피언 배명호
라이트헤비급 강자 김지훈 출전



6월 22일 (토) 밤 8시 슈퍼액션 독점 생중계



MAYIM



KOREA

ICON

의리의 화신
김보성

GAME
ALL TIME
HOTTEST
2D GIRL

날강도 모바일 게임 5

MAXIM AWARD

이달의 추락자 영예의 1위: 윤家

REAL MONSTERS

헤이아치는 있다
높이 16미터의 괴물 오리

MISS MAXIM

미스맥심과 함께하는
독자의 자동차 EVENT

SCARY
MOVIE 5
ASHLEY
TISDALE

JUNE 2013



STYLE UPDATE
BLACKTOOTH

록페스티벌에서 먹어주기
영덩이뽕 감별법

www.maximkorea.net



9 | 772233 | 427008 | 06

ISSN 2233-4270